

제427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6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1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회 1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회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첫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날입니다. 지금 어려운 교육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의대 문제, 지역대학 균형발전 등 시급히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소신, 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일 채택한 인사청문계획서에 따라서 먼저 후보자의 선서 그리고 모두발언,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발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님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요, 후보님께서선 선서문 낭독 이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공직후보자 이진숙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에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후보자께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과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지난 36년간 교육자로서 대학에 근무하였고 지역거점국립대학의 총장과 국·공립 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 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 앞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라는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전방위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교육의 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공교육이 안타깝게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돌봄과 교육비 부담으로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관리체계를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키우고 아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누적된 상처와 감정을 돌보

지 못해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상처 입으신 선생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사의 위기는 교육의 위기이며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너지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세심하게 돌보겠습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AI 교육혁신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AI 융복합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문해력과 AI 기초역량을 강화하여 AI 인재가 자라날 수 있는 사회의 저변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AI 전문인재와 AI+X 융합인재 등 다양한 층위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AI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 인간다운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고 시민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힘으로 지역혁신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교육자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에 있는 저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하신 이유를 되새기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거점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고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대학이 없도록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자원 공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주요 정책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존중과 소통의 중요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학내 구성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장 의미 있는 성과들은 소통과 존중의 리더십을 통해 얻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육현장의 지혜와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대학과 협업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힘이자 미래를 열어 가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국민주권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후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의 저의 소신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

에서 진실되고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선 조정훈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조정훈 위원 위원님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여당에서도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문정복 위원 하시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일단은 야당에서 먼저 간사님이 해 주시고 여당 한 분 이렇게 오고 가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아니요, 우리 위원님들 먼저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김대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진숙 교육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법무부와 감사원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7항은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 등을 요구받은 관서의 장이라든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료제출 거부하는 물론이고 지금 특히 후보자가 거점 국립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그리고 표절, 연구 부정 의혹이 집중된 시기 자료를 제외하고 최근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태도는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민들이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법무부와 감사원은 즉시 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 취지에 따라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또 이 순간까지 아직 후보자께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을 오늘 오전까지 가능한 한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3분 드리기로 했고요.

우리 김대식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제가 이진숙 후보님을 이번에 장관후보 지목되고 나서 딱 한 번 만났지요. 딱 한 번

만났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는데 처음 상견례했을 때 제가 분명히 당부드렸던 말씀이 제가 민주당의 교육위원장이지만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의 자료제출에 대해서만 큰은 굉장히 엄격하게 했다고 부탁을 드렸고.

이진숙 후보가 지금 자료 요청에, 요구 427건을 하셨는데 19건을 제출 안 했는데 보면 통계상 95.6%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역대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료제출률이에요.

○**김대식 위원** 19건 중에서 본 위원 게 11건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주호 장관 때도 굉장히 엄격했는데 이주호 장관도 90% 내셨어요. 잘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진숙 후보가 자료 미제출하신 부분과 당시에 이주호 장관이 미제출했던 부분이 거의 흡사합니다. 개인 계좌 문제, 유학비 문제 또 아이들 성적의 문제 등등이에요.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하더라도 특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국회라도 생활비에 대한 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보라, 이건 사실 검찰보다 더 강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지는 압니다. 우리도 야당 때 분명히 이주호 장관에게 여러 가지 뭐 계좌 문제, 유학금 문제, 성적 문제, 건강 문제까지 다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 위원님들도 야당 위원님들의 이 같은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랬어요.

다만 당시에 지금 야당 위원님이 여당일 때 굉장히 방어에 나섰고, 이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합의 본 게 이주호 장관이 90% 정도 자료제출을 하셨고 그중에서 개인정보 예를 들어서 해외송금 내역 그리고 후보자·배우자 직계존속 비용에 해외송금 내역이 있었고요. 또 자녀의 재산 형성 자금 출처, 직계비속의 해외체류 기록 이런 등등 문제는 이주호 장관도 제출 안 했고.

지금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거의 흡사한 부분을, 아마 후보님도 따님의 계좌 문제 이런 것을 제출 안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후보자 자료제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95%는 저는 사실 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굉장히 성실하게 잘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를 비판하셔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계좌 문제, 성적 문제, 건강 문제는 아직까지 그런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같음하고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 거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거부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말씀을 들어봐야지요. 왜 자료제출이 힘든지를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김대식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어떤 자료를 후보에게 요구하실 거고 어떤 자료는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거는 김대식 위원님이 저한테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후보자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위원장님께서 전 이주호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비교해서 지금 이진숙 후

보가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823건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숙 장관이 제출한 건수보다 건수 자체가 1.5배 이상 많이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95%, 90%라고 하는 통계로 얘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참고인이 4명이나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시다시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없고, 증인은 물론이고 참고인도 단 한 명도 없는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 학자를 그만둔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문제나 이런 문제도 학교현장에 있었던 이진숙 후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의 논문 연구윤리검증위원장조차도 참고인으로 불러 주시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 이주호 장관 인사청문회 때 논문 검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으로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국민적인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왜 이진숙 후보 논문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 많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한 명 안 불러 주시는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문제는 이제 문정복 간사님이 답변을 주시겠는데, 한번 문정복 간사님 답변을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증인, 참고인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여야 간사가 합의할 때 야당 측에서 많은 수의, 한 열다섯 분 정도의 증인을 요구하셨고 저희가 간사끼리 합의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왜 안 나오게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의문이 가지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가 숙명여대,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가지고 연구윤리위원장을 계속 증인으로 했을 때 그분이 성명불상이었어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그분에게 송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윤리위원장은 왜 성명불상이어야 되느냐, 이것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학계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행정실은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증인으로 나와 달라라는 공시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위원님 중에서 어떤 분을 특정해서 ‘이분이 연구윤리위원장이다, 이분에게 공시 송달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연구윤리위원장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달을 받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인과 관련한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리고 합의된 상황에서 그분이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증인으로 공시 송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충남대에서는 공식 확인을 안 한 거지요?

○문정복 위원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성명불상이…… 지금 충남대에서 당시의 연구윤리검증위원장에 대한 실명을 아직 공식 확인 안 해 줬고……

○문정복 위원 확인을 해 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숙대와 국민대의 경우에 준해서 보면, 그렇게 만약에 충남대가 확인해 주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숙대랑 국민대에 굉장히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그게 사실 안 됐는데……

○문정복 위원 예,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당시에 야당 위원님들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그때는 또 굉장히 공세를 했고. 지금은 바뀐 거잖아요, 공수가.

그래서 서로가 좀 역지사지해 보면, 저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해는 해야 된다, 뭐 이것이 잘됐다, 옳다 그르다는 아니더라도 서로가 역지사지해 보면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차분하게 저는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고용노동부에 이진숙 후보자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분 내역입니다.

현재 기재출된 자료를 보면 이진숙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및 진정 접수 현황이 9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건 존재합니다.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였던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갑질 관련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하는 갑질도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교육부장관후보자가 만약 갑질 관련으로 신고를 당한 게 2건 있었다는 게 확인된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들의 개요, 진정서 및 사건처리 결과 회신공문 사본을 오전 질의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지금 교육부장관후보자가 갑질과 연루된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진숙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회 진정 내역입니다. 인권위에도 후보자 관련 진정이 1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학교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관한 진정이 있는데 이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사항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인권위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우리 국회 교육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큼은 오늘 반드시 소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이 이미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오늘 의

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처음 밝히시는 건가요?

○정성국 위원 요청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 제출 요청을 했고요.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 요청한 자녀의 학비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무리한 자료 요구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최근 5년 것은 있지만 그 전의 것이 없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오전 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자료제출……

○위원장 김영호 예,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위원 제가 요청한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출입국 기록 그리고 당시 사증(비자) 발급 종류와 유효기간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연도별 유학비 내역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역과 계층을 넘어서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평등하게 누리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보편교육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 이것은 비판할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사자께서 격차 해소, 공교육 수장을 맡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전반적인 검증을 위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조정훈 간사님.

○서지영 위원 자료 요구……

○조정훈 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하시지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의 자료 요구율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제가 한 98건 정도 요청했지만 미제출하거나 굉장히 미흡한 형태로 제출한 게 48건이었습니다.

앞서 강경숙 위원님이나 김용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와 배우자의 해외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이것을 제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인·참고인이 성명불상이라서 오지 못했다면 적어도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윤리위원회의 평가서류는 제출해 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없다는 결과만 제출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었는지 평가 서류는 충분히 제출하실 수 있고 그것은 충남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청문회 특징이 있습니다. ‘무증인’ ‘무참고인’, 참

무증무참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증인을 불러도 한 명 나오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참고인을 불러도 한 명 나오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후보자만 모셔다 놓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참으로 기이한 청문회가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복 간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지금 서지영 위원님께서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 안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서지영 위원 회의록이라고 하지 않았고 평가 서류라고 했습니다.

○문정복 위원 평가 서류, 기타 등등 연구윤리위원회와 관련한 서류들을,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대와 숙명여대 저기가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데자뷰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저희가 받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학술적 판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등 인적사항과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 기본적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지속된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을 충남대에 예외 적용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것을 수긍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충남대에만 예외 적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그때 사안별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에 했던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와 국민대의 잣대를 기준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사실관계 바로잡아 주세요.

○서지영 위원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자료, 논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고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을 동의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는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습시다. 왜 회의록이라고 잘못 얘기하십니까? 저는 평가 서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 서류에 이름 빼도 좋습니다. 각각의 무슨 성명을 기재하라는 게 아니라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내렸는지에 대한 평가 서류를 요청했는데 과거의 얘기를 꺼내시면서 회의록으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문정복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영호 이것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정복 간사님 말씀 주시고 조정훈 간사님으로……

○문정복 위원 평가 서류와 기타 위원회의 성명 이런 것들은 모두 회의록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지영 위원 구별 못 하십니까, 회의록하고 평가 서류하고?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발언하실 때는 좀 절제해 주시고요.

○문정복 위원 회의록 내용에 그런 모든 평가 서류들도 다 함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고 그것을 저희가 수용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국민대 논문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충남대에게 예외 적용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여러 가지 평가 서류, 윤리검증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대학의 비공개는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청문회 끝나고 제도적으로 국회가 마련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국민대·숙대도 굉장히 답답했을 때 사실 당시 여당은 굉장히 미온적이었고요. 그런데 입장이 이제 바뀌어서 같은 말을 우리가 또 되풀이 하는데 저는 이것 법적으로 우리가 한번 입법발의를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마지막으로 말씀 주세요.

○조정훈 위원 제가 발언하기 전에 우리 야당 위원, 정성국 위원님과 강경숙 위원님 자료 요청 공식적으로 안 해 주셨는데 그것은 해 주실 거지요?

○위원장 김영호 제가 요청은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발언하겠습니다.

조정훈입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청문회 안 할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후보가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자진사퇴해서 그렇게 성공을 바라는 이재명 정부에게 짐이 되지 않게 결정을 내리리라고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교육 비전을 말씀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한 유감이고,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불신 그런 의혹들이 현실이 됐을 때 아마 더 어려운 시간을 겪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증인 문제입니다. 지난 8일로 기억합니다. 여야가 합의로 연구윤리위원장 증인 채택을 동의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의결했습니다. 문제는 불상이라는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충남대로부터 정확한 인적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뒤진 게 아니고 충남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을 행정실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실 왠 여야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 채택을 했으면 그것을 발송하면 되는 거지 행정실이 무슨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도 아니고 왜 여야 협의를 하라고 회신을 합니까? 이는 저는 민주당이 발송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인지 아닌지 몰랐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식별 안에서 지금 블러리(blurry) 처리했지만 전화해서 땡땡땡 교수가 땡땡땡 기간에 윤리위원장이었냐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라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되고요. 이것은 막으려고 했다는 것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라는 모 민주당 위원님의 발언이 민주당 전체에게 이렇게 빨리 전염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 몇몇 의혹에 대해서 방어했던 것 맞습니다. 그때

민주당 위원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정의의 잣대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국민적 정서 국민적 의혹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왜 안 내냐고 강력하게 질타하신 분이 위원장님이시고 간사님이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십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들 정치인이라. 그런데 이것은, 저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격도 안 되는 후보 방어하시느라고 정말 안쓰럽다. 정말 안쓰럽습니다.

○고민정 위원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조정훈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6명의 이름으로 고발장 준비했습니다. 후보님, 제가 요청한 충남대 자료 아실 겁니다. 저희 6명 이름으로 고발장을 준비했으니 오늘 오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 유학비 지출은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학비를 얼마 썼냐라고 알려 달라는데 그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라고 거절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리고 충남대도 분명히 법원에서도, 수원지법 판결문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개인정보를 잘 가리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까지 있습니다. 이것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문 주장하실 때 흔들었던 자료입니다.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개인정보 식별해서 충남대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박성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정훈 위원 이 고발장에 2개가 있으니까……

○박성준 위원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성준 위원 제재를 가해 주세요.

○조정훈 위원 반드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박성준 위원 아니 조정훈 간사, 야당 간사로서 지금……

○위원장 김영호 지금 시간은 끈 것 같고요.

○박성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정훈 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거고 그걸 안 하면 고발할 거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성준 위원 자료제출은 위원장 보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아까도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조정훈 간사님이, 우리 야당 때 자료제출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 자료제출하라고 질타했다는 건 잘 기억하는데요. 그때 여당 위원들이 한 번도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여야 위원들이 지금 공수가 바뀌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고, 2년 전이랑 어찌면 이렇게 똑같은지. 그러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또 여당 위원님들이 야당 위원님들에 얘기하는 것은 그냥 여야가 공수가 바뀐 거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질의 분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 달라니까요.

그때 우리가 자료제출, 여러 가지 제출했을 때 그 당시 여당 위원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무 과도한 자료제출이다. 우리의 공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동참한 적이 없어요, 다 가로막았지. 그러면 그게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여당과 야당 위원님들께 역지사지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95%의 자료제출한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셔야지. 다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내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할 겁니다. 하겠는데 후보자가 그것은 잘 판단해서 정말 이 부분에 개인정보에 치명적인, 아이의 건강이 있는지 성적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은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훈 위원 지금 그걸 달라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은 제가 후보님에게 다시 요청할 거고요. 후보자가 그것은 잘 정리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민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고민정 위원 자료제출 부분이나 증인·참고인 부분이나 저희가 다 막았다고요? 있지도 않은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도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있고 저희도 필요로 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솔직히 저희 일반 위원들은 다 알지 못하지요, 비공개로 하시니까. 다만 이제 간사들을 믿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고 때로는 저쪽이 양보하고 하면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치 저희가 모든 자료들을 못 내게 막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호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자격도 안 되는 후보라니요. 저희가 오늘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오늘 검증하려고, 인사청문회를 아직 시작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자격도 안 되는 후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저는 조정훈 위원님이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제가 우리 행정실……

○위원장 김영호 좀 차분하게 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실에서 저희가 낸 자료에 의해서 송달을 하려고 했는데 왜 오늘까지 송달을 안 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확인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원래 박성준 위원님이 의사진행 하시겠다 그랬는데 안 하시고 문정복 간사님.

○조정훈 위원 두 번째……

아니, 저한테 자격 얘기하셨으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신상발언.

○조정훈 위원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위원님이 저 이진숙 후보가 교육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릅니다. 아마 이제 검증하시겠지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많은 자료들 다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보좌진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이분에 대해서 생각한 그 결과 저는 판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한 것……

○고민정 위원 그러면 청문하지 마십시오.

○김준혁 위원 청문회를 안 해야지요, 그러면.

○고민정 위원 아니, 자격이 없다고 이미 판단하셨잖아요, 청문회도 안 했는데. 그러면 청문회를 뭐하러 하십니까?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발언을 끝까지 들어 보시지요.

정리해 주세요. 다 하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 위원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정훈 위원님께서 화면으로 띄우셨던 카톡의 인적사항은 충남대가 공식적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분의 인적사항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충남대의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간사끼리 합의한 인적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자료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저한테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나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았다. 그러니 성명불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행정실에서 송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행정실에 여당이 그것을 이렇게 사주한 것만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충남대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실에서 이분한테 연락해서 이분이 그 당시 윤리실장이 맞는지 확인하고……

○문정복 위원 그것은 이미 시한이 지난 겁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오후라도 출석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자, 정리할게요.

○문정복 위원 우리는 그분에게 송달을 할 때는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잘 파악해서 5일 전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요. 규정상의 문제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의 합의 내용이니까 두 분이 정말 이따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시고요.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진숙 후보님, 지금 야당 위원님들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아마 뒤의 교육공직자들이 잘 메모를 하셨을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요.

실제로 오늘 여야 국회의원님들의 청문회 검증 과정이 있는데요. 오늘의 검증은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의 검증이 아니라 국민의 검증이라고 보셔야 되니까요 야당 위원

님들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저는 이진숙 후보님이 정말 진실을 담아서 진심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위원장 김영호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도 많이 되돌아보셨을 텐데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위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것을 숨기지 않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잘못이 있다 그러면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게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보고요. 조금 약점이 있고 나의 치부라고 생각해도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들께, 오늘 국회의원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사과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재평가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님이 평생 교수님으로 계셨으니까 교육자 활동을 하면서 교육의 철학 또 대한민국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당차게 말씀을 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진숙 후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성실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야당 국회의원이든 여당 국회의원이든 모두 다 국민의 질문이고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위원장 김영호 예,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 중에 정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갑질 관련해서 이야기 주셨는데 혹시 이게 총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민원 대상이지 실제 행위의 대상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부분이 후보자를 직접 행위대상자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것을 잡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총장으로 재직했을 때 기관장으로서 다 했던 부분하고 본인이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보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아까 야당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 자료제출, 미제출 또 미제출했을 때는 사유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장실로 보내 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제출하시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서 만에 하나 후보자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된다면 아마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서도 저희가 같이 제출받아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일단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정을호 위원 아니, 그런데 후보자를 그렇게 바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라 그런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이니까……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잠시 후에 이진숙 후보께서 그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을 주실 것 아니겠어요.

○정성국 위원 발언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러세요.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정성국 위원 예.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당의 위원이 그 자료제출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을호 위원 문제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하자 이거지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의 이미지에……

○정성국 위원 아니,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럼요.

○정을호 위원 아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식시켜 달라는 이야기지요.

○정성국 위원 아니, 오해가 있는 것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정을호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타당한 거고요.

○정성국 위원 정당한 것 아닙니까, 정당한 것?

○위원장 김영호 타당한데 아까 그 자료에 대한 ‘갑질’이라는 표현 속에서, 후보자의 갑질 여부를 우리가 확정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을호 위원님은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후보자분이……

○정성국 위원 제가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시고 제가 말을 할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잖아요.

○백승아 위원 본인이 끼어드신 거예요. 위원장님이 말하는데 본인이 끼어드신 거라고요.

○정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할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이겁니다. 되셨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되는데 발언 중에 이진숙 후보의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주의를 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아니, 의혹 제기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정성국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고 얘기했지 않

습니까.

○정성국 위원 그럼요, 그럼요.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정리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정을호 위원 아니, 직장 내 수장으로서 받은 건지 그것 확인해야지요, 그 부분은.

○정성국 위원 아니, 그것을 자료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 왜 그래요.

○정을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같이 이야기했어야지요.

○고민정 위원 아니, 두 분이 나가서 얘기하시지요.

○위원장 김영호 예,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고요.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인사청문회를 위해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질의 순서는, 오늘 청문회 첫 번째 질의는 진선미 위원입니다.

○진선미 위원 후보님, 먼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후보자께서 지방에서,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고 또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오늘 청문회까지 여러 우려가 많이 보도도 되고 또 제가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오늘 청문회는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단순히 후보자의 자질 검증도 필요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들, 의대정원 문제라든가 또 무리한 AIDT 교과서 도입 문제라든가 또 특히 가장 중요한 유보통합 문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이미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은 해 주셨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또 후보자의 입장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솔직하고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결하게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민적 관심사가 아무래도 자녀 유학과 또 논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명을 들어야 되는 자리라는 생각이구요.

이미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으로 말씀하셨듯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셨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진선미 위원 그런데 자녀들은 전부 조기유학을 했습니다.

아시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 강렬한 교육열로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고, 누군가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던져도 조기유학은 꿈도 못 꾸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정작 후보자께서는 자녀들을 다 조기유학을 시킨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또 둘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규정의 위반 사실이 이번에 알려졌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 사죄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또 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조금 가까이 대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년간 미국을……

○위원장 김영호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선미 위원 좀 크게 하십시오. 가까이 좀 대시고 아니면 몸을 좀 가까이 대셔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계기가 돼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희망을 했고 부모 마음으로 참 정말 떼어 놓기 힘들어서 많이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강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경우는 언니가 갔으니까 간 경우였는데 미국의 학제가 9학년부터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요. 가서 1년 반을 더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9학년부터 시작이니깐요, 고1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둘째 아이도 언니를 따라서 1년 뒤에 유학을 가면서, 그런 1년 반씩이나 뒤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중3 2학기에, 그러니까 6개월 밀려서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건데요.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 송구한 마음 담아서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 논문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검증단이 발족됐고 거기서 결과 발표를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리고 저도 이공계의 어떤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분들께 여쭙보고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문제 있다고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로 이공계의 교수님들은 이게 1 저자라는 것이 좀 많은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나 그게 논문 표절이라고 보거나 이중·중복 게재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증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다른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고 해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또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30여 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 그리고 제자

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청문회에서 그간 연구윤리 관련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해명할 건 해명을 따로 하더라도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닙니다. 그 부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훈 위원 표절했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것은 이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명을 들어 보자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서 앞으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어떻게 교육부 수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하나가 도덕적인 검증이고 하나가 정책적인 검증인데 저는 몇 가지 교육부장관으로서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장관후보자가 오랫동안 교육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장관후보자가 생각한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뭘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그런 소양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이 곧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위원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수준과 사회적 수준, 국가적 수준이 있다고 봐요. 개인으로 볼 때는 자아실현이 되는 거고 사회적 수준을 볼 때는 그 개인이 사회적 자아실현을 통해서 공동체의 발전, 유지 그리고 국가의 발전,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는 모토로 교육이 그것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역할을 장관후보자가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교육부장관후보자로써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대략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교육 강화입니다. 국가책임을 강화하면서 공교육이 체감되게 하고 그럼으로 해서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든지 하는 공교육 강화 측면이 고요. 두 번째는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거고, 또 세 번째는 AI 시대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을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 혁신을 만들어서 국가균형발전을 만드는 것, 이러한 의지를 모두 포함하는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인재 양성인데 이게 학교현장에서의 공교육 강화하고 특히 국가가 생각하고자 하는 발전 대계로서의 AI 인재 양성이라든

가 또 지역의 대학교육에 그러한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교육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만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과 바로잡음이 있을 때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3년이 대한민국의 10대 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교육의 질적 강화들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대정원의 2000명을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한다든가 만 5세 입학술 어느 날 발표한다든가, 누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그다음에 유보통합은 완전히 무너졌고, AIDT 교육교과서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된 정책을 하나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을 보였던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이진숙 장관후보자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부장관으로서 잘못된 것을 먼저 바로잡는다면 어떤 걸 먼저 바로잡아야 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둘지,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면 어떤 걸 먼저 제일 바로잡겠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육정책으로서는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제일 아쉬웠던 점은 절차적 합리성과 소통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모든 현장과 또 관계부처와 관계되는 전문가와 소통을 하면서 절차적인 합리성을 지켜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위원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정책 우선순위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앞서서 공교육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는 교권과 아이들 마음건강 챙기기가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준 위원 저는 장관후보자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의 국가 공동체 유지라든가 국가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민족, 우리의 공동체를 훼손한 게 뭐였냐면 지난 12월 3일의 내란이었습시다.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잘못된 교육을 보여 준 것이 전임 대통령과 그들의 세력에 의해 국가 공동체가 무너졌다 이 부분을 바로잡는 거예요.

뭐냐면 교육현장에서 실제 역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이념적 잣대로 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훼손시킨다든가 이러한 역사적 근간을 흔들었던 사람이, 교육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때 우리 국가의 정체성은 유지가 되고 공교육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교육이라든가 공교육의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까지도 교육부장관후보자로써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잘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박성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교육부장관으로서 여러 정책 어젠다 순위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음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통해서 그것을 수정하고 개선하지 않을 때 교육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같은 이런 내란 사태가 벌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정확한 철학과 역사를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관을 가지고 임할 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현장의 장관후보자로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투입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적 가치, 그런 민주주의 그리고 역사관 이런 것들을 올바로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당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이진숙 후보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시고 안 들리니까 의자를 앞으로 좀 당기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최대한 당긴 겁니다.

○김대식 위원 최대한 당기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진숙 후보님, 지금 여야 보셨지요? 중오 없는 전쟁입니다.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을 때 진보 좌파가 반대를 하고 진보 좌파가 정권을 잡을 때 보수 우파 정권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님께서 큰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나? 국민 대통합을 이뤘습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진보단체, 보수단체, 국민, 사회단체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님 모교 동문회 그리고 국민검증단 이런 것에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면서 딱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이진숙 후보는 안 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임명을 철회하기 전에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저의 주변부터 말씀드리면 몇 분의……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몇 분의 분들이 반대를 하셨지만 22만 충남대 총동창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 그리고 실제 다수의 교수집단들이

지지 성명을 냈고 또 역대 저와 같이했던 총동창회 회장, 학생들이 모두 그것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지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심지어는 전교조까지 안 되겠다라고 했어요, 국민검증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진숙 후보가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5만 원권 지폐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폐를 들어 보이며)

이 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신사임당이십니다.

○**김대식 위원** 신사임당이지요?

그러면 50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율곡 이이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율곡 이이입니다. 이는 지금 모자 간 아닙니까? 5만 원권 지폐의 신사임당은 실질적인 교육의 상징적인 어머니고 5000원권의 율곡 이이 선생은 조선시대 아홉 번의 과거시험에 합격해서 아홉 번의 장원급제를 한 인물입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우리 부모들은 이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선생님을 보면서 ‘그래, 나도 어렵고 힘들고 배고픔이 있지만 이것을 견디면서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 봐야 되겠다’ 이런 여망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와서 우리 산업화·민주화를 열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대식 위원** 이진숙 후보자님이 자녀 유학 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몰랐다’ 아까 사과를 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 공교육을 경험도 하지 못하고 수능시험을 한 번도 경험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모의평가의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의 성적표를 가지고 가슴에 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능 수험표가 하나 있으면 이 수험표를 가지고 교회 가서 절에 가서 우리 자식 한 점수라도 더 올려 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 보셨냐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저는 이 공교육의 책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한국의 공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 또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김대식 위원** 수많은 눈물 그리고 빛,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 이것은 교육의 수장이 그러한 이정표가 돼야 되고 등댓불이 돼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진숙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교수 생활 몇 년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36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36년 하셨지요. 제가 35년을 했는데 저도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고 책도 많이 냈고 이랬는데.

이게 전체 이진숙 후보자님의 논문입니다. 제가 카피킬러로 전체 그걸 했습니다.

도표 한번 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국민검증단에서, 이게 출처입니다. 이 노란선이 있는 것이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의 퍼센티지입니다. 표절률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님은 52%, 56%.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것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저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카피킬러로 하고, 국민검증단에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 카피킬러는요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오도석 박사학위, 정찬웅 박사학위 그다음에 김보현 석사학위, 후보자님의 제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제자들의 논문을 오자 탈자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베끼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주 저자가 후보자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질문 끝나고, 지금 시간이 돼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후보자님의 제자들은 시간강사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제가 직업을 밝히지 않았는데 제가 다 접촉을 시도를 해 봤어요. 그런데 본인이 주 저자가 되면 이 석사·박사학위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 제자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

원래 충남대의 학사관리, 대학원 학위를 주는 과정에는 이공계의 경우에 반드시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지만 학위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공과대학에서는 공대에서는 교수와 제자가 공동 연구를 하면 같이 이름을 넣습니다. 주 저자로 이름을 넣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이름을 빼고 후보자 교수 이름만 넣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질문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여러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문제니까 혹시 해명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국민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깐요. 다만 너무 장황하게는 하지 마시

고 계속 질의가 있을 테니까 김대식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가장 많이 지금 지적이 되는 게 부당한 저자 표시 즉 제자 논문 가로채기, 제1 저자로 썼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계에서는 논문을 작성할 때 공동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집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공계의 경우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가, 또 대부분의 이공계 논문은 지도교수가 수주해 온 국가과제나 연구과제로 수행이 됩니다. 그것을 학생들과 같이 수행을 해서 그 학생들은 세부과제로 진행을 하다가 발전시켜서 본인 학위 논문으로 가는 게 이공계의 일반적인 발표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도교수·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하여 1 저자를 결정해야 함 이게 연구재단의 지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아마 계속 질의가 있을 테니까요 이 정도로 말씀을 주시고.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이공계 출신 없으신가요? 이공계 출신 있으면 좀 더…… 다른 뜻은 아니었고요 그냥 갑자기 이공계 위원님이 계신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논문 관련해 가지고 카피킬러라 그러니까, 그걸로 하니까 복사율이 너무 높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공계 논문하고 문과 논문하고 카피킬러의 문제점 그거 다시 한번만 좀 국민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저는 총장 임용 당시에, 연구윤리가 시작됐던 2007년도부터 총장에 임용되기 직전까지 거의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학교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해서 모두 10% 미만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했던 논문들이고요. 그런 논문이 이번에 국민검증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카피킬러로 돌렸을 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보여 주셨듯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들에서 지적하는 2007년 이전의 논문들이 있었기에 저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혹시나 해서 돌려봤는데 전혀 타당치 않은 10%를 겨우 넘는, 2007년 이전입니다. 연구윤리가 확립되기 전에 그런 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돌려서 나오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게 카피킬러는 계속 자료가 같이 겹쳐지니까 때문에 유사 자료가 겹쳐질 때마다 유사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하나씩 다 제외를 해 가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돌려야 진정한 유사율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논문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교수님 출신들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보니까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그게 아니다라는 게 저도 보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보다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생각보다 실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밖에서는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녀 조기유학 중에 의무교육, 중학교까지 마쳐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은 확실히 잘못된 거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다음에 충남대학교에 소녀상을 설치할 때 법의 규정을 따지면서 역사적 의미나 가치를 새기지 못하고 너무 공무원 자세로 법적으로만 이것을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녀상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일본 정부에 무엇을 더 요구해야 되고 이게 어떤 과제가 남아 있길래 이렇게 국민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직 진정한 의미로 식민 수탈의 역사에 대한 사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러나 공동이익을 위한 어떤 외교에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겠지만 그런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너무 공무원의 자세로 한 부분을 앞으로는 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 소녀상에 대해서 잠깐 해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수 위원 이따가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자녀 국민건강보험, 결혼을 하면 당연히 피보험자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것도 확실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논문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 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사실 이공계 상황을 보면 교수와 제자가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데 기여도에 따라서 제1 저자가 되는 경우, 저의 경우는 전체 논문의 30% 정도입니다. 70%는 제자와 공동연구 혹은 참여연구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이공계 교수들이 하는 그런 퍼센티지로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실수가 있었다면 세세한 것, 윤리위 기준에 속하지 않은 오타 탈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래서요 제가 다시 한번 후보자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성으로서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또 두 자녀를 키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상당히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주변을 잘 못 챙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지적한 확실한 잘못 몇 가지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과를 좀 제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 좀 일어서서 가지고 국민들께 제대로 허리 숙여서 방금 확실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사과를 한번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그냥 맡기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유학 문제, 인식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6개월 먼저 보냈던 사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문제는 사실은 그것도 인식을 못 했고 아이가 이미 미국에서 건강보험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을 꼭 해야 될 이유도 없었는데 주소가 미국이다 보니 한국에서 어떻게, 결혼한 아이였지만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이 같은 주소지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가입자로 이미,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고 지역가입자로 빨리 바꿨는데요 이미 남편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어서 무슨 제 밑에 둘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모두발언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래서 아이를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라고 하면 ‘공교육은 국가의 책임인데 공교육이 그동안 제 역할을 해 오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소위 교수 자제나 혹은 또 상류층 자제는 한국의 공교육을 떠난다라고 하면 한국의 공교육은 더 황폐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본인은 했잖아요, 그렇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이들의 희망에 의해서 했지만 저 역시 고등학교 때까지 공립학교를 나왔고 지역 국립대학의 공교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김민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인들도 한국 공교육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오바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한국 공교육을 좀 배우자 이 운동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이 논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 PPT를 좀 보여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에 장관, 특히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논문 문제로 낙마를 하신 분들이 네 분이 계시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정치인이나 또 장관들이 논문 표절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교육부장관은 달리 우리 국민들이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김병준·김명수·김인철·박순애 장관후보 그리고 또 임명되어서도 얼마 못 가서 대부분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에 있어서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 나가야 될 가장 책임있는 분이 교육부장관인데 교육부장관이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 후보님께서 ‘이공계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주로 주셨고요. ‘표절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들의 표를 좀 세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자 학위 논문과 후보님이 발표한 논문에 있어서 그 표가 유사한 것이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소위 이공계 논문에 있어서 표는 실험의 핵심적인 써머리(summary)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술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표가 17개, 21개까지도 같은 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같은 논문이다, 제자의 논문과 후보님이 발표한 논문이 사실상 같은 논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재단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공계의 경우……

○김민전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 보고 있고요. 학생과 또 교수가 공동연구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후보님의 경우에는 후보님이 1 저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 저자는 일반적으로 실험을 주도한 분이 1 저자가 되는 것이고 교수님은 교신 저자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왜 모든 논문에 있어서 후보님이 1 저자로 들어갔느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공동 연구가 문제가 아니라 1 저자로 들어간 것이고 1 저자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러면 후보님이 1 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 그 학생의 학위 논문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그 둘 중의 하나여야 한다면 의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1 저자가 되는 것은 방금 전에 연구재단 연구윤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이 학위 논문을 하기 전에 제가 국가 연구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1 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가 발전시켜서 본인의 학위논문으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가 같을 수밖에 없고, 같은 실험이니깐요. 그것을 가지고 학위논문을 썼으니깐요.

○김민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셨다 이런 뜻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 실험의 기본적인 피험자하고 같이 기계적인

실험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입회도 많이 했지만 그 과정은 학생들이 주로 수행을 했습니다.

○**김민전 위원** 학생이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의 주체가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김민전 위원** 그러면 후보님이 연구노트를 직접 쓰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연구노트 쓰지요.

○**김민전 위원** 지금 국가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3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연구노트를 쓰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당연히, 학생들이 연구노트를 쓰고요. 저는 수첩에 그런 연구들을 다 저장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좋습니다. 지금 후보님의 말씀 자체가 내가 따온 연구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실험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그 실험을 한 학생이 1 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이공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렇지 않고 본인이 1 저자를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을 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연구윤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학생들의 학위가 취소되어야 된다는 얘기나 이런 문제 제기도 사실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를 기획하고 모든 실험환경을 조성하고 방법론을 모두 계획을 해서 단지 실험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자가 손발이 돼서 도와준 겁니다. 같이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을……

○**김민전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양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수가 따온 그 연구과제를 가지고 랩을 만들고 그 랩에서 학생들이 연구를 수행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험을 수행해도 그것은 학생이 1 저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소위 이공계의 논문 쓰는 관행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육성으로 직접 국민들께 해명하고 있는데요 성실한 자세로 계속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김준혁입니다.

장관후보자님께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김민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인철·박순애가 교육부장관 그만두게 된 것이 논문 표절 때문이 아니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김인철 당시 후보자는 잘 알려져 있지만 방석집에서 논문 심사를 했다는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자진사퇴했던 것이었고요. 박순애도 논문 표절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식 장관 임명됐다가 5세 조기입학 이 건으로 된 것입니다. 논문 표절로 장관후보자가 사퇴한 예는 없다는 것, 저희도 조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혹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후보자님, 제 개인적인 이야기 먼저 하고 후보자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굉장히 놀라고 계실 겁니다. ‘아, 내가 갑자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악마 같은 사람이 됐나? 나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공계 건축학과에 여학생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일찍 들어가서 공대 전체에 정말 혼자일지 둘일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공부하면서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최고의 악마가 돼 있다’, 느낌이 좀 어떠셨습니까? 말하기가 좀 어려우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많이 마음이 아프고……

○김준혁 위원 평생 저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난 총선 때 TV 틀면 5분마다 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제 가족들 모두가 다 대인기피증에 걸렸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제가 했던 강의 내용들 또 발언들, 글쓰기 다 짜깁기해 가지고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제 별명이 ‘막말 김준혁’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제가 했던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에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 또 중고등학교 검인정 역사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다 판명이 났습니다. 그 뒤에 저를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교수 출신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역사 전공자인 저의 논문쓰기 방식과 글쓰기 방식과 이공계 글쓰기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작은아들도 후보자님하고 같은 대학 바로 옆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AI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하고 같이 랩실에서 연구를 하고 논문도 쓰고 국제학술대회 두 번 발표를 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런이런 상황은 어떠냐?’, 건축학과 교수들한테 친한 교수들한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것 우리 글쓰기 방식하고 너무 다른데 이 부분의 어떤 거냐?’ 그랬더니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풀기 시작을 했지요.

연구재단에서 올린 연구윤리 그 PT 한번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원래 정책 질의하려고 잔뜩 준비했는데 앞선 내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연구재단에서 나온 연구윤리정보포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저자는 제1 저자와 교신저자로 되어 있고 여기에 공동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실적 환산할 때 제1 저자,

교신저자 동일하게 동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 줘 보십시오.

‘학위논문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 저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여기는 학위논문을 갖다가 제1 저자, 교신저자 저자 순서는 저자 간에 합의하는데 아까 제자분들하고 이야기 할 때 원래 연구한 내용들을 교수님께서, 교수님이 주로 연구한 내용들 중에 그 일부 내용을 석사논문으로 쓰고 또 내용을 박사논문으로 쓰고 이것이 건축학계의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것이 표절이거나 자기부정이거나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도 위원장님께서 여기 이공계 출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공계 출신 1명도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교수 출신으로 정치인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인문계 출신들이거나 법대 출신이거나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사고와 영역으로다가 재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출신에서 나오는 학문연구시스템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 저 죽어라 열심히 박사논문 쓰고, 사실 지도교수님들이 도와 주기는 하셨지만 철저하게 저의 연구거든요. 그런데 이공계 쪽은 바로 지도교수가 연구하는 내용 속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박사논문을 쓰다 보니까 앞의 사전에 지도교수가 낸 학술논문 내용이 왜 그러냐? 실험을 하는 거니까, 실험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글쓰기 방식이나 논문전개 방식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학문적 내용의 성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든 어디든 오해를 해서, 그래서 ‘왜 표절이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김준혁 위원 제가 후보자님을 무조건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김준혁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면 사람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가족들 정신 상태도 붕괴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좀 밝히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은 스승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자들이 더 연구를 하면 제1 저자를 제자들한테 더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과 나머지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합의된 상태 속에서 제1 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의 연구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따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학문적 연구 풍토가 다르다는 것을 교수 출신, 인문학 교수 출신 입장에서 한번 해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후보님, 김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다만 제가 모두 제자논문에 1 저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처음 단계에서는 당연히 주로 기획을 제가 했기 때문에 1 저자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제자들이 거의 1 저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이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연구의 초반부는 지도의 차원에서 그 기획이나 모든 진행을 제가 주도했기 때문에 제자한테 1 저자를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셨듯이 1 저자든 교신저자든 어떤 혜택에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공정의 차원에서 그렇게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국민들이 오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 부분 잘 보시고 잘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후보자님, 교육부장관후보자에 추천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무래도 교육계에 36년간 있었고 거점국립대 총장으로서 일도 했었고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도 했었고 이런 경력과 그다음에 제가 지방에 있다는 점이 특히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정책기조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방대에서 느꼈던 또 지방대에서 열망했던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용태 위원 바꿔 말씀드리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것들을 후보자께서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을 거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 부분은 꽤 오래전부터……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서서 지명되셨다고 봐도 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일부분은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역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만큼의 연구역량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서울대만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만큼, 꼭 서울대라는 뜻은 아닙니다.

○김용태 위원 그 방향성이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방향성은 맞습니다.

○김용태 위원 지역거점국립대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러한 것들 지난 정권에서는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여러 사업들이 있었지요.

○김용태 위원 있었는데 그걸 더 발전시키자는 취지인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거라기보다는 거점국립대에 좀 더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연구역량이 체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세우는 그러한 방향성이 지난 정권에서는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똑같지는 않았습시다.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없었다는 말씀인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비슷한 사업은 있었지만 이렇게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도 있었는데 실적은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면 방향성은 지난 정부에도 있었다라는 말씀인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일부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체계적이지 않았다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러니까 그 지원 액수가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6400만 원입니다. 거점국립대는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 사업들을 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지원을 받지만 그걸로 어떤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용태 위원 여하튼 그런 좋은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후보자를 이번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하셨을 텐데 지금 교수들이나 교육단체들 그리고 일부지만 여당 내에서도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고 이유를,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듣기에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말씀도 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단순히 그것 때문에 지명 철회하라고 하는 걸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리고 오해이실 텐데요. 사립대학들 혹은 국공립 대학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제가 설명드려서 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이재명 정부에서 했던 공약을 후보자께서 제일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 중의 하나가 가장 핵심 공약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 제일 잘하실 것 같은 게 아니면 다른 분한테 추천하고 사퇴하시는 것 어떨까요? 가장 제일 잘 못하실 분은 아니라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일 못한다라는 말씀은 그건 제가 혼자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제일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계획했다라는 말이 아닌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누가 추천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용태 위원 국민들께서 아마 관심 있어 하시고 국민 눈높이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많은 분이 추천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용태 위원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최근에 대통령하고 보수 논객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직접 추천하신 것 같지는 않고 ‘추천을 받아서’라는 말씀

을 하셨던 것 같은데 누가 추천하셨다고, 가장 영향력 있게 추천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볼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국민추천제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기사를 보고 저도 알았는데요. 총학생회 했던 학생들이 ‘옆에서 본 총장님은 자기네들이 인격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존경할 만한 분이였다. 반드시 교육부 장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했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지명받으실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용태 위원 지명받은 전화는 공개하시기 어렵다는 말씀인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용태 위원 지금 학계에서 사퇴 1순위로 언급하고 있는데 계속 장관에 부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논문에 관한 내용은 저는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6년간 학자로서 살아온 동안에 그렇게 비판받을 일을 하면서 학자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김용태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어제 오늘 그제 사퇴·낙마 일이 순위로 다투고 있는 분들이, 여가부 장관의 강선우 지명자라든지 아니면 후보자님 두 분의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오늘 소상히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어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교육부장관 지명자로서 본인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용태 위원 스스로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 방문연구원 하실 때요 비자가 J-1이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김용태 위원 제가 비자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자녀분들이 그때 같이 미국으로 가신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때 당시 자녀분들 비자는 뭐였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동반자 비자였습니다.

○김용태 위원 J-2 비자였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 한국으로 복귀하고 난 뒤에 자녀분들은 계속 미국에서 수학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자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닙니다. 돌아왔습니다, 같이.

○김용태 위원 다시 그때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녀분들이 미국 갔을 때 수학했을 때 비자에 대한 종류를 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동반자 비자니까 J-2가 아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김용태 위원 돌아와서 다시 가셨을 때 자녀분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갔을 때는 학생 비자로 왔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 비자에 대한 종류와 사증 종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참고로 오전 청문회는 고민정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까지 질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 오랜만에 합의했습니다.

○정성국 위원 조금만 더 늘리지요.

○위원장 김영호 좀 더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야 간사님이 강력하게 서지영 위원님까지 하고 잘라 달라고.....

○정성국 위원 오전에 11번까지 좀 하게 해 주세요.

○문정복 위원 백승아 위원님 하고 싶으시대요.

○위원장 김영호 그래요?

○문정복 위원 백승아 위원님까지.

○정성국 위원 왜 백승아 위원까지.....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하여튼 서지영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저희 교육위원회가 훈훈합니다. 후보자님 긴장 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역대 어떤 정부든 지방에 있는 학교들을 좀 더 육성하려는 방향성은 진보·보수 정권 할 것 없이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와 지금의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비교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까 후보자께서 방향성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의대 증원을 하는 문제, 이거 진보·보수 모두가 동의한 거지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지요. AIDT, 새로운 혁신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모두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지요.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또 AIDT 문제라든지 방향성은 옳았지만 어떤 절차적 합법성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목표는 있지만 같은 목표라도 어떻게 추진하느냐, 어떻게 촘촘히, 어떻게 열과 성을 가지고, 또 상대방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엄청 제일 중요한 덕목 아닌가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시려면 현장과의 아주 많은 소통들이 필요할 텐데 후보자께서 처음에 장관후보로 지명이 되셨을 때는 저도 기사·보도자료로 봤는데요.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했다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은 분들의 반대 여론이 또 들끓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소통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럴 자신 있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사실은 언론에 처음에 일부, 정말 극소수의 분들의 반대 성명, 반대 기고 이런 것으로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된 뒤에 정말 많은 분들의 지지 성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소통하지 않은 그런 총장이었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인정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민정 위원** 하지만 후보자님, 인정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불통의 정부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들의 가치와 방향성은 정해져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설득하고 끌고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슴도치처럼 아파도 끌어안으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지금까지 비난하고 비판했던 많은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왜 나를 그렇게 공격했느냐고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 미처 보지 못했던 나의 잘못들을 인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니 오히려 그분들의 말씀에 더 많이 귀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앞서 저는 장관후보자님 보면서 교육에 대한 철학보다는 성장 위주의 말씀들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왔는데 아까 박성준 위원님하고의 질의응답 과정 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잘 살려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라는 타이틀을 다는 이유가 그 대목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는 성장을 위주로 하는 경제 쪽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회부총리의 영역에 있는 수장의 역할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교육부장관의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그런 답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 하나 좀 보여 드리겠는데, 입시학원에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찢거나 찢기거나,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 특히나 한 학생이 투신한 입시학원이었습니다. 이게 뭐 오래전 일도 아니고 25년에 있었던, 그것도 한 달 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의 한 예고 여학생 3명의 집단 투신이 있었고 또 영등포의 한 학원에서 여고생 투신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살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 그 오명에서 벗어날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제가 13년도하고 23년도 통계치를 비교해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숫자는 28.5에서 27.3으로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10대만 증가했습니다. 그리

고 20대도 증가했습니다. 30대부터 쭉 80대까지는 다 줄어들었거든요. 10대는 보면 10년 전 대비해서 4.9에서 7.9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소를 했고.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후보자님께 드려 보고 싶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너무 아이들이 여유가 없고 어려서부터 어떤 강박 관념 속에서 경쟁 위주의 사회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책을 갖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래서 입시 경쟁을 좀 완화시키고 이런 것들의 저변에 공교육 강화라든가 그리고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단지 지역 9개 대학만 성장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을 고루고루 잘 살게 하는 성장동력을 거기서 만듦으로써 지역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수도권으로 와서 서열 경쟁을 하는 그런 풍토를 기본적으로 없애고자 하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벗어나게 하고 싶으신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이것은 교육부만의 숙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교육부뿐 아니라 기재부, 산자부 할 것 없이 모든 부처가 둘러붙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어찌 보면 장관님이 얼마큼의 정치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보하시느냐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 아주 질의 내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논문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하셨는데요. 말씀 중에 ‘학자의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임해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표현대로라면 최근에 범학계 검증단은 이공계의 현실도 모르고 충남대의 연구윤리 상황도 모르고 사실상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범학계 검증단은 굉장히 무지한 검증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범학계 검증단이, 그러한 검증 논리와 기준이 굉장히 미비한 거라고 지금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지영 위원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범학계 검증단에서 여기에 대한 반론을 꼭 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학계 검증단에서 지금까지 했던 주요한 검증들조차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범학계 검증단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검증 내용을 하셨는데 인상적인 부분을, 워딩을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와 연구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해당 후보자가 장관직에 임명되면 우리나라 논문 표절 기준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1 저자로 등재된 사실은 후보자와 동급의 학위논문을 반복 작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반면 제자는 연구자로서 자격이 없는 엉터리 학위 소지자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종 기법의 표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학계 논문 검증단의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후보자께서 공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모두 말씀 하셨습니다. 공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후보자가 진단하시는 문제점을 짧게 한 30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일단 교육격차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사교육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격차와 사교육비 문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서는 출근길 인터뷰에서도 그러한 본인의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공교육을 강화해 신뢰도를 높여서 사교육을 완화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서지영 위원 과거에도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교육 세습이라든가 부의 세습이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지요? 아까 교육격차가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요. 저는 지금 현재도……

○서지영 위원 제가 물은 질문이 아닌데요.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물은 것 아닙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서지영 위원 본인의 선택을 물은 게 아닌데 왜 본인이 엄마의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찢리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초중고, 우리 고등교육을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도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후보자님, 됐습니다.

후보자님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셨건 본인 돈으로 본인 자산으로 하신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의 수장이 될 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본인의 자녀들이 다녔던 미국의 명문 사립기숙학교 마테이라 스쿨의 학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1억 300만 원, 2006년 기준으로 본인 자녀가 다녔을 때 1인당 60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명의 자녀가 3년 동안 다닌 고등학교 학비가 6억 2000만 원입니다. 2025년 2인 가족 기준 대한민국 중위소득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실까요?

후보자 자신이야말로 한국의 교육 문제를 진단하셨던 교육격차, 부의 세습에서 교육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루신 후보자입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본인의 삶이지요. 당시의 2006년 기준으로 해서 국립대 교수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후보자 연봉은 1억 3000이었고 당시의 기준으로 할 때 1년 두 자녀의 유학 소요 비용은 1억 2000이었습니다. 본인은 무슨 돈으로 살았는지 본인 부부는 무슨 돈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억 3000이 소득인데 1억 2000 유학비 보내고 나서 무슨 돈으로 살았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지 않아도……

○서지영 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자녀가, 고등학교 3년 학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2025년 기준으로 6억 2000만 원입니다. 교육부 답변을 보니까 두 딸 학사과정까지의 학비 지원했고 생활비 지원했고 생활비는 석사과정까지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추정컨대 10억에서 15억 정도의 고등학교·대학교 학비를 지원하셨을 겁니다. 이 교육격차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서민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후보자님 외에 그 어느 누가 이러한 교육을 나의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는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았습시다. 후보자야말로 사교육으로, 최고의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자녀의 선택이라고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모 자격 없는 거지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유학은 보내고 양육은 하지 않으신 거지요, 기숙사에 보냈으니까. 뭐 그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세습이 부의 세습을 이룬다고 그것이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 그것을 타개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후보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는 부의 세습도 이루었습니다. 후보자는 2023년 이자수입이 2800만 원, 2024년 이자수입만, 현금 보유액의 이자수입만 5500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1% 수준의 이자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후보자의 지위에서 사퇴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학비의 문제에 대해서 서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소명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희망해서 유학을 보내게 됐고 둘 다 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법이 없이 기숙학교를 찾게 됐고 기숙학교의 학비가, 학비를 포함해서 생활비 모두를 포함해서 그런 액수였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한 2분의 1 가격으로 저는 2006년도에 보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고……

○서지영 위원 그러면 소명자료 내십시오, 정확한 자료. 왜 거부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저희 부부 둘 다 다, 남편은 사립대학 교수였습니다. 36년간, 35년간 교수 생활 성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축이고요 주식도 산 적이 없고 집도 몇 채씩 사서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성실하게 교수 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저축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온 게 다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가 후보님 지명되고 3일 후에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제가 후보님한테 그랬잖아요. 교육부장관후보로서 어떤 부분이 국민께 가장 송구스럽냐라고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두 딸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가 진선미 위원님께서 어찌 됐든 이 문제는 교육부장관으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사과를 요청했고 아까 진심을 담은 사과를 했는데 정말 교육부장관으로서 아이들 조기유학 한 것은 비판을 모면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우리 초중고의 아이들, 현장을 보면 정말 눈물겹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현장을 가서 학부모 교사 아이들, 이 처절한 교육환경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한 곳에서 공부했지만 지금 한국에 남아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부장관보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교사의 편에 서서 교육정책을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반성을 통해서 대안도 잘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 질의는……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의사진행 몇 분 받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감사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아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한 것도 연관되고요 제가 준비한 고발장과도 연관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비가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반이라고 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반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후보자 본인이 유학을 할 때 유학비용 지금 내역, 기숙사비, 생활비 등 자료제출입니다.

이것은 미성년자인 학생,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까지 안 왔는데 저희 진짜 고발합니다. 장관이 되시든 안 되든 고발당하는 신분이 되시겠습니까, 이것 자료제출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것도 못 내면서. 정말 뭔가 숨길 게 있어서 이런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백승아 위원 현안질의 시간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 자료제출을 좀 강력히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면, 후보자께서 자녀의 유학비용 지급 내역을 공개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죽 송금하셨던 내역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통장 내역에는 각기 사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이니 그것들은 다 불러 처리하시고 자녀에게, 특히 큰딸 아이는 내신 자료를 보면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를 충당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녀, 자녀의 유학비로 송금한 내역들만, 다른 것들은 다 불러 처리하시고 그렇게 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서지영 위원님께서 자녀의 조기유학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런 얘기 나올까 봐 귀당의 인사들 조기유학 보낸……

○조정훈 위원 그것은 질의할 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아니잖아요.

○문정복 위원 조기유학 보낸 자료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서지영 위원 교육부장관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문정복 위원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백승아 위원 발언권 없이 말씀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도 여러 청문회를 해 보고 또 기타 청문회를 보면서 사실은 스스로 반성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정치권이나 공직사회에서 조기유학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절제할 수 있도록 공직자 사회의 분위기 형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전 장관후보와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역시 당시에 야당 위원들이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의 해외송금 내역, 아이들의 해외송금 이런 것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도 굉장히 공분해서 왜 자료제출 못 하나, 떳떳하면 자료제출하라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요청은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에게. 조정훈 간사님이 요청한 부분은 저

는 꼭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그런 요청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타당한 자료제출 요청인 지도 우리도 한번 자성하면서, 그런 희망을 갖고 자료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출하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진숙 후보가 이런 것 정말 자료제출, 역대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자녀들 등록금 송금 문제.

다만 우리가 청문회에서 보면 자녀 송금 문제가 주로 부정부패에서 마련된 그 돈을 불법으로 이 외환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그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자녀 송금 문제를 자료제출을 하신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면서 하나의 전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직자 검증할 때도 그런 문제가 조금 더 투명해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잘 검토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셨지요?

○**조정훈 위원** 안 해 주시면 저희는 진짜 고발합니다. 저희 믿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그러면 오전 질의 정말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타 위원회에 비해서 매우 진지하고 또 정책질의도 있었기에 아마 우리 청문회를 보시는 국민들도 우리 차분한 교육위원회를 높게 평가해 주실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왔는데요. 혹시 확인이, 저희 쪽으로는 안 온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을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은 ‘본인이 직접 갑질을 한 것이냐, 관리자로서 갑질 처리에 대한 대응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지 말자’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인 사안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설사 관리자로서의 부분이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갑질 부분을 제대로 처리 않았다면 관리자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이지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이진숙 후보자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진숙 후보자께서 시간 끌어 가지고 청문회만 지나면 된다 생각하시는 게 이게 더 커질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언론 보도에서 갑질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께서도 자료를 내시고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시간 끌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내시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사안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정성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지금 정성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이 아마 고용노동부 관련된 갑질 논란인 것 같습니다. 다만 후보자님의 입장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직은 후보자님이 그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안 하셨는데 자료로 입증을 하실 수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서 의혹을 해소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여서 노동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그 요청하신 결과를 위원님들께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유학에 대한 송금 그 부분도 지금 요청을 해서 작업을 하는 도중이어서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입증을 하실지 입증이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또 그에 대한 비판 또 진정한 사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청문회를 임하시는 후보님의 바른 자세 같아서 이렇게 협조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성국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자료를 준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기다려 주시고요.

○조정훈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오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첫 번째 순서가 백승아 위원님이세요. 준비되셨나요?

○백승아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후보자님, 연구윤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서 당연히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도 연구윤리 지침 해설서, 학계 전문가 의견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공계 연구는 대부분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일부분에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연구가 같이 이루어진다. 또 이때 저자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기여도를 고려해서 결정한다’라고 앞서 오전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는 가장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1 저자가 된다, 그게 연구윤리를 올바르게 준수하는 길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하나 더 보시면요 지금 KAIST 교수의 언론 기고문인데요.

이공계 연구환경에 대비해서 최근 후보자님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제1 저자 또 교신저자로 들지는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고 이것은 전 세계 이공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공계의 어느 누구도 지도교수를 1 저자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개 본인이 가져온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보고를 해야 될 때는 주로 1 저자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게 또 앞서서도 오전에 말씀드렸습시다만 지도교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연구기획 했다든지 모든 방법론을 설정했을 때 제자가 거기에 참여해서 논문을 같이 썼을 때는 제자가 당연히 2 저자가 되는 게 맞고 지도교수가 1 저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박사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점점 더 자기의 기여도를 높이면 그때부터는 교수도 제자한테 1 저자를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지도교수가 1 저자가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후보자께서 지난 30년간 지도한 제자가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제가 이번에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세어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석사가 81명, 박사가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 빼고 33명입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거의 100여 명이 훨씬 넘는데요. 그동안 제자가 쓴 논문 중에서 후보자가 제1 저자가, 아까 국힘 위원님께서 ‘모두 다 본인을 1 저자로 했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약 29% 정도가 1 저자고요, 나머지는 공동저자나 교신저자입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 1 저자인 게 29%, 29%가 내가 1 저자이고 나머지 71%는 교신저자나 공동저자, 그러니까 제자가 1 저자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제자가 1 저자가 됐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공동저술한 모든 논문을 본인을 후보자님을 1 저자로 했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전혀 아닙니다.

○백승아 위원 그래서 직접 지도하신 제자 연구성장 경로를 한번 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지금 사례 2·3은 제자분이 첫 번째, 처음부터 1 저자예요. 그런데 사례 1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진숙 후보님이 1 저자였다가 나중에 제자분이 1 저자로 바뀌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사례가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서는 본인 주도권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연구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지 않고 연

구실에 들어와서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본인이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하면 교수가 허락을 하는 경우에 공동연구로는 하지만 그때는 학생이 주도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1 저자가 학생입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지도를 받으면서 초반보다 후반에 제자분의 기여도가 더 커졌고 실력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1 저자로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 맞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형태입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례를 찾아보기 전에는 제자와 지도교수 간에 서로 협의해서 기여도를 결정하는 게 당연한가 좀 의문이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가로채기한 것은 아니다 이런 호소문을 발표하시기도 했었는데 이런 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추측이 되고요.

아까 오전 질의에 나왔듯이 전교조도 그렇고 많은 현장단체들에서도 후보자님에 대한 우려가 크고 반대성명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실된 마음으로, 또 유·초중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장과 소통을 하시는 일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유·초등 쪽의 경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초반부터 이런 우려가 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당연한데 취임을 하게 된다면 현장부터 다니면서 소통에 힘을 쓰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금 소통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원단체, 선생님들이 가장 급한 문제로 생각하시는 게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입니다. 정치 교사는 정치인의 SNS에 댓글 쓰거나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풍자 노래를 부른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자격정지형도 선고를 받았는데요. 근무시간도 아니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해당 집회는 특정 정당이 집회를 주최하지도 않았습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격정지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는 보면 모든 OECD 국가들은 직무 외 공무원 정치활동을 다 보장하고 있거든요. 영국, 근무 외에는 보장하고 있고요. 스위스도 표현 자유의 일환으로 정치적 비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 PPT 자료 나오지요. 독일 같은 경우도 정치 표현·활동 자유 보장하면서 중립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라라고 나온 계기가 3·15 부정선거인데요. 이 부정선거를 수행한 게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처음에 나온 게 정치적 중립인데 지금은 오히려 교사들이 아무 목소리 내지 못하게 몰아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적 기본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아 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든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에서도 정치적 자유 보장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22대 국회 들어서 법안 발의한 게 있습니다, 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학생에게 교사 개인적 의견을 주입할까 봐 그러시는데 금지하는,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만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인데요. 장관이 되신다면 이 교사 정치기본권,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정치기본권 확대하는 데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어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대략 학교 내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그러는 것은 제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어떤 사회적 공감대 또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이진숙 후보자님, 오늘 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도 후보자님의 인생 살아온 그 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이라는 엄중한 자리다 인식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지금까지 제기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논문 관련 윤리 문제, 그렇지요? 아까도 사과하셨습니다. 자녀 불법 조기유학 문제, 학부모의 감정선을 넘어섰다는 부분들.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이 없다, 교육현장의 반대. 그리고 여기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총장 재직 시절에 구성원의 반발 같은 게 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오해였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 불법 조기유학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제가 사범계열 건축공학교육과 출신으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직 이수를 했고 교생실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십 년간 중등교원들에 대한 연수를 늘 담당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선생님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늘 가졌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성국 위원**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시간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본인의 가족, 따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부모로서 일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육자적 관점,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장관으로서 본인의 가족부터 특권을 누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뼈아픈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강력히 희망하는 것에 부모가 이기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총장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우수 학생들인데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CNU Honor Scholarship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총장을 했습니다.

저도 국립대학 출신으로서, 국비를 가지고 유학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제자들 혹은 후배들이 공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CNU Honor Scholarship을 만들기 위해서 총장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정성국 위원** 지금 시간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전에 김민석 총리후보자께서도 국가채무비율 48.4%를 기억 못 하시는 바람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수치를 놓친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그것은 한두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지금 이것 모르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는요 모든 교육과정을 짜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박성민 실장님, 맞지요? 190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190일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 휴업하고 하는 것조차도 교장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기억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이런 수치들은 놓치지 마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정성국 위원**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전국의 1만여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지요.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이 NEIS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NEIS입니다. 제가 잠깐……

○**정성국 위원** 본인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 전문은 아니지만 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한 용어들은 다 기억합니다. 한 나라의 교육부장관이 되실 분이 법정 수업일수라든지 NEIS 정도를 모르신다는 것은, 앞으로 공부 많이 하세요.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 정성국 위원 정책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유보통합이 뭔지 아시지요?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정성국 위원 유보통합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 정성국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단일화는 일단 됐습니다.
- 정성국 위원 예?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단일화 시도는 됐습니다.
- 정성국 위원 단일화 시도라는 게 뭘 뜻입니까?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러니까 유보통합의 기본적인 개념은 나왔습니다.
- 정성국 위원 아니요.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되고 있는데요?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 정성국 위원 말 바꾸지 마시고. 제가 유·초중등교육 전문가입니다. 제가 교총 회장 출신이예요.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국 위원 이것 이렇게 지금 너무 모르시면 안 됩니다.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보육하고 유아교육의……
- 정성국 위원 그러면 유보통합을 왜 해야 됩니까?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무래도 아이들이 모두 골고루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런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국 위원 지금 이거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 정성국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성국 위원 교육청요?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했던……
- 정성국 위원 교육부가 지금……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교육부가 하지만 이런 것들을……
- 정성국 위원 아니, 교육부가 합니다.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교육부가 하는데 직접적인 실행기관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 정성국 위원 교육부가 실행합니다. 유보통합 정책을 교육청이 하는 게 아니예요. 교육부가 근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고……
-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 정성국 위원 지금 말 흐리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 하십시오.
교권 보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정성국 위원 2년 전에 선생님들이 한 10주 가까이 주말에 나와서 그때 막 집회하고 했던 기억나시지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정성국 위원 그때 그 사건을 어떤 사건이라 하는지는 다 아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어떤……

○정성국 위원 그때 10주 가까이 선생님들이 광화문에 나와 갖고 막 집회하고 하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서이초……

○정성국 위원 서이초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정성국 위원 왜 일어났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학부모 민원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국민이 다 같이 슬퍼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정성국 위원 아까 이 말은 하셨어요.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재명 정부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교권 보호를 하시겠다 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 부분만큼은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만약에 정말 장관이 된다면 제일 순위로 추진하시고 교원단체와 협력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국 위원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을호 위원 정을호입니다.

후보자님, 방금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보충 답변하실 것 있으면 지금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까 언뜻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 게 제가 1저자면 제자들은 그러면 학위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저희 연구생태계가 대개 학술논문을 게재한 다음에 또 발전시켜서 석박사 논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들은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 대부분 대학이 그렇습니다만 학위를 위한 의무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교수랑 게재한 공동논문들, 그게 제1 저자든 교신저자든 그거는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학위논문을 낼 수 있는 성립 조건입니다. 학위논문을 취소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게……

○정을호 위원 그렇지요? 학위논문 취소 안 된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할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학위를 받은 건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의사진행발언 때 이야기한 건데 노동부에, 오늘 언론에 나왔던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행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싶을 거 있을 텐데, 고용노동부에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및 접수 및 처분 내역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게 전혀 기억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관장으로 직원들 사이에 이런 분쟁들이 신청됐다 취소되기도 하고 그런 사건의 하나라고 저는……

○정을호 위원 본인, 후보자가 아니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을호 위원 기관장으로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정을호 위원 나왔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도 다 해결 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게 문제가 됐던 기억이 전혀 없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게 초기 단계에서 신고가 됐다가 취소된 사건으로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정을호 위원 이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혹시라도 국민들께서 오해 있을까 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또 규정될까 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정부의, 아까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관련 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재명 정부의 시그니처 사업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책을 어떤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연구 여건과 교육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육격차가 있는 거지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대가 1인당 학생 교육비가 6600인데 지방대의 평균이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재정 지원을 받아서 교육과 연구에 투자를 해야 우수한 연구환경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지방 성장을, 지방 혁신을 이끌 만한 동력을 지방대학들이 갖는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정을호 위원 그러면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부분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닙니다.

○정을호 위원 확대 그것만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런 아니고요.

○정을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것도 이야기되는 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비가 OECD 평균의 66%에 불과합니다.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에는, 많을수록 좋지만 비교하자면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66%입니다. 어떤 국가성장을 견인해야 될 고등교육 분야가 이와 같이 재정난에 있고 경쟁력 자체가 성립이 안 됩

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정을호 위원 후보자님, 그러면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지역 내 다른 대학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해소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기본적인 개념이 지역 동반성장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장을 해야 주변에 있는 학교를 이끌면서 공유와 협력으로 같이 상향평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을호 위원 말씀은 좋은데 그러면 지역 정주 전략이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래서 사실은 이번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지 재정 투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대학의 혁신 의지입니다. 대학이 뼈를 깎는 교육과정 혁신이라든지 우수 교수를 유치하고 또 연구인력을 엄청나게 제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주여건을 같이 개선한다든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어 보니까 교육계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많잖아요. 이분들과 고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정권의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방향은 옳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아까 말씀 주셨듯이 과정에서 불통이라는 부분이 많이 형성돼서 지금 힘든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AIDT라든가 의대증원 사례를 보면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 것 같은데, 앞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수행할 때 이런 점을 꼭 참고해서 가지고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니까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이 평화의 소녀상 설치할 때 불통이라든가 또 갈등이라든가 혹시 후보자의 역사적인 생각이 다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소녀상에 대한 그런 인식은 사실이 아닙니다. 총장 임기 끝날 때까지 소녀상을 철거한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존치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철거라는 말을 제 입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숙의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게 의사결정입니다. 그것을 기다린 거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무시한 채 설치가 됐기 때문에.

대학에는 공무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책임 맡은.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책임 맡은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왜 허락 안 맡고 냈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해야지 본인들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안 받지요. 그래서 그 절차를 한 것뿐입니다.

○정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소녀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하여튼 이진숙 후보님이 지명된 이유는 국무위원들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서 여성에 대한, 여성 국무위원에 대한 추천 또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아마 지역……

충남 출신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위원장 김영호 지역에 대한 배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평생 교육전문가라는 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통합의 길을 걷자고 하시잖아요. 국민 통합의 길인데 후보님은 약간 이념적으로는 비이념적인 평가를 좀 받으셔서, 만약에 후보님이 민주 이렇게 진보진영으로 회자됐던 후보님이었으면 제가 소녀상 문제에 대한 질타를 하겠는데 하여튼 이념적으로는 특별히 두드러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좀 비이념적인 실사구시적인 학계의 후보님을 지목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념적인 문제는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오늘은 계속, 아침에 논문부터 이공계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 공대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특히 전공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러 주면 가서 봉사해야 된다는 정신이 있습니다.

제가 건축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대학교 교수고 또 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그런 불림을 받았습니다, 위원회에요. 그럴 때마다 제 전공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언제든지 가서 봉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이념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받게 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비이념적이시지만 어찌 됐든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이재명 정부의 교육철학은 좀 잘 반영하셔서 교육행정을 잘 펼쳐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위원장님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습니다만 총장 시절에 생각하니 정말 초·중·등 교육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대학에 우수한 인재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초·중·등서부터 교육체계와 교육격차가 없어야 대학에도 우수한 인재가 오는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제가 집필한 칼럼이나 이런 데에 교육에 대한 칼럼을 꽤 오래 썼는데 그거 저도 이번에 검색해 보고 다른, 저한테 안티인 기자가 그것을 찾아내서 썼더라고요. 그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요.

제가 공교육, 교육격차 그다음에 AI 시대의 융합인재 양성 이런 것 그리고 교육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이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시는 교육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하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삼았던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교육 분야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공교육의 중요함은 다 함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맞지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고등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논문 표절 이슈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 쟁점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다만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1개의 단체가 함께 모인 것이고요. 그분들은 학자의 입장

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분들이세요.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전에 김건희 논문 검증도 했던 분들인데 만약에 이번에 그 검증의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김건희 논문 검증에 대한 것도 불신으로 가기 쉽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진정한 교육개혁을 바라는 주권자 1000인’, 실제로는 단 이틀 만에 708명이 서명을 했고요. 한 30여 명이 나오셔서 국회 주변에 모여 가지고, 교육을 걱정하는 교육계 인사들인 거지요.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국민의 교육 요구에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결단하라’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소위 빛의 혁명 그리고 사람 중심 교육 이런 걸 희망하는, 희망을 품고 막 출범한 정부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첫 교육부장관후보자에 대해 사퇴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유감인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단지 한 사람의 자질을 심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교육의 가치, 철학 그리고 우리 교육의 미래, 내일에 대해서 굉장히 막중하고 아주 진중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의 답변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와닿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교육계에 대해서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교육단체가 이런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뭐냐,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애들이 11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사교육비는 매년 최고치를 갱신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자살도 연이어서 2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교사들도 자살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는데 서이초 사건 이후에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소위 말하면 교육의 위기 그 자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교육개혁, 교육혁명, 교육혁신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후보자의 임무가 막중한 것인데, 저는 교육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자녀 유학 문제 다시 묻겠습니다.

자녀 2명을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유학을 보내셨는데요. 물론 독립된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개인적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을 주도하거나 이끌었던 분이 교육부장관후보자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후보 자녀들이 다녔던 그 학교는 최근 기준으로 연 학비가 1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미국에서도 있는 집 애들, 최상류층 애들이 다녔던 사립 기숙학교예요.

그래서 후보자가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회피한 것 아니냐라고 박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에서 일반 학생들이, 일반 학부모들이 경험했던 고충이라든지 시름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가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서 공교육의 강화라든지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한 것은 굉장히 맞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검증 동의를 하실 때 자녀 유학 문제와 자녀 미인정 유학, 차녀에 대한 것은 미인정 유학인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당국에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강경숙 위원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까? 간단하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불법인 것은 이번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하셨습니까, 검증하는 과정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이들 학력을 쓰게는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상 그 정권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당연히 살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도 되는 건가라는 것에 제가 되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제 향후에 초중등 교육정책을 하시게 되면 후보자의 이 문제가 계속해서 국민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후보자,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으니까 되신 이후에는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그런데 후보자님, 이렇게 후보자의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일말의 기대를 걸 수가 있는데요. 후보자하고 교육부가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니까요 인사청문회에서 꼬투리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조심조심했다라고 하는 흔적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무엇 이냐면 초중등 교육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명한 태도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토대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입법적 결단이 국회에서 아직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대통령님께서도 디지털 교육자료 말씀을 하셨고 국회에서도 교육자료로서의 법적 지위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맞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디지털교과서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적절한 것이지요, 교육자료·교과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많이 고민하신 이런 결정에 대해서……

○강경숙 위원 이것은요 후보자님,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던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요. 다시 올해 7월 10일 날 이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재차 통과됐기 때문에 교육위의 입법적 결단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당연히 그러면 따릅니다. 당연히 따라서 해야 된다

고……

○강경숙 위원 이것을 모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요, 압니다. 당연히 알지요.

○강경숙 위원 지금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디지털특별교부금 폐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해당 법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 특교 폐지 법안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디지털 특별교부금 폐지에 대한 법안도 냈는데요 이것이 법안소위를 통과해서 현재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거거든요.

그 법안 취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답변을 주신 게 있습니다. AIDT 정책에 대한 입장이 대통령 공약과 좀 다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 공약과도 일치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문정복 위원 제가 후보자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을 게 뭘까. 그러면 30년 대학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가장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래서 제가 언론에 나온 것들을 좀 팩트 체크는 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후보자께서는 아니라고 하고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7월 4일 날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자 권 모 씨 석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사이 유사도 43%,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요약해 제1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표절 의혹도 함께 했는데, 두 가지 대상 논문을 봤어요. 두 가지 대상 논문을 봤는데 앞서서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기여도 또는 저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1 저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도교수의 수행 연구과제에 속했으면 이것이 1 저자로 담당교수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두 가지 프로젝트가 다 후보자께서 수주하신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닙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두 번째 것은 국가 연구재단 과제였던 게 맞고요,

제가 책임자였던. 첫 번째 것은 연구실에서 공동연구로 공동주택 조사를, 왜냐하면 저희 연구실에서 그 당시 야간경관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조사를 했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1 저자로 표시한 것은 기여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학생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라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협의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래서 1 저자로 한 게 너무 많고 제자들의 논문을 그렇게 가져가서 했다고 얘기를 해서 정말 다 그런가 싶어서 제가 또 확인을 해 봤어요.

아까 백승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례 2를 보시면 이진숙 후보자가 1 저자, 홍 모 씨가 2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들어가는, 이 논문을 보면 홍 모 씨가 1 저자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학술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이 홍 모 씨가 1 저자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사례 2를 보시면 제자 류 모 씨가 둘 다 1 저자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사례 3을 보면 진 모 씨가 이진숙 후보자보다 1 저자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1 저자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세 번째 사례가 학생이 중국 학생인데요 본인 중국의 거리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1 저자여야지요. 그런 주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중국 학생이, 물론 한국에서 저희 연구실이 엄청나게 같이 연구를 했지만 그래도 주도권이 중국 학생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1 저자를 당연히 중국 학생한테 다 준 겁니다.

○**문정복 위원**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요약해서 1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유의 학술논문 발표는 아닌 거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문정복 위원** 다음 넘겨 주시면, 또 하나 중앙일보의 7월 10일 자 기사인데요.

‘제자 논문 베끼면서 제자 이름 뺐다. 이진숙 가로채기’ ‘충남대 교수 때 제자 셋과 쓴 논문, 동일 논문 내놓으면서 일부 제자를 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상 연구물을 보면 99년도 4월에 진 모 씨, 신 모 씨, 이 모 씨, 이진숙 이렇게 들어갔다가 대상 연구물 99년도에는 이진숙, 진 모 씨 그다음에 비교논문에서 보면 99년도에는 실제로 진 모 씨가 1 저자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공계는 잘 몰라서 프로시딩이라는 제도가 있는가 본데 이 제도와 이름을 넣었다 뺐다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봐 주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프로시딩은 완전한 논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초록과 같은 거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초록, 그러니까 실험은 시작을 했는데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학술논문으로 가기에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논문 그런 것을 프로시딩이라고 해서 학술 발표 대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주로 그럴 때는, 굉장히 가벼운 논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험에 참석했던 학생들도, 대학원 학생들이지요. 많이 실어 줌으로써 그 학생들도 학회에 오게 하고 또 그렇게 와서 참여하게 하고 그런 가 치입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99년도 4월에 신 모 씨 이 모 씨가 들어갔다가 99년도 7월에

진 모 씨가 들어가고, 99년도 12월에 석사 논문에 진 모 씨와 이진숙 후보자만 들어간 것은 실제로 이 학생들에게 학술 발표 대회의 기회를 주기 위한 거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문정복 위원 실제로 진 모 씨는 이걸 가지고 석사논문을 쓴 거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석사논문은 아니……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문정복 위원 석사논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 석사논문. 그러면 석사논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제자들을 넣었다 뺐다 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건 아닙니다.

○문정복 위원 이렇게 동일 논문을 내놓으면서 일부 제자들을 뺐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거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전혀, 프로시딩스하고 학술논문의 체계를 이해 못하는 그런 겁니다.

○문정복 위원 다음에 7월 11일 날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진숙, 제자 석사논문 요약해 정부 연구비까지 챙겼다’ 이렇게 하면서 15년도 9월 달에 발표한 학술논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 논문은 15년도 8월 달에 나오게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투고한……

벌써 끝났어요?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투고 날짜는 학술논문 1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자 석사논문보다 몇 개월 빠르게 발표한 논문입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투고는 3월 달에 했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지요.

○문정복 위원 제자의 논문은 보니까 8월 달에 된 거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8월 맞습니다. 먼저 한 거지요.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투고가 훨씬 더 빨랐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자 논문을 뺐은 것은 아니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서로 다릅니다. 논문의 내용도 실험이 꽤 다른 실험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예, 다음번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후보님이 제자가 한 100여 명 된다고 그러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교신저자, 1 저자’ 언론보도에서 의혹을 갖고 있는 이렇게 바

편 부분에 대한 제자들의 항의나 불만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것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호소문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지지한 것은 아는데 그 지지한 것과 달리 ‘내가 그런 것이 억울하다, 내 것을 가로챘다’ 이런 항의성의 입장을 낸 제자가 있느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저한테는 거의 올라시피 제자들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항의성 불만을 갖고 있는 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기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제 말씀은 1 저자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 불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장 김영호 교신저자로 바뀌었다는 언론보도 의혹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 그때 당시 합의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아니요. 그러니까 100여 명의 제자 중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저한테 그런 불만을 얘기한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언론에 공개된 것도 없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여러 가지 매체에서 그렇게 막 보도가 됐는데 왜 오늘에서야 이것을 이렇게 육성으로 해명이면 해명, 소명을 합니까?

저는 청문회 준비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많은 언론과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면 그때그때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해명을 했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했지만 제가 만나지 못한 이유가 다 있었다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가장 악역으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은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후보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조정훈 위원 아이들 조기유학 보낼 때 교육부장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조정훈 위원 못 하셨지요?

그러면 교육부장관의 꿈은 언제부터 꾸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꿈 적이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그냥 덜컥 온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늘 교육에 진심이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교육부장관 말입니다, 지금. 덜컥 온 거잖아요, 솔직히.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그 과정에서 후보님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교육부장관이라는 자리의 무게, 진짜 왕이 되고자 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했는데 저는 그 무게를 못 견디시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미국에 있는 학교 보내실 때 안식년 갔다 왔다가 다시 보냈다고 하셨지요? 안식년 가실 때 어느 주로 가셨습니까? 어느 대학에 가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코네티컷으로 갔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코네티컷이니까 딸 보낸 버지니아는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돌아와서 아이들을 유학 보낼 때 제일 좋은 최고의 교육환경 제공해 주느라고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보낸 것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자학교, 기숙학교를 찾았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저는 장관님이 환경부장관이나 국토부장관 후보였으면 한 번 던지고 말았을 얘기인데요.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맞벌이하고 있는, 저는 마포가 지역구인데요 제가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 있다고 하니까 저희 지역 학부모들이 진짜로 절절하게 항의하셨습니다. 진보 정부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진보 정부조차도 조기유학한 사람 장관시켜요. 그러면 공교육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탈출 못 하는 사람, 아까 두 아이들의 그 절절한 욕구를 못 이기셨다고 그랬지요? 99%의 학부모들은 못 들어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저 교수님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저 정치하기 전에 17년 동안 세계은행에 있었는데요, 워싱턴D.C.에. 교수들, 공무원들 와 가지고 1~2년 일하다가 아이 슬그머니 놓고 가고 대학 보내는 거 그런 사례 많이 보셨지요, 총장님도?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있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그걸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공무원이니까 교수 했으니까 당연하다. 아이들이 원해서 도저히 못 이겼다 이런 미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장관 하시겠다는 분이 공교육 탈출시켜 놓고, 총장 됐으니까 장학금 만들려고 총장 됐다고요?

저는 백번 양보해도 이 자리는 후보님이 받으셔서 안 되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는 후보님이 받아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시면 안 되는 기회였어요. 입어서 안 되는 옷이었다고요. 다른 기회를 기다리셨어야 돼요.

‘장관 제안한 것 감사한데 이런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특히 진보정부라고 도덕적 청렴성, 도덕성, 교육의 평등, 공교육 강조하는 이 진보정부에서는 제가 제1대 교육부장관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자세였다고요.

후보님, 왜 따님이 중학교까지 다니고 와서 미국 유학 가고 싶다고 그렇게 우겼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미국 교육의 뭐가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한마디로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뭐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국 교육의 뭐가 우리나라 교육보다 좋아서 가겠다고 했는지. 그리고 그걸 동의해 주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여러 가지로 그쪽 분위기가 본인들하고……

○조정훈 위원 입시경쟁 너무 치열하니까 불쌍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요? 아니면 자녀가 너무 똑똑해서 대한민국 교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천재라서 보낸 겁니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이 미국 교육보다 뭐가 떨어져서 그 선택을 하셨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고 앞에서……

○조정훈 위원 죄송하다고 하셨지요?

후보님, 그러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침에……

○조정훈 위원 제가 발언 중입니다.

책임을 지세요. 정치는요 그리고 장관 정도 되는 고위직은요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공교육 살리겠다, 공교육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는 살아온 궤적과 좀 결이 맞아야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께서 살아온 길, 가장 중요한 자식 교육, 딸 둘……

저도요 외국에서 오래 살고 외국에서 태어나서 열댓 살까지 다니던 딸이 제가 정치하니까 아빠가 유학 못 보내 줄 줄 알고 자퇴해서 검정고시 보고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어요. 제 마음이 쉬웠을까요? 전 그렇다고 칭찬해 달라는 말 주변에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공직자로 살아가는 데 제가 지불해야 될 저의 값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보정부라는 데서 이런 후보 해 놓고 장관 하겠다고요? 욕심 아니에요? 너무 욕심 아닙니까? 자식 교육 이렇게 잘 시켰으면 그냥 다른 것 하세요. 유학 보내고 싶은 부모 한둘이…… 정말 우리 애들 입시 스트레스 안 받게 살고 싶은 부모 한둘 아닌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부모들한테 상처를 주면서까지 진보정부라는 데서 제1대 교육부장관 하시겠다고요?

또 이거를 넘어갈 만한 압도적인 전문성? 저는 모르겠어요. 압도적인 감동? 이것도 없어요. 도대체 뭐예요? 왜 이런 후보를 지명해서 이렇게 많은 학부모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겁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답변할 시간을 드릴까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조정훈 위원 제 질문 중에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이 뭐가 달랐기 때문에 미국 교육을 선택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답변도 주시고 후보님도 입장을 잠시 정리해서 말씀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미국에서 교육을 하면서 여러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학부모로서 한국의 공교육 또 미국의 공교육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계기였고요.

저는 그런 것들 모두의 경험을 살려서 정말 대한민국 교육을 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공교육을 잘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발언 마치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진선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영호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진선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역시 예상대로 이런 기사가 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전국 교수 단체·학술 단체 열네 곳 연합체 범학계 국민검증단 그 결과도 발표하셨고 저희가 그걸 계속 거론을 했습니다만, 어느 분의 주장에 따라서 그러신 건지 오해가 있으신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치 우리 당이 그 검증단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파렴치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신 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단의 검증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고 다만 그것의 대상이 된 후보자가 어떤 입장인지 그 입장차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이것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마치 갈라치기 해서 검증단의 그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꼭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알기로도 무슨 이공계 또 건축학과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같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검증단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공격을 한다거나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그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꼭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제가 그 기사를 아직은 못 봤는데요. 오늘 청문회, 오전 청문회, 지금 오후 청문회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검증단에 대해서 여든 야든 저희가 이 검증 과정이나 결과를 부정하거나 조금이라도 공세를 했더라는 기억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서지영 위원님이 후보의 입장을 다시 검증단에서 재평가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아까 이공계 학자들도 그 검증단에 있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휴식을 취하면서 도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검증단의 그 검증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존중합니다.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아마 모든 위원님들 존중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의혹이 나왔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진숙 후보가 직접 국민을 향해서 육성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하나하나 지금 소명하고 있는 것이 청문회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아까 서지영 위원님 말씀처럼 또 추가적으로 검증해서 결과를 주시면 그것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토론 내지 논의를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 없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 저희 국민의힘 위원님들 국민검증단의 방법론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 적은 없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후보께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56%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후보는 국민검증단의 검증 과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것은 그럴 수 있지요. 당사자는 동의 안 할 수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진선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오전 주질의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진선미 위원님부터 시작하십시오.

○김대식 위원 시간 5분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이번 질의는 5분입니다.

○진선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다가 제 순서를 잠깐……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아직 카운트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찾으세요.

잠시 시간을 멈춰 주시고요.

○진선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 준비된 것 맞아요?

○진선미 위원 잘 모르겠는데 순서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영호 확실할 때 하세요. 위원님들 다 양해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시작할까요?

○진선미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후보님, 기사가 나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사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실제로 후보님이 학위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해 가지고 본인이 제1 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인해서 학위를 받은 그 제자들이

학위를 취소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아니면 정말 허망한 학위를 받은 거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우려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충남대의 규정에는 오히려 반드시 건축공학과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부에서 받아 봤는데 거기 안에 보면 학술지 게재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반드시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포함한 논문만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또 기존의 어떤 논문의 그런 어떤 학위 과정, 우리들이 판단할 때 그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독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반드시 공동저자로 포함된 논문만을 박사학위 논문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뭘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이공계 연구가, 자꾸 이공계를 들추게 돼서 너무……

○진선미 위원 아니, 중요하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송구합니다만 이공계 논문 자체가 다 공동연구입니다, 거의. 단독연구를 학생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실험 장비라든지 실험 스케일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일들을 혼자서 기획해서 단독적으로 한다면 게 거의 성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공대 연구는 거의 지도교수가 연구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그 랩에 있는 모든 학생이 협력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도교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그게 그 랩에서 나온 연구라고 인정되는 겁니다.

○진선미 위원 오히려 공신력이 담보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이제 학위 논문을, 어떤 제자의 석사 논문이든 박사학위 논문이 이미 발표된 것을 그다음에 또 학술지에 이렇게 복붙처럼 이렇게 했다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게도 합니다.

○진선미 위원 그게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닌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왜 안 중요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대로 교수가 이렇게……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일부를 떼어서 학위 논문을 먼저 발표를 하기도 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하기도 하고 나중에 하기도 하고.

○진선미 위원 또 나중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러나 의무……

○진선미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과정은 얼마가 걸리나요, 보통?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것도 각기 다 다릅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년부터 몇 년? 1년이 걸릴 수도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짧은 기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대략 예를 들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실험이 다 세팅이 됐으면 6개월 만에도 나올 수 있지만……

○진선미 위원 6개월 만에도 하고 가장 길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뭐 4, 5년 만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4, 5년 안에 누구는 거기서 석사학위 논문을 하기도 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하기도 하고 또 교수님이 따로 학술지 논문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하여튼 저는 다른 질문도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을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소모해야 되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즉시 뭔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런 일을 안 벌였어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논쟁을 했더니 결국 1년이 넘어서야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한국학력평가원에서 역사교과서를 유일하게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표지갈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낸 문제집을 앞의 표지만 갈아 끼워 가지고 그것을 20년 전에 낸 것을 지금 낸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역사교과서가 검증에 통과까지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우리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버텼는데 2025년 올해 4월 28일에 감사원이 이것 발행정지 합격 취소 사유다 이렇게 인정하고 결국은 7월 14일에 교육부에서 한국학력평가원 발행 이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어요. 아니, 이게 우리 같으면 2년 전에 이미 다 정리됐어야 하거든요. 저는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상황들을, 만약에 후보가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정리도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정비도 좀 하시고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균형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후보자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있는데요. 한 언론사에서 후보자가 수백만 원의 정부 연구비 지원받아서 연구과제 진행하면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제출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이름은 1 저자로 올리고 또 원출처인 제자 논문은 참고했다는 표기를 안 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화면 PPT 보시면 지금 학술논문과 제자 석사논문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빨간 부분 논문 발표 시기를 보면요 제자 석사논문은 8월에 학술논문은 9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석사논문이 먼저 나왔으니까 마치 이걸 베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학술논문은 실제로 투고된 시점은 3월이에요. 그리고 게재 확정이 된 건 6월이고 실제로 학술지가 발간된 것은 9월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와 제자가 함께 쓴 학술지 논문이 먼저 완성이 된 것이고 제자가 이것을 발전시켜서 석사학위 논문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자 논문은 저 논문하고 똑같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요소들을 실험 요소들을 넣어서 완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같은 논문이, 전혀 내용이 아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겹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당연히 있지만 제자는 제자 나름대로 또 다른 실험을 해서 합쳐서 본인의 논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백승아 위원 더 발전시킨 것이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도입이 되면서 각종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획일적인 입시경쟁 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교사 수를 늘리고 지원 인력도 늘려야 합니다. 또 학생이 본인의 진로에 맞게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등급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제외해야 하거든요.

가장 요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수·미이수 제도인데요. 이게 미이수도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유급한다는 건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이수하지 못하도록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이수 학생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관리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많은 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그다지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해서 지금 시작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를 보면 고교 교사 87%가 ‘고교학점제는 정착은커녕 시행도 어렵다’ 또 고교학점제 경험한 학부모님 90%가 ‘현재 고교학점 운영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학부모, 학생까지 모두가 다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대로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더욱더 많은 고민을 갖게 해요. 경쟁체제도 그대로지요. 진로도 정해야 되는데 교사에게는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라서 교육현장은 지금 고교학점제 때문에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이 고교학점제 문제가 우리 학생들의 진로 또 대입과 직결된 굉장히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보자께서 이 문제 충분히 인식하고 계셔야

하고 임명 즉시 개선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후보자님,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이 고교학점제 문제를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재 교사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또 최소성취보장제 때문에 교사들이 보충수업까지 해야 돼서 엄청 업무 과중을 받아서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출결 문제부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게다가 고교학점제가 입시와 연결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의 중요한 취지·의도와 또 입시제도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선에서 교육부에서 현장의 문제점들을 귀담아듣고 바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간곡히 교육계의 의견을 전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교학점제는 진짜 우려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많고 학생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니까 만약에 교육부장관 되시면 중점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진숙 후보자님, 고생하는데 이 논문 전체를 축약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데 팩트 체크를 몇 가지 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위증하시면 위증죄가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대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이진숙 후보자님은 36년 동안에 열심히 교수 생활하고 총장까지 하셨어요. 그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논문 많이 있지만.

2006년 2월 제자 오0석, 내가 이름을 밝히려다가 그래도, 이분이 박사학위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2006년 12월에 ‘건축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문양의 조형요소에 대한 영향평가’ 이 박사학위논문의 56%를 갖다가 썼어요. 그것은 나중에, 지금 체크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2009년 2월에 김0현·김0도라는 제자가 쓴 논문이에요. 그런데 2009년 3월에 후보자님께서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 이게 52%를 갖다 썼어요. 물론 지도를 했기 때문에 갖다 썼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그다음에 박사학위논문입니다. 2018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논문과 2018년 3월에 후보자님께서 발표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

구' 이게 48%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장과 연구 설계·결론까지 제자의 학위논문과 본인의 논문이 사실상 동일한 상황인데 여전히 관행이었다. 공대, 내가 인정합니다. 공대는 계속해서 같은 지도 교수와 제자들이 공동발표를 학술지에 합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논문·석사학위논문은 독창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제가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석사학위 숙명여대 논문 표절률이 48%였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대식 위원 그 논문이 결국 학위가 취소됐어요. 표절률 48~56%에 이르는 후보자의 논문은 왜 그와 다른 잣대가 적용돼야 되는 것인지 국민 보기에, 이게 같은 검증 방식과 기준이라고 해도 결국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민검증단의 주장이에요.

후보자께서 관행이었다 제자가 동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못하면 제자의 학위가 취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 학위논문보다 먼저 나오고 그 제자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가 56%를 갖다가 쓰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진숙 후보자는 교수이자 총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색채학회 회장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논문을 활용해서 이것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러한 부분을 갖다 썼다는 이런 잣대는 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세 논문 중에서 뒤의 2009년 논문과 2018년 논문은 제 총장 임용 당시에 엄격한 표절 체크를 받은 논문들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은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교내에서 받은 거지요. 검증받은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검증위원회에서 다 받은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때 당시의 검증은 학내 검증단이고 지금은 국민검증단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다 이겁니다. 학내 것은 서로 봐주기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런 것 아닙니다. 엄격하게 그때 총장…… 존경하는 위원님, 공립대학들의 총장 검증시스템은 엄청 엄격합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저하고 잘 알잖아요.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장님의 그거를 펴면서 이야기해 주신 건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엄청 엄격하고 거기에 그러한 봐주기 이런 게…… 저희 공무원 사회입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인데 이 56%와 52%, 48%는 어떻게 설명하

실 거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래서 56%, 48%라고 했던 논문들은 그 당시에 다 10% 이하로 표절률이 평가받았던 것들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국민검증단의 이 사람들은 완전 가짜로 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아는 사실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쯤 사과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데 학문적 자료를 정말 우리 교육부가 책임지고 빠른 시간 내에 검증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비전 제시하고 정책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항상 이런 논란을 밝히는 데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준비된 저의 법안이 있으니까 나중에 좀 여야 위원님들 합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속도감 있게 이런 논란을 우리가……

○조정훈 위원 국회가 하자는 건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국회가 하자는 거지요. 아니, 국회가 하는 게 아니라 검증은 교육부의 워 연구기관에서 하는 거지요.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논문 표절 관련해서 저도 깊은 전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한번 공부를 조금은 해 봤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이공계 논문이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후보자가 2014년도에 ‘실내거주공간의 적용 색채에 따른 감성어휘의 평가 분석’ 이런 학술논문이 있고 또 2016년에 제자의 박사논문인데 ‘실내 색채변화에 따른 심리·생리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혹시 2016년도 이 제자 박사논문은 공동으로 그러면 후보님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이 연구들도 다 같이 공동으로 했었습니다.

○김문수 위원 공동으로 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문수 위원 그래서 아마 공동으로 하면서 이게 표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언뜻 보면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이게 표절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런데 제자의 박사논문에 보면 감성어휘 평가 플러스 뇌파 측정이라는 게 하나 더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서 연구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른 연

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처럼 같은 용어가 양쪽에 계속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표절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이나 기자분들 또 잘 모르는 분들이 이걸 갖고 표절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다는 겁니다. 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오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려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런 오해들이 많은 겁니까,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아주 전혀 다른 논문입니다.

2014년도 논문은 심리적인 항목만 다룬 거고요. 2016년도에는 여기에 생리적인 뇌파라든지 뇌파 지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심리적인 영향과 생리적인 영향이 어떻게 서로 상호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논문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발전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 여러분들도 좀 쉽게 이렇게 한번, 표절 오해가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보 재산이 현재 43억이에요. 국민 전체의 1% 안에 드는 재산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몰랐습니다, 그렇게는.

○김문수 위원 보니까 1%대에 해당되고 다만 부부가 교수로서 30년 넘게, 최근 5년간은 두 분이 합치면 1억 3000에서 최고 한 2억 정도까지 연봉 소득이 있었던 걸로 보고 이게 한 30년 넘게 이렇게 소득이 되면 당연히 계산해 보니까 적게는 한 45억에서 많게는 한 60억 정도, 단순 계산하면요. 그런 정도 되기 때문에 월급 받은 대로 다 저축하고 했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유학비가 실제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두 자녀 딸들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학비가 1인당 3만 불에서 4만 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숙사비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거의 생활비는 보내지 않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정도로 계속됐다고 봅니다.

○김문수 위원 어쨌든 두 부부가 번 소득으로 다 부담을 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소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기부도 꽤 하셨는데 2021년에 3000만 원, 22년에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약 4년간 1억 110만 원 기부를 했어요. 장학금으로 1억, 천원의 아침밥 103만 원 또 취약계층 선물기 7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교수님들이, 총장님이라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총장님들도 이렇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아까 CNU Honor Scholarship 제가 그것 하려고 총장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총장으로서 1억을 냈었고요. 그 외에 천원의 아침밥이라든지 선물기 지원은 릴레이 기부의

1호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모든 구성원들이 또 같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었고……

○**김문수 위원**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더라도 한 1억 정도 기부한 것은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산목록을 보면 주로 예금이 약 27억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파트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던데 보통 건축학과·토목학과를 하거나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투자, 상가투자 이런 것도 많이 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그런 것은 잘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논문 쓰고 또 사회가 불러 주는 데 가서 일하고 그런 것에 열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김문수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민전 위원** 점심시간 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공계 교수님들이셨어요.

이공계 교수님들 말씀은 ‘내가 가서 연구과제 따 와서 학생들 연구시키고 학위논문 쓰게 하고 그리고 1 저자 만들고 나는 교신저자 했는데 이렇게 산 우리는 바보냐’ 이런 말씀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합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공계의 기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많은 이공계 교수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교수와 제자가 합의한다라고 하면 교수에게 유리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고 이 때문에 제자를 1 저자로 해 주고 교수는 2 저자, 다시 말해서 교신저자로 한다 이것이 이공계 교수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본인이 1 저자여야 한다면 연구노트를 써야 한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말씀이었는데요. 앞에서 후보께서 말씀하실 때 ‘연구노트는 학생이 썼다. 나는 수첩에 썼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본다면 연구는 아마 학생들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5년간 수주한 연구과제 숫자가 60개이고요. 수주액이 28억이 좀 넘더라고요. 학교로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한 교수님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학생과 교수가 어떻게 이 성과를 나누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백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문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PPT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2004년 4월에 발표한 ‘초·중·고등학생의 선호색채 조사 및 분석’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먼저 발표되고 백승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의 석사논문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월 숫자는 몇 개월 차이여서 같은 랩에 있다고 하면 사실상 같은 연구를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왜 석사논문 쓴 학생 이름은 학회지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석사논문을 이용해서, 교수와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해서 논문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석사 학생에 대한 지도가 사실상 기존에 있는 논문을 그냥 베껴 쓰는 것을 학위 논문으로 지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연구재단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의 논문을 이용해서 교수가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한 것은 연구 부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연구재단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어느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학생의 논문을 교수님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대거 베껴서, 저 안의 표들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0개의 표가 동일하고요, 6개의 그림이 동일하고요, 안에 인용문구와 결론과 본론도 상당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일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석사 학생도 같이 논문의 공저자로 넣어 주든지 아니면 석사학위 논문 지도가 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저 제자 이름을 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논문……

○김민전 위원 안인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안인화요?

○김민전 위원 예, 안인화로 제가 기억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이것은 좀 생각을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렇지요, 뭐. 굉장히 많은 학생을 지도하셨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고……

○김민전 위원 금방 기억은 안 나실 테니까 답변을 나중에 주시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런데다가 제자가 쓴 논문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서……

○김민전 위원 제가 여기 그래프에 보여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백승아 위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민전 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2018년 논문의 경우에도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에 제출한 논문과 색채학회의 논문이, 또 이것 역시도 두 논문이 굉장히 유사해서 사실상 이게 논문 쪼개기가 아니냐 혹은 원문 재활용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받기가 굉장히 쉽고요.

두 논문을 제출한 시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사실 이 논문만 가지고 언론에서 오십몇 차례의 기사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쾌글레어와 피로감이라는 말을 평가척도로 서로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이 가져오신 자료에는 실험환경, 실험세팅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같은 실험세팅을 활용해서 한쪽은 불쾌글레어 평가를 했고 한쪽은 피로감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쾌글레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에서도 지금 불쾌글레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쳐다보고 눈에 들어오는 광원의, 빛의 양에 따른 불쾌감, 물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피로감은 그 불쾌글레어로 인해서 느껴지는 정신적인 감정을 피로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실험이 전혀 다른 평가척도와, 그러니까 세팅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실험장치 내에서 실험환경 내에서 모든 조명 조건은 같지만 결론은 불쾌글레어를 하기 위한, 불쾌글레어는 또 국제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실험을 했고 그것이 정신건강에 어떤 느낌을 갖는지를 또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도 평가를 똑같은 환경에서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환경이었을 뿐이지 전혀 다른 실험이 이루어졌고 같은 실험장치에서 하다 보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논문 제출이 된 거고요.

저 논문을 하나는 조명·설비학회에 냈고 하나는 색채학회에 냈는데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거의 모든 논문을 건축학회 아니면 색채학회, 조명학회로 성격에 맞게 분류를 하는데요. 거의 그것을 형평성 있게 저희들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뿐이지 저게 쪼개기도 아니요, 쪼개지 않았으니 다른 학회에 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낼 이유가 전혀 없었던 논문입니다.

○**김민전 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소명은 다 끝나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김준혁입니다.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에 학문 연구윤리에 대한 정립이 상당히 부족하다. 연구자들마다 다 각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김건희 씨 논문을 검증했던 국민검증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관후보자님의 논문과 관련해서 또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민주당 위원들 입장에서 어쨌든 이공계 논문의 특성에 맞춰서 장관후보자님이 이렇게 소명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정말 여러 가지 논쟁의 소지가 있을 때 학문 연구윤리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교육부가 만드는 것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깜짝 놀라시겠지요. 저 앞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도대체 뭘까요? 왜 이 사진을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 내놓을까요?

조금 전에 1시 좀 넘어서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바로 건진법사라 불리는 전성배 씨의 법당 안에 있는 비밀방에 있는 일본의 신 아마테라스를 모신 곳당입니다. 놀랄 일이지요. 김건희 씨와 매우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진법사가 비밀리에 일본 신화에 나오는 신 아마테라스를 이렇게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왜 인사청문회의 내용과 연결될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지도층에 상당히 많은 우익계 인사들이 바로 일본을 이렇게 미화하고 일본의 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어제오늘 계속 나온 내용이 바로 일본의 방위백서입니다. 30년째 똑같이, 방위백서가 21년째 똑같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가운데 원 표시를 제가 일부러 했는데 ‘죽도(竹島)’라고 돼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심각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베를린 소녀상 또 이탈리아에 있는, 최초 유럽에 있는 소녀상, 이 소녀상들을 일본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지금 철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일본의 이런 극우·우익화, 잘못된 역사교육 그리고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교육부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하기 힘든 일이고요. 이게 교육부장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관계 부처와 함께 이것은 항의하고 시정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혁 위원** 지금 현재 교육부 안에 여러 역사기관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기관들 안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기관장을 하고 있다, 혹은 기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뉴라이트 인사의 성향을 매우 깊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혹시 잘못된 역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직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역사 바로잡기 내지는 또 특히 교육부 내 교육의 중립성을 고려해서 그것은 세심히 살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혁 위원** 앞으로 향후 역사 바로세우기 교육, 역사 정의 교육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저도 김민전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김민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것처럼 2018년 2월·3월·4월에 논문이……

표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2018년 2월에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이진숙, 정 모 씨가 같이 낸 거고요. 두 번째가 불쾌글레어에 대한 연구 3월 달에 제출됐습니다. 그다음에 4월 달에 제출된 게 정 모 씨가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학위 논문을 제출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질의 과정에서 이 피로감하고 불쾌글레어가 다른 실험이라고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같은 환경인데 실험을 두 번 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다른 종류의 실험을 한 거지요, 같은 실험 세팅을 가지고.

○김용태 위원 보통 우리가 인체와 관련된 실험을 할 때 연구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IRB용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용태 위원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불쾌글레어는 연구계획서가 있는데 피로감에 대한 연구계획서는 따로 없습니다. 같은 실험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피로감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가 따로 없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피로감은 IRB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났겠지요.

○김용태 위원 IRB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용태 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것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예.

이렇게 같은 실험에서 측정한 피로감과 불쾌글레어 지표를 각각 한국색채학회와 조명·전기설비학회에 따로 쪼개서 게재하는 것도 이공계의 일반적인 연구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존경하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과학재단에서 찾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김용태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잠시 찾는데 좀 시간이……

연구재단 21년도 연구윤리 안내서입니다.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 실험이, 그러니까 다른 실험일 때 가능한 것이지요, 그것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다른 실험입니다.

○김용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IRB를 해당인지 아닌지만 확인해서 알려 주시

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김용태 위원 아까 오전에 후보자님 설명에 의하면 발진 안 된 내용이 학위 논문에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연구로 인정되어서 학위 논문이 승인됐겠지요.

그런데 왜 이 학위 논문의 앞에 있는 학술논문지에 대해서 인용했다라는 아니면 참고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것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인용 표시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이 한 건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연구 건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사실은 저도 이번에 정확하게 오히려 확인하게 됐는데요. 연구윤리가 정확하게 정착되기 전인 때는 인용 표기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김용태 위원 저도 그 비슷한 시기에 논문을 제출했었는데 보통은 인용 표시는 안 하더라도 참고 내용을 달지 않습니까, 학술논문에서 했던 것을 발진해서 했다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칫 하다가 연구윤리에 위반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계속 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용태 위원 결과적으로 이 피로감과 불쾌글래어에 대한 연구가 아까 과학재단에서는 표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교육부훈령에 보시면, 제449호 11조입니다. 5번에 ‘부당한 중복 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역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험이 달랐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지 만약에 같은 실험이었더라면 이 연구도 연구 부정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존경하는 위원님, 논문을 꼭 살펴보시면 표를 그리는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그렇지 실험 내용과 분석 내용과……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후보자님께서 같은 실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아닙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IRB를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거지만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 간사와 사회교대)

준비된 PPT의 첫 번째 걸로.

조금 전에 범학계 국민검증단에 대한 오전 인청 이후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까 진선

미 위원님께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빨간색 쳐져 있는 것만 보시면 ‘더구나 학생의 학위 논문을 활용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고서 자신의 학회지 논문의 제1 저자로 올린 행위는 교육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다음 한 번만 보시겠어요?

유원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연구노트를 안 썼다는 건 내가 제1 저자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한 번만 더 넘겨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참여연대에서도 논평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박스를 봐 주시면 ‘이진숙 교육부장관후보자에게 제기된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과 자녀 조기유학에서 초·중등교육법 위반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마지막 파란색 블록 돼 있는 곳을 보시면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논문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표절이라든지 제자 논문 가로채기라든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연구자 입장에서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녀 조기유학 문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제가 사과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문정복 말씀하세요.

○조정훈 위원 아까 우리 김용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2개 실험이, IRB라 그러셨지요? 그 제출 대상이 아닌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이게……

○조정훈 위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질문에서. 그러면 위증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복 확인해 보신다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같은 시기에 같이 이루어졌으므로 실험인자를 따로 분리해서 같은 IRB로 제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김용태 위원 IRB에는 불쾌글레이어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불쾌글레이어와 실험 내용 중에 피로감도 얘기를 했겠지요, 만약에 했다면.

○조정훈 위원 언급돼 있지 않아요.

○김용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언급에 불쾌글레이어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피로감이 아직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복 확인해 봐 주세요.

○조정훈 위원 확인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런데 명백히 다른 논문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복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논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불쾌글레이어와 피로감 평가 연구에 대한.

이 논문을 보면 저도 사실 이공계의 학자도 아니고 이런 논문을 써 본 바가 없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이게 맞냐 물으면 당연히 이것은 2개의 다른 논문이라고 말씀하실 거고.

그러나 제 눈으로 보기에다 마지막에 있는 결론도 내용이 다 똑같고 그러나 하나는 불쾌글레이어고 하나는 피로감이기 때문에 완전 다른 논문으로 해당 학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더라는 말씀이셔서 저는 결국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사실 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께서 청문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특히 이공계열에 계신 교수님들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여당의 위원인 저로서도 명확하게 이게 납득되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좀 유감스러운 게 오늘 하루 종일 자녀 문제와 논문에 대해서만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사실 이 자리는 교육부장관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 미래 비전은 얼마만큼 품고 있는가를 물으면서 자격이 되는지를 여쭙 봐야 되는 데,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님도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폭 빠져 계셔서 그런지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게 답을 못 내놓고 계세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AIDT에 대해서 교육자료냐 교과서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왜 그거 하나 답을 못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교육자료로 지금 논의 중인 걸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논의 중인 게 아니라 저희 교육위 안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러면 교육자료인 거지요.

○고민정 위원 왜 교육자료이지요, 그러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교육……

○고민정 위원 왜 교과서면 안 되고 교육자료여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민정 위원 제가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교과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걸로 모든, 통용되는 자료고 교육자료는 그야말로 참고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고민정 위원** 단순히 이게 강제성을 띠는 교과서냐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자료냐를 넘어서서 1년 동안 이 교육위 안에서는, 교육 분야 안에서는 엄청난 공방이 있었던 분야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툭 하고 질문만 나와도 술술술술 후보자님의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던 이유는, 공약으로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AIDT를 써서 교과서, 지금 AI 교과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AI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만들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곳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료로 가는 것이지 이게 강제성을 띠는 교과서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아까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유보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 뭐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지금 첨예한 의견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어떤 게 의견차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러니까 보육계하고 유아계 사이에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고민정 위원** 뭐가 다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일단 보육계는 연령을 0~5세까지 일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유아계는 이원화해서 0~2세, 3~5세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격 조건과 또 교육기관의 시설 규모 가지고도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저는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는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직무를 유기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관후보자께서 고등교육의 전문가이시니만큼 아무래도 초중등에 대해서는 숙지가 안 돼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준비하라고 뒤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합류해서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교사들의 자격 부분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보육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리 안 돼 있습니다. 돈 문제도 정리 안 돼 있고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도 정리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인지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계끔 해 주셔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지금 후보자께서 답을 잘 못하시면 뒤에서 자료라도 넘겨주시면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후보자 혼자서 지금 이것을 다 합니까? 어떻게 1부터 100까지 후보자가 모든 정답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게다가 우리가 쉬는 시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후보께서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고민정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부 관계자분들께서 잘 보좌를 못 한다고 많이 질타하셨는데 어차피 후보자 혼자 다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증인·참고인도 없이? 후보자가 끝까지 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현재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공교육의 교육격차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인식을 하셨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명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지요.

‘교육 세습이라든가 부의 세습이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시대 상황이다.’ 후보자가 남기신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의 삶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말씀 드리구요.

청문회를 지켜본 어느 박사과정 학생이 저희 방에 보내온 글입니다. 후보자께서 만들겠다고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서울대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께서 통탄하며 보내온 글입니다.

‘국책과제 수주의 성과가 논문이 되는 것이지 논문의 성과가 국책과제 수주로 평가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가 이공계, 이공계 하면서 관례를 자꾸 언급하는데 보통 실험을 직접 실행한 학생이 1 저자, 교수가 교신저자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 교수가 제1 저자로 들어가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서지영 위원 언제 추진위원장으로 위촉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대선 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서지영 위원 한 5월 27일경 임명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본인이 오래전부터 구상해 오시고 연구해 오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혼자 구상한 건 아니고요. 거점대 총장들끼리……

○서지영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2021년 정도라고 기억합니다.

○서지영 위원 2021년 정도부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서지영 위원 그러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수도권 중심의 대학의 서열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서 다들 서울로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 지역에는 지역소멸이 더 앞당겨지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아무래도 살아갈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교육연구를……

○서지영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커리어답게 짧고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지역을 살리는……

○서지영 위원 그런데 왜 서울대 10개 살리기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해하기 쉽다라고 일단은 명을 그렇게 붙인 거지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서지영 위원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서울대 수준의 학교를 10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걸 목표로 그만큼 좋은 대학으로……

○서지영 위원 서울대 수준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연구 수준도 되고요 그다음에 모두가 가고 싶은 대학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해서, 일단 한국에서는 서울대가 가장 좋은 대학으로 그렇게 목표가 되니 그런 대학을 지역에 만들고 싶다 이런 여망입니다.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5월 27일 날 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되셨는데 본인이 여러 인터뷰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어떤 안을 민주당에 제안하신 걸로 나왔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전혀 근거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서지영 위원 제안하신 적은 없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알고 후보자를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최근까지 저희들이 서명도 하고 전현직 총장들이 다 같이 이걸 추진을 했지만 그중에 저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동의를 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서지영 위원 그전에는 민주당에서 활동하신 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전에는요?

○서지영 위원 예.

활동하신 적은 없는데 5월 27일 날 딱 임명된 겁니까?

맨 처음 누구한테 연락받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지영 위원 왜 어렵습니까? 그게 무슨 보안 사항입니까? 후보자 추천을 누가 했다고 물어보는 것 아닌데요. 그것은 공무의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 말씀은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왜 못 합니까?

아니, 본인이 캠프의 추진위원장 맡는 것 그것 누구한테 연락받았는지, 누가 추천했는지. 본인은 민주당이랑 별로 활동하신 것 없으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선거 며칠

전에 임명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겠지요. 하고 영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누구인지 얘기 못 합니까? 못 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분 양해를 안 구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복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후보님, 제가 이렇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을 보니까 크게 맥락상으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논문 표절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녀의 해외 유학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데, 제가 들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후보님이 총장선거에 언제 나오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2019년에……

○박성준 위원 2019년?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박성준 위원 저도 방송국에서 지내 보면서 총장선거를 보는데, 총장선거에 그 당시에 몇 명이 나왔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7명이 나왔습니다.

○박성준 위원 7명이 나왔으면 이진숙 후보자 논문 표절 있었으면 그 학교의 총장후보자들이 가만뒀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엄청났겠지요.

○박성준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박성준 위원 제가 보니까 역대 총장들 되고 나서 논문 표절 가지고 지금도 총장 혼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학교에 보면.

그래서 저는 일단락은 2019년 총장선거에서 논문과 관련된 표절 부분은 이미 끝난 이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의 적은 교수라고 항상 보면 교수들이 총장에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장관에 가거나 그러면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가만두지를 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대학교 제자들도 그렇고 충남대학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역대 다른 교수들에 비해서 그런 지적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비율적으로 보면.

제가 과도한 해석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 유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진보와 보수인데 진보는 해외 유학, 자녀 유학 보내면 안 되고 보수는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충남대학교 총장을 했지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덕연구단지를 만들고 카이스트를 만든다가 KDI를 만들어서 한국의 발전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그 근본적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60년대, 70년대 산업화하면서 우리나라 인

재들이 해외 유학을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도 가고 우리 장관후보자처럼 일본도 가고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미국 가서 민주주의 정치학 공부해 와서 한국의 정당에 대한 개혁이라든가 민주주의 시스템, 절차적 시스템 그리고 헌법에 대한 헌정체제 이런 것들 다 와서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업화에 있어서 포항공대도 만들고 카이스트도 만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 일본과 우리나라 차이가 뭐였냐면 일본의 정체성은 일본에서 인재들이 일본 안에서만 큰 거예요. 세계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세계로 뻗어 나가서 그 인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산업화·정보화·세계화를 하면서 성공을 거둬서 10대 강국을 이루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녀들도 해외에 그냥 조기 유학도 가고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서 뭐가 되냐면 BTS도 되고 블랙핑크도 되고 또 문화적인 발전도 이루고 AI에 대한 것들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교육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세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녀들도 해외 가서 공부해 보고 그 자녀들이 와서 다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바꿔 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바꾸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안으로만 바라봐 가지고는 공교육 시스템도 발전하지 않는다,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는 후보자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답변할 때 보니까 너무 수세적인 것 같아서, 아이들 해외 유학 보낸 게 큰 잘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해외 유학을 못 갔다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 유학 보내서 글로벌적인 스탠더드를 배우고 한국에 와서 전 세계 5대 강국을 만들고 세계 1등 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영어도 하고 전 세계 선진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냐. 교육적 눈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 공동체를 위하고 공익과 사익을 구분할 수 있는 철학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광의 실현자로서의 교육을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공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그러한 것들 채워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장관후보자가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인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여기 조정훈 위원도 해외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정훈 위원 저는 조기 유학, 불법 유학은 안 했습니다. 대학 다 나오고 직장생활 한 다음에 유학 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준 위원 조기 유학이 불법 유학이었다는 게 아니라 유학을 갔다 와서 세계사적인 흐름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력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고 그러한 것을 선순환 구조로 교육을 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이제 5대 강국에서 세계 강국이

되는 것이지요.

○조정훈 위원 조기 유학 안 가도 잘 클 수 있다는 게 저의 사례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복 간사님,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왜 이렇게 자꾸 논평을 해요, 조정훈 위원님. 내가 조정훈 위원님 칭찬 하잖아, 지금.

○위원장대리 문정복 우리 간사님이 유별나게 지방방송을 잘하세요.

○박성준 위원 유학 갔다 오고 눈을 크게 가져야지, 글로벌 스탠더드로. 불법적인 조기 유학 가면 안 되지. 그런데 애들 유학도 보내고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세계적인 인재가 되고 이렇게 가야지요.

○위원장대리 문정복 발언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유보통합 말씀드렸더니 그 짧은 시간에 좀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라도 하셔야지요.

정확하게 짚어 드리면요 후보자님, 원래 보육업무는 복지부가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복지부가 갖고 있는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통합을 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유보통합을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정성국 위원 국가 시책을 어떻게 교육청이 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지요. 아니,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정성국 위원 당연히 교육부가 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논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님의 학술지 논문 한번 보면요 특정 부분, 제자 학위 논문의 특정 부분을 요약 발췌에서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화면 보시면, 같은 설명 드러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자 논문은요 독서, 컴퓨터 작업, 출입 및 전반적 행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감성평가가 분석이었다면 이 후보자는 이 중에서 독서에 관련된 부분만 요약 발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행위가 있는 부분에서 독서만 발췌를 했는데 결과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미 지 통일함만 아니라 실험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같아요. 여기까지는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안내서를 자꾸 들이대면서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도 그거 하시던데요. 제가 읽어 드릴까요? 아까 실무자가 내용도 읽었어요.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두 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 게재가 아니다’ 이것도 강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요 저희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연구재단에. 뭐냐 하면 무조건 하나의 실험을 두 개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각각의 논문이 학술적 가치나 연구의 독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성, 결과, 의미가 달라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 대한 출처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된 이 학술지 논문은 제자의 논문을 단순 발췌 요약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성도 없고 결과도 동일해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확인했냐면요, 한국연구재단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이 논문 틀리고 맞다 이야기하다 지금 시간 끝 시간 없습니다,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후보자가 근거로 제시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안내서는 단순 참고자료입니다. 답변 한번 보세요.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안내서는 그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검토에 대한 ‘동 사항에 대한 판단은 해당 논문을 출판하는 학술지의 논문 출판 심사과정에서의 심층검토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한국연구재단의 안내서가, 이게 모든 것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고 모든 걸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주장하는지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정복 간사, 김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성국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대 연구윤리 기준도 한번 보십시오. 중략하고 밑에 보시면 줄 그은 거 보시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 한번 보세요, 부정행위.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행위’ 또는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충남대 연구윤리규정에서도 이런 것들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이 논문은 단독 명의로 게재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

○정성국 위원 아니요. 논문을, 그러면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논문 160점 쓰시면서 부정이 있었던 것 중에서 단독 게재 하나도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없었습니다.

○정성국 위원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안내서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변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단독 명의가 아니라 제자랑 같이 공동으로 썼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질문이 그거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지침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답서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제가 지금 분명히 한국연구재단에 이걸 확인했다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한국색채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의 이 논문을 다시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에서 검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논문에 대해서요. 두 논문을 다 두 학회에다가……

○정성국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한국연구윤리 통합안내서가 참고자료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게 모든 것을 다 방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라는 뜻이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래서 이 논문들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학회에서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판정을 해서 서로 다른 논문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미 받았습니니다.

○정성국 위원 그래서 국민검증단에서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여기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리고 이 논문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께서도 감사하게 말씀을 저 대신 해 주셨지만……

○위원장 김영호 마무리하신 건가요? 답변 끝나셨나요, 아직 안 끝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리고 이 논문은 교수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제가 연구 부정이 있었으면 굉장히, 이것을 한 달 동안 연구윤리에 대해서 연구 부정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학교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건도 없었고요.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검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이게 정찬웅 논문이 그 논문에 해당이 되는데요. 총장 임용 과정에서 연구 부정 없음으로 밝혀졌고 한국색채학회에서 두 논문은 전혀 다른 논문이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연구윤리위원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국 위원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후보자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대학교수이자 총장으로서는 아마 고등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라는 부분들이,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도 있겠지만 유·초

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라는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를 알고 계시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앞서 가장 중요한 정책 추진의 방법이 소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이 지금 굉장히 침체하게 이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직접 소통을 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행이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에 집중해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많이 제안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다행인 게 뭐냐면 교육부에는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직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정을호 위원 그것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그다음에 장관후보자께서 조금 부족한 부분 앞으로 더 국민들과 함께할 부분들을 해소돼야 할 부분들을, 윤석열 정권에서 전문성보다는 인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했던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정책자문관이라든가 정책자문위원 임명한 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인맥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서 초중등 이런 부분들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보겠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정을호 위원 제가 질의를 한다 하니까 국민들께서 저희 방에 ‘이런 것을 장관님께 한번 여쭙보세요’ 하고 질의를 많이 해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혹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PT 보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계속 나왔는데 학부모단체 분들이 해 왔던 부분들의 첫 번째가 유보통합 관련 건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책임의 유보통합이 과연 기존의 유보통합과 뭐가 다른지 간략하게 30초 정도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무료,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강화한 유아돌봄 체계를 갖추시겠다고……

○정을호 위원 그렇지요, 국가 책임 강화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래서 무료로 하는 그런 정책을 2007년까지 다 하시겠다고 그렇게 정책을 수립한 것도 있고요.

○정을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도 학부모님 질문인데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뛰놀지 못하게 하는 학교들이 많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들까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간략하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학생들이 뛰어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현장에 가서 뭐가 그것들이 그렇게……

○**정을호 위원**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만 정책을 실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정을호 위원** 세 번째가 학부모님 질문인데요.

지난해 학업 중단 학생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요.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라든가 학업·진로 문제, 가정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는 예방해야 되겠지요.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특히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 지원 방안을 찾아서 진료센터를 연결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위험군들이 있습니다, 고위험군들이. 그런 데는 조속히 중점적으로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 연결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후보자께서 강점이 있을 수 있는데, 대학생과 대학원생들 질문인데요. 석박사 청년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싶어도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대학원생들한테는 정말 많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지금 해야지만 저희들이 AI 3대 강국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을호 위원** 다섯 번째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똑똑하시니까 다 잘하시겠지만 그냥 머리로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AIDT라든가 저희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항상 현장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후보자님,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력을 죽 살펴보니깐 2005년부터 현재까지 25개에 달하는 각종 정부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를 넘나들면서 위원으로 위촉되신 거예요. 겹치는 기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정권 맞춤형 이력 쌓기 아니냐고 하는데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공대에 여학생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는 그런 인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대중 정부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여성들을 꼭 위원회에 임명해야 되는 그런 할당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계기 때문에 어떤 이념의 성향에 따른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저는 이게 정책의 철학도 있는 것이고 국민 눈높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방향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활동하신 것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2기 활동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주요 국토개발 정책에 관련한 자리인데요. 4대강 주변의 농어촌 경관 개선사업을 경관 정비의 우수 사례로 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듯한 이런 비교 사진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지지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밝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다음 보시지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하신 것을 한번 제가 죽 살펴보니깐요 총장 재임이 2020년부터 24년까지인데 의과대학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2000명을 무리하게 증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대학에서 이렇게 많이 수요를 요청했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이 수요를 요청한 것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명분을 실어 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보시면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원래 110명 정도인데 300명을 의대 입학정원으로 요청하신 거예요. 순증이 190명인 것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교육자로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감 때 2023년에 말씀드렸을 때는 전 국민적인 희망이 의료인력이 늘어나는 거였다고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40개 대학병원을 갖고 있는 총장들이 다 이해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강경숙 위원** 다 그런 것인데요.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셔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다음에 190명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후보자님 말씀 끊고요. 질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를 드

릴게요.

○강경숙 위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충남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좀 보시지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후보자님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요 이전에 민주당의 공약으로도 들어간 것이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약을 정책을 구상하거나 설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서면질의를 제가 해 보니까 로드맵이나 재정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어떤 명확한 구상이 제시되어 있지를 않아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공허하구나. 선언적 차원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포장할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만 로드맵이나 재정 방안, 한두 발짝 더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전문가답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권의 기조에 따라서 주요 상징 정책이 있으면 전문가로 총장으로서 여기저기 무비판적으로 다 따라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예요.

아무리 이공계이기는 하지만 정책에는 철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기조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그것을 오가면서 하신 것이 아닌 걸까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권의 요구에 무조건 다 호응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이공계의 가치중립적인 기반의 학문이라 하더라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제 이력에서 굉장히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정권 이념에 맞춰서 제가 수용을 한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그전까지의 모든 위원회 활동은 제 주전공과 관련되는 거여서 이념과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경숙 위원 이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철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정책적인 철학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흐름에 끌려간 적은 없고 4대강.....

○강경숙 위원 그런데 아까 왜 4대강은 반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에 참여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 그 당시는요 그때 그 문제점을 크게 몰랐을 때고요. 그 당시에는 저는 전문가로서 농어촌 전반에 대한 경관 계획에 대해서 자문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질의 마치셨지요?

○강경숙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후보자님도 답변 마치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앞서서 김대식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께서 모두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7월 3일 자 국민일보 ‘실험 설계부터 결론까지 복붙, 이진숙 2개 논문 판박이. 주요 내용은 18년도 2월, 3월 다른 학술지에 발표, 서로 인용 표기 없음, 전체 유사도 35%로 쪼개기 의혹,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함’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성국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가 만능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지침이고 참고하라는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주관자인 이 논문을 게재했던 협회가 검증과 인증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국색채학회의 입장문이 나왔어요. 입장문이 나왔는데 문제로 거론됐던 2개의 논문에 대한 검증 관련 사실을 확인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글씨라서 안 보일 텐데 ‘한국색채학회 연구윤리위원회와 논문편집위원회는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이진숙 교육부장관후보자의 학술논문 두 편에 대한 중복 게재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아래의 사유로 볼 때 중복 게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피로감 평가 연구하고 불쾌글레어에 대한 평가 연구, 2개의 논문에 대한 입장문을 내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지금 이 분석은 많은 예 중의 하나고요, 이러한 것 같이 비슷해 보이는 실험이지만 데이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명백한 별개의, 같은 실험 조건에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지만 두 편의 논문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정복 위원 제가 고민정 위원님과 옆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오늘 후보자께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시 언론을 통해서 나가면 이 의견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또 반론을 할 것이고 만약에 수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니, 이 문제는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으니 이 정도의 협회에서 낸 입장문으로 갈음을 하면 좋겠고요.

대한건축학회에서도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학술 발표 대회 논문은 연구의 아이디어나 초기 단계 또는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발표이며 정규 논문은 완결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되는 공식적인 연구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 단계에서 발표되는 논문과 실제로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연구 성과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월 11일 날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김건희 여사의 ‘멤버 유지(member Yuji)’처럼 오타까지 똑같이 했다. ‘역효과

를 초래하고'인데, '래'인데 '레'로 했어요. '초래하고' 오타까지 같다, 최소한 11건의 표절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 석사논문이 9월 2일이고 학술논문은 9월 2일 이렇게 똑같이 때문에 이게 표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학문 생태계, 신진 연구원 양성 과정에서의 이공계 관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의견을 더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고요. 오타는 제가 챙겼어야 되고 꼼꼼히 체크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 서로 문장을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의 논문은 투고가 좀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로 보자면 제자가 그 뒤에 논문을 쓴 거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IRB에 관계해서 자료를 저도 봤는데 이 자료는 해당 논문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논문 전체, 이 실험이 아까 그 정찬웅 논문 2개가 그게 다가 아니라 굉장히 큰 실험, 여러 실험을 한 국책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과제 하나로 IRB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 실험을 한 번 하신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에요. 거기 안에 여러 실험이 같은 종류의……

○김용태 위원 그러면 이따 의원실로 한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이미 제출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김용태 위원님은 그 제출된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아까 제 첫 질의 마지막에 '미국 공교육의 경험까지 잘 살려서 한국 공교육을 개혁하겠다' 하셨는데 말은 바로 하시지요. 미국 공교육이 아니고 미국 사교육이지요.

그 학교 사교육, 사학교지요? 사립이지요? 공립학교에 학생 보내 보신 적은 없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공립학교에 보내 본 적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은 교환교수 가셨을 때고 아마 안식년이고, 제대로 유학 보냈을 때는 사립을 선택한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전반적인……

○조정훈 위원 이 학교, 아이들 보낸 학교 사립 맞잖아요. 그것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폭넓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정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미국 전체의 교육 분위기, 입시 형태 그리고 석박사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그들의 연구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 모두를 아까 우리……

○조정훈 위원 착각하지 마십시오, 후보님. 후보님은 중학생을 조기유학, 불법 유학을 보내신 분입니다. 인정하셨고 사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석박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후보님의 교육에 대한 입장을 제가 빠르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아니고 저는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관 후보 정도 되시면, 교육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니까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대상입니까, 아니면 발전 대상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것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자사고·특목고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필요없습니까? 보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한 소신도 없고 그냥 읽어야 돼요? 입장 없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 그것은 꼭 신중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야, 후보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오늘만 넘어가면 된다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것은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생각을 안 해 보신 거예요?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자사고·특목고 필요해요, 필요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잘 알고 있지요.

○조정훈 위원 뭘 잘 알고 계시다는…… 모범답안 보시고 이렇게 컨닝 하시는데 좀 안 쓰렵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에요.

○조정훈 위원 뭐가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근데 왜 입장을 얘기 못 해요? 지금 눈치 보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고……

○조정훈 위원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여기에서도 지금 정답이……

○조정훈 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영어유치원 필요해요, 안 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영어유치원도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영어유치원에 공립영어유치원이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조정훈 위원 그러면 사립으로 되어 있는 영어유치원을 다 국공립화시키겠다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영역까지도 또 우리……

○조정훈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 뒤에서 주지 마세요.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에요,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학원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교육화시키시겠다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교육이 워낙 심화되어 있으니 그것을 공교육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 공교육 안에는 영어교육도 있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7년부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죽죽죽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교육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조정훈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자녀들은 학력이 높아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요, 여러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요.

○조정훈 위원 교육격차 때문에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전반적으로 그……

○조정훈 위원 이것도 컨닝을 해야 되는 것이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조정훈 위원 도대체 소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 위원님 저 정말 2주 동안……

○조정훈 위원 아니, 장관 되든 안 되든 특목고·자사고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장관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이런 것은……

○조정훈 위원 영어유치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우리 국민들 영어유치원 보내려고 지금 대단히 노력하고 돈 모으는 사람들 많습니다.

학력 저하 이건 팩트예요. 진보 보수 모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한번 왜 학력이 저하되는지 이 얘기도 자료 보지 않고서는 읽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정도면 그냥 평범한 학부모하고 뭐가 달라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이번에 청문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요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그렇게 쉽게 어떤 본인의 즉각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학력 저하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교육격차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력 저하, 계속 상황이 안 좋은 학생들은 학력 저하가……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집안이 좋으면 학력이 좋아지고 집안이 나빠지면 학력은 나빠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 꼭 그런 뜻은 아니고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무슨 상관이 있길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격차와 학력 저하가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웃음)

○조정훈 위원 아니, 웃으시는데. 대통령께서 그러셨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딱하다’, 진짜 딱하세요. 여기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기정통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 가셨어야 될 분이에요. 아무것도 답을 못 하시잖아요, 정책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지금 교육에 대한 모든 내용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조정훈 위원 아니, 신중한 것은 다 인정해 드리고 그런데 소견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소신이라는 것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소견을 여기서 말씀드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청문 준비를 하면서……

○조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뭘 청문을 합니까? 소신을 말하면 안 된다고요, 청문회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 소신도 사회적인 합의 또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을 들어 가면서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자리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럼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장관 지명을 요청했을 때 대통령실이나 거기서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물어왔습니까? 그들에게는, 지명권자에게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런 말씀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후보자님, 총장 할 때 그 소신대로 좀 해 보세요.

○고민정 위원 이제 끝내고 하시지요, 이따 질의할 때.

○백승아 위원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잠시만요.

보충질의가 한 바퀴 돌았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님, 정성국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있잖아요, 고용부 진정서. 그것 위원장실로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배포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행정실에서 정성국 위원님의 자료 요구 관련된 것 그리고 아까 약속하셨던 자녀 유학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지금 신청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것 신청 중이라서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좀 기다려 주세

요, 위원님들.

하여튼 위원님들 자료 요청에 제출해 주신 점은 아마 위원님들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해도 되겠지요?

첫 번째 추가질의 첫 순서는 진선미 위원님입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후보자님, 기나긴 의료개혁의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1년 6개월, 1년 5개월 만에 그래도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 선언, 아마 김영호 위원장님 또 박주민 위원장님 정말 다양한 분들이 노력을 해서 가지고 지금 복귀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당장 이 문제들을 정리하셔야 될 엄청난 책무에 지금 직면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진선미 위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교육의 초기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1년이 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지금 6월 30일 기준 현재 유급 대상자가 1만여 명 정도에 가까운 의대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올해 1학기 유급은 진행을 하더라도 학칙 변경을 통해서라도 2학기는 어떻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학사 유연화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리고 또 미복귀 의대생이 돌아오면 이미 복귀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 의대생들과 또 별개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 것도 미리미리 빠르게 TF를 꾸리시든지 해서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진선미 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의대교육 여건 개선인데요. 그 문제들과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대환경 개선해 주시겠다 막 이렇게 던지신 거지요, 지난 정부에서.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또 다 뚝 끊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뭔가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했고 이제 본예산일 텐데요 그 과정 속에 어쨌든 전공의들도 아마 19일에 따로 논의를 해서, 지금 상황은 전공의도 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의대교육의 정상화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부는 관심을 갖고 의대교육의 환경을 제대로 개선할 거다 이런 의지를 반드시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본예산 정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이신지 조금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투자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고, 그러나 어떻게 됐든 투자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관계부처하고 또 의대교육 개선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진선미 위원** 신뢰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후보님,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조금 바로잡을 게 하나 있어서요.

의대학생들이 최근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복귀의 조건은 학사 유연화에 대한 조건은 전혀 없었고요. 학사를 정상화해서 복귀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학기를 9월 학기라고 그러면 7월부터 학기를 시작해서 조금 더 많은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고요 아니면 종강도 좀 더 늦춰서 학기를 최대한 늘려서 밀린 공부를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40여 개 대학이 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40여 개 대학의 학장과 교수님들, 학생들이 그 학기를 특별한 특혜 없이, 학생들은 사실 조금 더 지친 교육과정이 있겠지요. 아주 지칠 만큼 아주 힘든 교육과정을 감수해서라도 그 과정을 잘 받겠다라는 의지가 있고요, 교수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아이들이 배우겠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건데 그중에 한 학교의 학장님 말씀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분 말씀은 F 학점으로 된 것을 인정하더라도 새 학기에 재수강을 시켜서 그런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거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학사 유연화라는 것보다는 정상화를 시키고 재수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점을 더 부여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좀 받아들이셔서, 만약에 장관님 취임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40개 대학교 학장을 중심으로 학사 프로그램을 빨리 점검해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이들도 복귀되고 교수님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알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말씀 주시지요,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요구 자료에 대한 회신 자료가 왔는데요 이렇게 좀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제가 못 받았는데. 혹시 자료 다 받아 보셨나요?

○**정성국 위원** 받았습시다.

○**위원장 김영호** 예, 말씀……

○**정성국 위원** 나머지 2건의 경우 ‘사건 조사 전 신고인이 취하하여 종결된 사안으로 담당 부처인 고용부에서는 내용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밑에 보면요 ‘다만 고용부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 결과 충남대 총장인 이진숙 후보자 개인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선으로 확인했다’ 그러면 이 2개가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게 이진숙 후보자 개인과 직접 관련이 아닌 것이라면 신고인이 취하해서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자료를 제출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더

땀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호 그것도 저희가 한번……

○정성국 위원 그래서……

○문정복 위원 남의 것을 어떻게 해.

○정성국 위원 왜, 문 위원님 저한테 항의할 것 있습니까?

○문정복 위원 관계없는 사람 것을 어떻게 제출하냐고.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정성국 위원 그래도 위원이 이야기하면 여당 위원님들이 품격 지키고 딱 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 김영호 워낙 눈이 커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문정복 위원 알았어요.

○정성국 위원 제가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를 위해서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남겨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언론도 계속 추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제출하면 저도 여기서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저도 이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모든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후보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데요. 하여튼 최대한 우리 교육부에서도 정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이런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보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

○정성국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용태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2018년 한국색채학회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에 대해서 IRB 자료를 피로감에 대한 것 제출해 달라고 했고 조금 전에 의원실로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받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위원장 김영호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김용태 의원실에 아까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됐다니까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출했다고 우리 실무진들은 말씀하시는데요.

○김용태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못 받았다고 합니다. 불쾌글레이어에 대한 IRB만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료를 못 받으셨다니까 자료를 제출하는 쪽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 자료가요 불쾌글레이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대형 과제고 그 안에 여러 실험들이 있었던 겁니다.

○김용태 위원 2페이지짜리인데 그 안에 피로감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피로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그 자료 좀 달라는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2페이지짜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두 번째 페이지에 피로감 있습니다, 불쾌글래어도 있고 피로감도 있고.

○**위원장 김영호** 그거를 교육부에서요 김용태 의원실의 보좌진들에게 소상히 설명해드리고 김용태 위원님은 보좌진에게 설명을 또 전해 들으세요.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백승아 위원님이시지요? 맞습니까?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아까는 그렇게 정리를 했다가 다시 원상태가 된 거지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앞으로 장관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관의 역할 중의 하나가 중요한 정책 결정 아니겠어요?

제가 처음 오전에 질의할 때도 과거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또 새로운 정부는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대 증원 문제인 것 같아요.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과거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는 의대 증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용하고 갔던 문제였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의료대란까지 이뤄졌던 문제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아직 복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까지 다 결정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 문제를 현안을 파악하시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박성준 위원** 이거는 올해 넘겨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관 취임하자마자 혹시 되면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조속하게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 관련 단체 또 학생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책에 대한 결정은 해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해결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 비전 과제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으로 만들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지만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성장전략 이렇게 연계해서 실제 지역균형발전까지 모색하겠다는 것인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들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잘 알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장기 액션플랜까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출생률에 대한 문제를 여전히 얘기하는데 그 해결 방안 중의 하나가 유보통합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0세에서 5세 아이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걸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AI 교과서에 대한 문제, 교육자료나 이 문제인데 이것도 올해 안에 장관에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거 정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리박스쿨 같은 극우 교육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한다면 역사교육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위에 있으면서 생각했던 주요 현안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아마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과 큰 방향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이런 것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약을 하셔서 단기 과제 장기 과제를 분명히 하셔서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신속하게 가시고 장기적으로 할 문제들은 준비하셔서 촘촘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후보자님, 여기가 교육위기 때문에 저는 책으로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진숙’이라는 책을 이렇게 계속 다 읽어 봤는데, 지금 아침부터 여기까지 읽어 봤는데 이진숙의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궁금한 게 별로 없어. 소신껏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이라는 책으로 비유를 한다면 샘물처럼 솟아 나와야 되거든요, 본인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후보자님의 교육철학은 뭘니까, 한마디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이들 한 명 한 명 잘 기르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대별로 따라서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까지 오면서 어떤 정책적으로, 학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고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에는 찬성을 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소신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4대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원장을 하셨는데 공동위원장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선대위에서는 공동위원장은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선대위는 공동위원장 아니고 애초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애초에 위원장은 아니고 거점국립대 총장으로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다 같이.

○김대식 위원 그러면 다 같이 했는데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님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열심히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차정인 총장이 그리 가셨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캠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원장은 누가 추천을 하셨습니까? 아까 대답을 못 하시던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대식 위원 강훈식 지금 비서실장이 추천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제 대충 알겠네요. ‘아닙니다’ 해 놓고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답이 나왔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지금 서울대가 1인당 교육비가 6400만 원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국립대는, 지방대학은 2400만 원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2400, 2200 그 정도.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국립대를 서울대 이것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도 동반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존 사립대학들이 다 지금 침몰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충남대학교 아무래도 국립대지만 지방대잖아요. 지방대에서 그런 서러움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충남대 같은……

○김대식 위원 충남대 같은 지방대에서 계열 때 지방대학의 서러움이 있었잖아요. 내가 발음이 좀 안 좋나? 서러움, 서러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사립대학하고 같이 동반성장을 해 나갈 것인지 후보자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사립대의 동반성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RISE 체계에서 지방 사립대나 국가중심대학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과 관련해 가지고 특성화대학 쪽으로 RISE를 확대해서 기르는 전략, 그러니까 육성하는 전략과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허브로 만들면서 그

러면서 같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교수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학생 교류까지 하는, 그래서 거의 연구도 같이하고 학생들의 지도도 같이하는 동반성장의 모델을 만든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립대나 국가중심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구도로 역할 분담만 조금 하지만 공동 플랫폼 안에 그 모든 대학들이 같이 올라와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간이 다 갔으니깐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지지요.

글로벌대학은 성공한 정책입니까, 실패한 정책입니까? ‘예, 아니요’로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웃음)

○**김대식 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오엑스에는 항상 세모도 있으니까요 세모를 드신 것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지역혁신을 위해서 혁신 모델을 대학들이 참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글로벌대학에서 정말 특이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특별히 1도 1대학이라고 그래서 국립대학들이 한 개로 뭉치기도 하고 이런 대학들의 생존 전략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역이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직은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대교협 부회장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못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신껏 이야기하시라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이게 소신껏 얘기를 잘못했다가 시그널 잘못 가면 또 이 교육계가 엄청난 혼란이 있어서 신중한 것도 좀 존중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아니, 신중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대교협 부회장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글로벌대학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걸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요?

.....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신중하면서 긍정적이시다 이 정도로 정리를 제가 사회자의 입장에서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아까 후보자님 재산 관리를 보니까 공격투자형이 아니고 안정형이에요. 오늘 대답도 되게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교사라든가 초중고 출신이 아니고 대학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중고 교육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또 초중고 출신이 교육부장관을 하면 또 대학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또 현장에 있는 교사, 실제 학생들 또는 초

중고 교육은 주로 교육감님들이 각 지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어떤 협의라든가 좀 논의를 자주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두 자녀도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대체로 보낸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김문수 위원 큰딸은 중학교까지 졸업했고 그다음에 둘째 딸은 3학년 1학기까지는 했기 때문에 초중학교 교육은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고등학교 과정하고 대학을 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대학은 또 후보자 본인이 교수를 했기 때문에 잘 알 것 같고 고등학교 과정이 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커버해 주시기 바라고.

글로벌대학 선정에서 충남대학교가 한 번 탈락한 적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김문수 위원 교육부장관 되시면 거기 탈락시킨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보복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 때 2022년 9월 26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립대 사무국장들을 갑자기 대기발령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문수 위원 그리고 22년 10월 24일 날 4명을 또 대기발령을 했고 23년 7월 1일 자 14명을 쉽게 말해서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하고 있던 사람들을 계엄 조치하듯이 갑자기 대기발령시키거나 복귀시켜서 공무원들이, 부이사관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학의 사무국장을 갑자기 못 하도록 만드는 거의 계엄 사태와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학교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총장님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또 대학교수들로 대체는 했지만 그게 문제가 많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다시 공무원들도, 물론 공무원만 해라 민간인만 해라 이럴 수는 없지만 오히려 선택권을 더 넓혀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아픔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위로를 하고 또 해결할 건지도 같이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립대 사무국장 문제는 제가 장관후보님 처음 만났을 때 외통위 간사 때 그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앞에서 김대식 위원님의 답변에서 RISE를 희생시키지는 않고 그 RISE도 발전시키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같이 발전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예산이 순수하게 새로운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서울대 학생 1인당 6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3조 이상의 예산이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산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예산을 그렇게 늘릴 수 있나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예산을 더 늘릴 자신이 있으시면 저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전 위원 좋습니다.

오늘 많이 강조하신 말씀 가운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적어도 두 따님은 최대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기숙학교가 연간 1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 것을 자료로 보여 주신 바가 있는데요. 사실 대학교나 석사까지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대학교인 카네기 멜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생활비까지 하면 연간 1억은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게는 안 들었습니다.

○김민전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훨씬 작은 액수로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민전 위원 라이스도 역시 또 비싼 학교인 굉장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라이스는 굉장히 싼 대학입니다.

○김민전 위원 물론 텍사스가 조금 싸기는 하지만 그러나 라이스는 사립학교여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2만 달러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민전 위원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대학교 석사까지 다 한다고 하면 9년간,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까지 하면 두 딸을 9년간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편에 있어서는 학부모의 한 명으로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정말 보통 국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박사학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지원한 돈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은 주셨는데 장녀와 차녀가 각각 재산이 1억 원 가까이 있어요, 예금과 주식을 합치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특히 박사학위 중인 학생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돈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대부분이 박사과정에서 받는 돈은 학비 내고 생활하면 딱 맞는 돈을 받게 되는데 여윌돈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상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킨 것이 아닌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세금 신고를 한 영역인데요. 10여 년 전에 약 4000만 원에 관련된 증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딸한테.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그 액수가 포함된 액수고 그 이외에는, 큰딸의 경우에는 연구원으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2년 정도. 그런 거지 제가 여유 있게 송금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김민전 위원 큰딸과 작은딸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런데도 사실은 큰딸은 연구원 생활을 2년 정도 하고 둘 다, 둘째 딸은 포스트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사과정보다는 조금은 더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이십니다.

○김준혁 위원 후보자님, 국·공립대학협의회 회장님을 하셨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준혁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1년간 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것 같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때 회장 하실 때 주로 국립대 혹은 공립대와 지역과 연계하는, 물론 그게 RISE도 있고 글로컬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지마는 그렇게 상생 협력하는 그런 정책 제안 같은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제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국공립대학교와 지역 간에 어떤 식으로 도시 디자인과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너무 긴장하셨는데 아까 김대식 위원님 말씀처럼 소신 있게 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대학들이 지역산업하고 연계가 돼서 결국은 지자체·대학·기업 이런 데가 같이 영역야 지역특성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RISE 체계에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서울대같이 모든 분야를 다 발전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특화 산업을 위주로 아주 그 분야만은, 특정 분야만은 세계 수준의 내놓을 수 있는 구조를 갖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역거점대학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령 충남대, 부산대, 충북대, 전남대 이런 주

요 국립대 말고 다른 국립대학 교수님들께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성명서를 내신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해당되지 않는 국립대학의 발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정확하게 RISE 체계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중심대학, 그러니까 다른 국립대학들이지요. 지역중심대학이라든지 국가중심대학 그리고 사립대 포함해서 RISE 체계에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지금 희망하고 있고요. 제가 아직 장관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소신은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교육의 제일 핵심은 뭐 줄 아십니까? 바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김준혁 위원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외가 없어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김준혁 위원 이 점을 꼭 새기셔서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태 위원 아까 논문에 대한 IRB 자료는 방금 전에 잘 받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논문을 보다 보니까, 여태까지 후보자님께서 설명한 답변 자료에 따라서 들어 보면 두 가지 실험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두 가지 실험입니다.

○김용태 위원 따로따로 측정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따로따로 측정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이 IRB를 보니까 제목도 ‘불쾌글레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계 연구’고 이 실험방법을 보니까 하나의 실험에서 똑같이 피실험자들이 불쾌글레어와 피로감 따로따로 설문조사한 것을 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따로따로 평가를 한 겁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실험은 하나였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마치 실험을 각각 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가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각각의 실험이지요, 그게.

○김용태 위원 지금 학술적인 의미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의 실험에서 불쾌글레어도 지표를 따로 평가하고 피로감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시간차는 두고……

○김용태 위원 그런데 이것을 후보자께서는 연구자 입장에서 두 가지의 실험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두 가지 실험입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데 여기 평가방법에 보면 ‘피험자는 광원을 직시한 후 연출 변화 유무에 따른 불쾌글레어와 그에 의해 발생하는 피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실상 하나의 실험에서 두 가지를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 논문을 발전시킨 정00의 학위 논문에는 불쾌글레어와 피로감을 같이 인용해서 썼습니다. 사실상 이 연구 취지를 봤을 때 이렇게 학위 논문에 불쾌글레어와 피로감을 같이 써서 논문을 내는 것이 연구윤리에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논문을 쪼개 가지고, 가령 하나의 실험에서 극단적으로 열 가지 지표가 있으면 논문 10개 내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실험마다 다릅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10개의 지표를 뽑아낼 수 있으면 10개의 학술논문을 내겠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실적도 쌓고 연구비도 쌓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연구 쪼개기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불쾌감은 국제적인 지표로 반드시 체크해야 됐었고 저희가 산업부 과제로 실제적인 오피스 공간 인가를 개발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피스 공간에서 불쾌글레어는 불쾌글레어대로 지표가 반드시 필요했고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는……

○김용태 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맞춰서 할 거면 실험을 따로따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닙니다. 같은 공간이어야지요, 그 취지에 맞추더라도.

○김용태 위원 같은 공간에서 하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래서 자극량은 얼마큼이고 그것에 따른 피로감은 어떤 건가를 측정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태 위원 불쾌글레어와 피로감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제자에게서는 학위 논문에 같이 쓰셨잖아요, 그 두 가지 지표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러니까 굉장히……

○김용태 위원 이게 더 학술적으로 맞는 방향성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러니까요, 그……

○김용태 위원 결과적으로 학술논문을 쪼개는 것 아닐까요, 연구윤리로 봤을 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러면 극단적으로 열 가지 지표를 뽑을 수 있으면 열 가지 논문을 쓰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것은 경우마다 다릅니다. 다 합칠 수도 있고 다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이따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민정 위원**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 예산 문제가 모두의 고민일 수밖에 없고 어떤 청사진을 보여 주실 건가가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이게 교육부가 단독으로 드리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도 그냥 단순히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을 키운다 이게 아니라 그 국립대가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산업은 어떤 분야가 가장 특화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학교를 시작으로 하긴 하지만 거기에 연구기관도 붙어질 것이고요 산업도 받쳐 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정주여건도 만들어지고 때로는 공공기관까지 오고 이렇게 되면, 지금 그냥 제가 꼽아만 봐도 과기부나 산자중기나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곳들이 같이 들러붙어야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취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려면 범부처 차원에서의 TF가 됐든 특위가 됐든 뭔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좋으신 의견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부처가 붙어야 될 사업이라고까지는 확대를 못 했고요, 지금 제 상황에서. 저는 총장으로서 특히 연구단지 내에 있었던 총장이었잖아요. 충남대학이 과학연구단지에 있어서 제가 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 출연연하고의 담 허물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거점국립대는 연구 역량이 커져야, 그 지역 산업도 특화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정부 출연연과 학생도 같이 공유하고 교수진도 공유하고 논문도 같이 써야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사실은 제가 글로컬 신청하기 위해서 NST 정부 출연연 전체와 충남대가 협약을 파이프라인을 맺어서 플랫폼을 만들고 교수를 같이 뽑고, 물론 과기부가 협조해 줘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NST 산하의 모든 정부 출연연이 다 동의해 주셨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 경험이 충남대 총장 시절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저희가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충남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를 살펴보시면서 어디를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야 된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저희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반대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지금은 너무 그냥 안갯속에 있습니다. 그냥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빠르게 정확한 청사진을 좀 제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민정 위원님 말씀에 좀 더 이어 간다면 우리 장관님들, 저도 3선 국회의원인데요. 인사청문회 때는 굉장히 위원님들 말씀 경청하다가 장관님만 되면 하여튼 입법부를

좀 무시하고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장관후보님은 장관 되시면 안 그러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국토균형발전 또 학령인구 또 인구소멸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잖아요. 거점대학교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입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우리 여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꼭 경청하시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뿐만 아니라 거점대학교와 거점공기업의 산업구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연구해서 우리 입법부에 도움을 좀 많이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후보자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을 다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영어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원이기는 하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공교육 내에서 영어교육이지요. 공교육 내에서 영어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혼선이 없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유치원 단계에서 공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영어교육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해 나갈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것은 조금……

○서지영 위원 영어유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하셨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정정하겠습니다. 그것 역시 신중히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들어 보고 해야 되지……

○서지영 위원 후보자님의 생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물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후보자님의 교육철학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물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이 자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 능력 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저는 후보자의 역량과 교육철학에 대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후보자가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 취지가 무엇인지, 유치원 단위에서 공교육 형태로 영어교육을 도입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신지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검토하겠습니다. 사교육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자라는 취지로……

○서지영 위원 그러니까 영어유치원에 대한 질문에서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단위에서 공교육의 형태로 영어교육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하시고 추진하시고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좀 더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은 됩니까?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면서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공교육을……

○서지영 위원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사교육을 줄이고 가급적……

○서지영 위원 그러니까 공교육의 형태로 유치원에서 하시겠냐고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신중히 계속 검토하실 거면 장관을 왜 하십니까? 본인의 입장과 철학을 묻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교육 분야는 국민적 합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결정해야 되는 분야라는 것을……

○서지영 위원 그러면 초등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아이들은 다 어릴 때 연구하러 가서 가지고 또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잘했을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기유학 보내셨잖아요?

자, 초등 영어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 얘기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요즘……

○서지영 위원 그것도 신중히 생각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후보자의 생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문에 아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제 이력에서 굉장히 독특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력입니다. 그것은 정권과 이념에 맞춰서 제가 수용을 한 거고요.’, 정권과 이념에 맞춰서 어떤 수용을 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그 이념, 그러니까 전국이 골고루 잘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서지영 위원 국토균형발전이 이념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요, 정책이지만 성격이 들어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지영 위원 정권과,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당이었겠지요. 본인이 생각한 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조정훈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서지영 위원 미리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조정훈 위원 저는 지금 하루 종일 이어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그러셨고 민주당 위원님 몇 분도 청문회가 논문 검증 이런 도덕성뿐만 아니라 역량 검증을, 정책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게 지켜보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고 있는데 답변은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검토하겠습니다입니다. 저는 이것은 처음에는 좀 아휴, 준비가 안 됐구나 그냥 웃어넘기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좀 화가 납니다.

장관후보로서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본인을 임명한 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갖고 있으니까 오늘만 넘어가서 장관 되면 그때부터 내 발톱을 드러내겠다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겠는데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저 같으면 영어유치원 빨리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어요. 다만 이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영어유치원의 과열 경쟁은 다들 걱정을 하는데 지금 장관후보가 제가 장관 취임하면 영어유치원 다 정리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잘못 쫓을 때 또 굉장한 혼란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관후보가 신중히, 특히 교육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진숙 후보님, 소신이나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자신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그널이 우리 교육계나 수험생이나 크게 혼란을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그 생각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른 매우 원론적인 그냥 자기의 소신 정도는 한번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라면 답변을 하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잘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좀 취지를 아시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선의로 얘기해도 이 장관이라는 무게감 있는 후보의 말 한마디에 또 교육계가 들썩들썩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기는 있지요.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김영호 예, 저한테 말씀 주세요.

○조정훈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하는 것 그렇게 토를 안 다는데 그건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늘 청문회의 내용과 관계없이 장관이 될 거라는 큰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문회가 고민정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왜 단정하냐고 하셨지요? 저 백번 양보해서 그러면 단정하지 말아 봅시다. 그러면 저 후보가 교육부장관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자격이 없으면 민주당 위원님들도 자격 없다고 동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판단을 할 수 있는 계제가 없어요, 지금.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교육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정도의 충격적인 답변이 아니라면 소신이나 원론적인 이야기라도 자기의 교육철학을 밝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순서는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후보자님,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앞서 질의에 많이 나와서 넘어가고요.

이번 대선에서 스승의 날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님이 공무원으로가 아닌 시민으로 행한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행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근무시간 외 또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공약으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또 하나 공약이 뭐냐면 교권 보호 강화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 강화 또 과도한 민원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화 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올해 또다시 한 분의 선생님이 악성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비극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 전반에 있어서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패한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교육부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초중고 99.9%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제주 중학교 사건을 통해서 교권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제주도 방문을 했었고 교육감님도 뵈었는데 전혀 이 민원 대응체계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재작년에는 5050건, 작년에는 4234건, 매해 4000~5000건가량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국회에서 민원처리 지원 강화법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지원법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아직도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지원 강화법이 6월 21일부터 시행인데 교육부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크고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겠다, 불안해서 갈 수가 없다 이런 현장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교육현장의 시급한 과제인 교권보호 강화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어떤 계획과 실천 의지를 갖고 계신지 지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교권 강화는 굉장히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고 너무 많이 아픈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또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환경도 개선해야 될 환경도 많습시다만 일단 민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민원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감당하는 형태로 그리고 어떤 체계 속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구의 일원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조기 개입을 하고 그것을 일이 벌어질 때까지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 조기 개입을 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법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아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하겠다고 계속 몇 년째 궁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 제가 받고 있는 민원 사례들을 보면 민원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요.

지금 학부모님이 찾아오셔서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할 때 먼저 맞으셨는데 교장선생님이 담임교사를 불러서 대면을 시켜요. 그러니까 민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그 악성 민원자에게서 교사를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대면을 시키고 니가 해결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현 관리자들의 대부분이, 뭐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대부분이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학교에서 다 민원대응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 전수조사해서서 교육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알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서이초 비극적인 사건이 있는 뒤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게 별로 현장에 체감되지 못한 것 같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제주도 교사 사건도 일어났었고,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알았는데 교육부에서 그런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방안을 9월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이 실제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현장의 의견수렴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육부는 다 잘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현장에 직접 가서 발로 뛰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님, 백승아 위원님이 교권 회복을 상징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이시고요. 다음에 정성국 위원님이 또 교권 회복을 상징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십니다.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가 공정하게 합니다.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이 오늘 너무 진행을 잘하셔서 가지고요.

○위원장 김영호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정성국 위원 후보자님, 자녀를 유학 보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쉬운 내용을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두 자녀를 유학을 보내시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고등학교 시절을 국내에서 하는 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저는 제 아들딸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1명은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 1명은 학종 시스템으로 가서 제가 학부모로서 입시 현장의 치열한 모습들을, 수능으로 가야 되는 아이들의 마음과, 정시 그리고 수시로 가야 되는 아이의 마음을 직접 겪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배우자와 함께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 시스템을 학교나 선생님이 알려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학부모가 정확하게 입시요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 아이의 진로를 잘못 정해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그 고등학교 3년 시간은 학부모로서 가장 힘들고 정말 무거웠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두 자녀를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보냈다는 그 이유가 그냥 그 자체로서 귀족교육이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후보자님께서 유·초·중등 경험이 없더라도 학부모로서라도 학교 현장의 모습을 겪었다면 훨씬 더 교육현장을 이해하는 데 좋았을 것이고 이해도가 높았을 것인데 그것조차 없다는 것도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소신껏 말씀을 안 한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하시니까, 아까 국민 여러분께 적절치 않았다고 사죄까지 한 사람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뭐합니다만 물론 제가 그것을 잘한 것도 아니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오히려 또 어떤 면으로 보자면 다른 환경의 아이들이 그런 경쟁을 안 겪으면서 입시를 치르고 그다음에 대학에 가서 고등학교의 학점이 그대로 인정받고 그런 시스템을 직접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 가서 대학의 학년은 4년이 아니라 짧게 졸업할 수도 있고 그런 유연화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연계된 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국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 경험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먼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성국 위원** 그리고요 일부 극소수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교육에 접목시킨다는 경험을 했다는 부분은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말씀 중에는 끼어들지 마십시오, 후보님.

○**정성국 위원** 그리고 고교학점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말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고교학점제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고교학점제 문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은 엄청 늘어나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늘어난 반면에 그걸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최소성취 보장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보충학습까지 선생님들이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많은, 힘들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성국 위원 후보자님, 지금 고교학점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학교 현장의 고등학교 선생님들 수급 문제라든지 또 환경의 이런 어떤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좌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장관으로 되신다고 한다면 고교학점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후보자님 고생하십니다.

교육은 단지 지식과 기술 전달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고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음 PPT 한번 함께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장관 청문회에서 웬 노동자 투쟁 사진이냐 하실 텐데요. 이 사진은 바로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의 고공농성과 현장간담회 사진입니다. 이 노동자분께서는 추위와 가마솥 더위에도 154일째 지금 고공에서 생존권을 외치고 계시는데요. 단순한 노사분규의 현장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사학의 하나인 세종대학교가 100% 지분을 소유한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복직, 생존권 투쟁 현장입니다.

사학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가 공익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에 후보자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이 사안을 들고나왔는데요.

세종대는 현재 별개의 법인이라는 핑계로 이들과의 면담도 거부하고 오히려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교육기관이라면 수익용 재산의 운영조차도 교육의 공공성, 공동체적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세종대 법인의 행태는 반사회적인 반교육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을호 위원 그리고 제안을 드리는데 후보자께서는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한번 고공농성 현장을, 노동부장관은 아니시지만 사학의 한쪽이니깐 한번 함께 방문하실 것을 제안드리는데 가능하실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교육부 그다음에 사학 산하의 기관이라면 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 다른 분들에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수익사업체라도 그에 복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사유화하고 장기 미사용 토지를 교육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탈세하는 등 재산과 관련된 사학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국고지원 축소 등 관련해서 후보자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사실은 강도 높은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 한데요. 이런 부정비리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라든지 이것들을 집행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조심스러운 게 입법이라든지 이럴 때 또 선의의 학교 구성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을호 위원** 추상적으로 말씀 주시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교육자로서 사학의 수익용 재산 운영실태 점검하고 사학이 외면한 세종호텔 노조원 생존권 투쟁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후보자가께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후보자님,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는 당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 봤어요. 오늘 청문회에 굉장히 관심이 지대하더라고요, 국민주권정부니까요.

그런데 지방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향상시킬 방안, 학벌주의 완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방대 구조조정 방안, 학벌주의 문제, 현재 지방대 위기 문제가 심각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지 또 인재들이 거의 의대 지방만 하는데 균형 있는 발전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학벌을 타파하고 어떤 면에서는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토끼를 잡는 거예요, 두 가지 토끼를. 좋은데 그런데 서울대 공화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의대 공화국인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면 특정 직업군이 최상위 인재를 독점하게 되는 거여서 이것은 건강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상당히 침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공계 인재도 굉장히 필요한데 의대에 굉장히 집중하게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나온 것이 7세 고시반, 4세 고시반이라는 말도 나오고 초등 의대반도 나온 것이예요.

그만큼 사교육이 늘어난 것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일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 책임 교육, 보편적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수월성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덩치크 같은 것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AI 교육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두발언에서 네 가지 정책목표 중에 세 번째가 AI 교육혁신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AI 융복합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해서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런 패러다임을 변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추상적인 선언적 수준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예요.

장관님이 되시려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이 입안돼야 되고 그것이 유효돼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현실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정치력도 굉장히 따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장에서 AI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교육과정에서 비추어 보면 어떤 과목을? 붕 뜬 얘기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일단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AI 역량을 키울 수 있는 STEAM 과목을 줌……

○강경숙 위원 STEAM 교육, 어떻게요? STEAM 교육, 예를 들어서 과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수학, 과학, 미술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떻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것들을 교육과정에 넣어서 운영을 해야지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수학과 과학교육이 있는데 정보교육이라는 것 있는 것 아니냐요? 정보교육이 지금 몇 시간 있는지 제가 물어보면 너무 사지선다형이 될까 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68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정보교육에서 사실 AI 이해, AI 활용, AI 융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정되지 않으면 AI 교육 어렵습니다, 초중고 단계에서는. 물론 고등교육으로 가면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요. AI 활용만이 아니라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부터 탄탄하게 그런 기제가 마련돼야 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이 굴러가는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4년 2025년 두 해 연속으로 국가 R&D 예산이 전년 대비 2024년에는 -16.6% 2025년에는 14% 삭감되면서 현장의 이공계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연구비 부족과 생활비 공백 그리고 프로젝트 중단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문정복 위원 일부 연구실은 조교 장학금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실험실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이공계 고급 인력 유출이 국가 기술경쟁력의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큰데요.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등 국가전략기술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어떠한 제도적 혜택을 주실 수 있을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런 학생들은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비 지원까지 하지 않으면, 그런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생활비 지원까지 하려면 예산이 문제인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BK 쪽에도 집어넣고, 그래서 BK 쪽도 AI 융합 쪽이 들어가서 좀 더 강조가 된다면 그런 여지가 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정복 위원** 지금 대학교에 내려가는 여러 가지 글로벌 사업, RISE 사업, BK21 사업, 대학혁신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용처가 중복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 면밀히 살펴서, 특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서는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박사 후에 연수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박사인력 커리어 패스 지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위 이후의 R&D 생태계를 보살필 필요가 있는데 어떤 구상이 혹시 있으실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총체적인 어떤 구도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거점대들이 R&D 특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연연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박사후연구원들이 거기에서 토양을 잡고 지역에 남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정복 위원** 우리 대학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인문학이 죽고,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이공계가 죽고, 공부 잘하는 모든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인문학 부활, 이공계 부활 그리고 의대정원의 합리적인 재구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차 추가질의지요.

마지막 순서, 조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아까 이어서 소신 발언하시겠다고 하니 좀 기대를 갖고 질의합니다.

입시를 경험해야 되는 학부모들, 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우리 입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여러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정훈 위원** 한 가지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무래도 자녀가 원활하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 내내 경쟁구도 안에서 힘들고 또 대학입시 자체가 서열화로 인해서 본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그냥 1페이지에 쓰는 말이고요. 진짜 입시 해 보면요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어떻게 진학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학원을 다녀야 될지, 사교육 그리고 입시하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백번 양보해서 안해 보셔서 그냥 뭉뚱그렸다고 받아들이게요.

사교육이 문제라는 건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조정훈 위원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25조.

○조정훈 위원 29조예요. 105조 국가예산에 29조 쓰고 있습니다. 사교육 없앨 방법 뭐 한 가지라도 있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이재명 정부의……

○조정훈 위원 아니 본인의 소신, 이진숙이 교육부장관되니 사교육이 좀 줄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뭐 하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진짜 큰마음으로 동의해 드릴게요, 장관 임명. 뭐 있으세요, 사교육 막는 방법?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

○조정훈 위원 이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사교육을 막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좀 허탈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보면서, 이따가도 질문 이어 가겠지만 후보님, 제가 얘기한 게 이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입시가 얼마나 치열하고 잔인한지.

그리고 아까 교육격차 말씀하셨지요? 맞아요. 재원이 있고 특히 엄마가 입시제도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길을 찾아 줍니다. 후보님 같은 분이지요. 사교육까지 불법 조기유학까지 시키셨으니까. 그렇지 않고 맞벌이하고 혁혁대는 분들은 뒤처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를 보고 느꼈을 감정,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니에요.

내가 미국 유학 보내 봤기 때문에 미국 시스템이 좋은 것을 아니까 한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 하려다가 시도 여러 번 해도 망가진 것들 많아요. 그냥 너무 쉽게 미국 제도 한국에 도입하겠다 이런 말도 좀 하지 마세요.

정말 후보님이 이재명 정부에서 찾은 가장 좋은 교육부장관후보라는 게, 미안한 말입니다.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의 추가질의를 마지막으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20시에 속개하면 되겠지요? 여야 간사님끼리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0시에……

○조정훈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조정훈 위원 제가 오전에 계속 요구했던 자녀 유학비 자료……

○위원장 김영호 그것은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고요. 제가 식사 끝나고 다음 속개할

때까지는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으니까요 좀 기다려 주세요.

○조정훈 위원 국회에 제출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일부가……

○조정훈 위원 제출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저한테 질문하셔야지요.

저희가 일부 취합이 됐고 완성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조정훈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왜 안 주십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요, 지금 일부 취합이 되고 있다고요. 그게 완전히 완성이 돼야지 배포가 되니까.

○조정훈 위원 국회에는 보내신 거예요? 국회에 보내셨냐고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것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간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행하고 있다니까. 왜 제 얘기를 안 들으세요, 답변을 드리는데?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20시 속개할 때 하여튼 최대한 그때 다 자료제출을……

○조정훈 위원 저희한테도 분석할 시간을 주셔야 되니까.

○고민정 위원 저희도 안 받았어요.

○조정훈 위원 그냥 로테이터를 주십시오, 저희도 분석할 만한 능력은 있으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2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진선미 위원님이시고요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아까 저녁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드렸고 일부 자료가 와서 저희가 검증했고 추가 질의를 요청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아까 보내 주신 자료가 두 자녀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자료, 저는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오후 발언하실 때 또는 서면답변에도……

○위원장 김영호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조정훈 위원 예.

학사와 석사까지 지원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내 준 그 자료에는 학사 자료

그리고 고등학교 자료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도 8학기가 상식인데 한 자녀는 6학기, 한 자녀는 7학기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 시절에 전액 장학금을 받았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유학비를 지원했으면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전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짐작하건대 후보 측은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위원장님실에서 아마 검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희 의원실에서요?

○조정훈 위원 예.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받으셔서 전달해 주시면 되지 이것을 검증하고……

○위원장 김영호 아니, 제가 그건 처음 듣는 얘데요. 제가 검증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받으면 바로 전달해 주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저희 각 위원이 또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면 개별 의원실에 전달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장 김영호 다만 취합을 해서 공정하게 전달이 되려면, 타이밍이라는 건 있지요. 온 사람부터 하나하나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모임이나 위원님들이 모였을 때 일괄 배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지 오는 사람 순서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타이밍의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세요. 의도적으로 저희 위원장실에서 어떻게 혼자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이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아까 유학 관련된 송금 문제는 조정훈 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아까 김용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마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모두 다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배포를 하는 원칙같은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신 것 같아요.

○조정훈 위원 그래서 후보계도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주신 말씀은 들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 관련한 답변을 문서라도 위원장실이나 두 간사님에게 드리세요, 그 입장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미 석사까지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다만 저는 아직 그 자료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국무위원 후보 자녀들의 유학 관련된 송금 문제를 공개한 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개는 후보자가 당연히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고, 이 송금 문제가 공개됐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투명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송금을 했겠지만 그 금액에 대한 문제 특히 미국 유학생들, 김민전 위원님이나 유학을 해 보셨잖아요. 아마 유학금의 생활비나 그런 것은 한국보다도 훨씬 비쌀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을 아마 감수하면서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님이 유학금을 자녀들에게 보내 드린 투명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시되 유학금의, 미국에서 유학해 보셨잖아요. 미국이라는 곳이 한국 등록금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공세를 하는 것은 후보자가 제출한 의미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과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김민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국 유학생 출신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유학할 때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어요. 위원님들은 다 미국에서 유학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테니까 그것을 적정히 감안해서, 성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꼭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결이 있다, 그리고 유학금을 마련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신랄하게 비판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서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들 미국 유학을 안 가봤잖아요. 그런 데서……

○**조정훈 위원** 미국 정서에 맞출 필요는 없고 미국 현실을 고려하겠다 이거지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요 그러니까요. 정서는 알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의 일반 학비와 유학에 대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감안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지요.

말씀 주세요.

○**김민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 유학의 경우 박사 유학과 학사 유학 그리고 고교 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박사 유학은 대부분이 다 돈을 받고 가서 생활비와 학비를 대부분 거기서 받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돈 안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학부나 고교의 경우에는 다 집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다 하나의 유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럼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는 그럴 수 있지만 석사도 그런가요?

○**김민전 위원** 석사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박사는 대부분 다……

○**위원장 김영호** 그렇지요. 박사 정도만 어느 정도 장학금이나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말씀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딸의 경우에 학부 재학 학기가 4년이 아니었고, 아까 고교학점 얘기하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녀의 경우는 3학년 그다음 차녀의 경우는 3년 반 이렇게 좀 달랐습니다. 조금씩 빠르게 졸업을 했고요. 석사의 경우도 1년 반, 2년 이런 식으로 돼서 학기가 딱 맞지 않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후보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는 게 이번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봤습니다.

○진선미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교육권 보장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추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국비 지원 확대 이런 내용으로 공약집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의원실에서 이 법안을 장애인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정부, 그러니까 교육부와도 계속 논의를 해서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 놓은 상태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분리 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우려도 없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장애인분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장애인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장애인의 특수성이 보다 더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예산도 좀 반영하고 이럴 생각이 있으신가 여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말씀하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저도 교육위는 작년에 이번 국회에서 처음 하게 돼서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장애인평생교육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교육위원장님들이 다 발의하고 공청회도 거치고 이렇게 죽 진행이 됐는데 그게 일부 이견이 있어서 통과가 못 된 상태에서 저희가 또다시 발의를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다 이견들을 조율해서 만들고 또 조율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본예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예산액 편성을 할 텐데 그 과정에도 이 내용들이 좀 담기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후보님, 야당 위원님들이 자녀 두 분에 대한 해외 유학비 송금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박성준 위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를 기숙학교에 보낸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리고 미국에서 둘 다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리고 남편분은 학교 교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두 분이 교수직에 있으셨고 그러면서 두 딸은 미국에 유학,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총 한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지금 석사까지는……

○박성준 위원 석사까지 한다고 하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4년 4년 2년, 약 10년 정도……

○박성준 위원 10년 정도. 그러면 두 따님이 10년 정도 미국에 있으면서 유학비를 보낸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가 아이들 교육시킬 때 유학비 보내는 건 당연한 건데 보통 전임 장관들 같은 경우에 자녀들을 보냈을 때 유학비 보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개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투명성이라든가 자녀 유학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공개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습니다.

○박성준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야당 위원들이 유학비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이걸 왜 공개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타당한 거냐에 대한 의문도 저는 좀 있어요.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데, 두 분이 현직 교수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하고 아이들 교육에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재산 형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든가 집을 2채 3채 4채 팔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또 남편분이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만 돈을 번다든가 이런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 유학을 보냈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타당한데, 두 분이 엄연히 대학 교수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유학비를 보냈고 또 재산 형성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입증된 건데 나는 왜 야당 위원들이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공개하라고 하는지 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과연 그전에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그 장관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그 장관후보자들의 재산 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 가운데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

○박성준 위원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렇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자료제출은 저도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거기에 협조를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진숙 후보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대식 위원 힘드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대식 위원 지금 ‘이진숙 후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참 딱하다’,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딱하다’ 이랬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

○김대식 위원 소신껏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소신껏.

하나만 제가 정책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AIDT 교과서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대식 위원 지금 지난번에 민주당 위원들의 반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것이 물거품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제 법사위를 통해 본회의의 통과가 남아 있지만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AIDT 교과서 이것 한번 1년 정도는 사용해 보고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이미 이 교육위에서 결정을 하셨고 또 앞으로 법사위 통과를 남겨 놓고 있으니까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결정이 되면 충실히 그 뜻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대통령을 설득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가 소신껏 1년 한번 써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한번 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공약을 세우셨겠고 또 교육위에서도 충분히 고민하신 내용이라고 사료되어서 그렇게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본인은 지금 국회에서 되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가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위원님들의 또 입법기구인 국회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애초에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장관이 됐을 경우에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그런 면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원래 이 AIDT가 소외계층 교

육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시골 그다음에 인구소멸지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을 펼쳤던 건데 아쉽게도 이것이 좀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신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 또 그 정해진 뜻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후보가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보다 김대식 위원님이 저희를 설득하는 것이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냥 김대식 위원님에 대한 신뢰를 제가 표현한 것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자녀들 유학비를 보낸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모가 소득이 없는데 유학을 보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럴 때 이거를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 되는 건데 두 분이 교수고 그 정도 소득이 돼서 유학비를 보냈는데 유학비도 보니까 연간 한 1억, 그러니까 한 자녀당 5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숙학원들도 한 달에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자기 자녀들 기숙학원 보내면 우리나라도 지금 삼사백 듭니다.

○**김민전 위원** 재수하는 것 말씀이지요?

○**김문수 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수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강남의 좀 부유하신 분들은 교육시킬 때도 1년에 1인당 한 5000만 원씩 쓰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물론 일반 우리 보통 사람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참 부담지요.

그런 면에서는 공교육을 담당해야 될 교육부장관후보로서는 우리 서민들의 이런 삶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고 공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걱정은 있지만 교수 부부가 자녀들 미국에 보내는데 두 자녀에 1년에 1억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없을 때야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보냈어? 이상한데, 공개해 봐’ 이게 요구사항이 될 수 있지만 ‘당연히 번 돈으로 보냈겠지’ 이 상식적인 걸 가지고 왜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과도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이해는 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없는 가난한 서민 위원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의대 사태 관련해서 지금 해결을 어떻게 하시고, 특히 우리 전남 지역이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지역입니다. 그래서 순천대·목포대 통합의대 해 달라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먼저 전남 지역의 의대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역이 어디가 됐든 국민은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함

니다. 전남 지역의 의료여건 개선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가 추계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복지부 소관 의사인력 추계기구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해서 이러한 취약지구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의대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의대생들이 다행히 복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또 조속히 의료인력 양성체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대마다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나 학사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절대로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김문수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의 돈을 보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님 말씀이 미국 교육을 경험했기에 미국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초기에 하셨고요. 그리고 미국의 좋은 점으로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8학기를 다 하지 않고 학점을 웨이브(waive) 받아서 7학기, 6학기만 다닐 수도 있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 교실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고교학점제인데요. 이 고교학점제가 미국의 AP제도를 변형시켜서 들여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누가 AP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AP제도를 경험하고 그것이 마치 좋다고 한국 교실에 들고 와서 한국 교실에서 학생들은 여기에 적응할 수 없고 교실도 혼란하고 교사님들도 혼란하고 학부모님도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제도를 정말 쉽게 가지고 온다는 게 얼마나 위험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고교학점제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굴이 어디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저는 환경에 맞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다른 나라에서 성공했다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 드리겠는데요.

후보님 논문을 보니까 144개 논문이 인간 대상 실험을 한 논문이었습니다. 인간 대상 실험이었는데 대부분 이 실험자는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생명윤리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또 그 대상 실험에 대해서는 IRB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규칙에 따라서 모았습니다.

○**김민전 위원** 건축학과 학생이나 대학원생도 있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같이 포함했습니다.

○**김민전 위원** 건축학과 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 인간 대상 실험

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윤리 기준 중의 하나가 자발성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학과 학생에게 ‘와라’ 이렇게 했을 때 안 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제삼자 입회하에 자발적 동의서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혹시 쓰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동의서는 다들 썼습니다.

○김민전 위원 자발적 동의서, 제삼자가 입회해서. 이것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삼자가 입회하지는 않았고요. 자발적 동의서는 다 썼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험 대상이 될 때는 동의서를 써야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수관계에 있을 때는 제삼자의 입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위력에 의한 실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일종의, 교수가 갑질로 자기 학생을 실험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삼자의 입회가 필요한데 그런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동의서는 있었기 때문에 IRB에서 승인을 해 줬던 거고요. 모집 공고를 했고 관심이 있었던 건축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 거고, 아무래도 같은 과에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로는 여러 가지로 관심이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IRB에서도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승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민전 위원님께서 미국의 AP제도를 바로 가져올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저 그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는 그것을 한국에 바로 도입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도 큰 경험이었다, 그 모든 것들이 교육의 방향을 넓게 이해하고 선진 사례로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겠다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후보자님, 저희가 좀 늦은 시간까지 계속 검증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논문 표절, 가로채기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들이 어찌 보면 소명 기회를 준 건데 이게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나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너무 감싸주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 언론에서는 ‘파렴치한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은 김건희 씨 논문과는 별개의 좀 다른 학문적 영역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제가 했던 내용 중에 제자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관련해서 그것을 먼저 사

전에 논문을 낸 것이 가로채기가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제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마치 이 논문은 내가 쓴 것이기 때문에 제자가 쓴 것이 아니라 박사 논문이 취소될 수도 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검증단의 한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번 문제에서 제일 심각하게 본 것은 제자들의 학위 논문을 자기 논문인 것처럼 그 학술지에 게재한 것, 표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더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자의 학위 논문을 교수가 제1 저자로 써 버리면 어떻게 보면 제자는 그 논문을 자기가 쓰지 않았다고 자백하는 셈이 된다. 논문을 교수님이 대신 써 줬습니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 논문을 들고 가서 어디에 취직을 한다고 하면 법적 문제가 안 생길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제자의 학위 논문이 박탈된다.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중의 피해자가 된다’.

이게 논문 가로채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의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검증단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민주당 위원들, 아까 저는 충분히 이공계의 학문적 특성을 다 이야기하고 이해를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명쾌하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또 명쾌하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저는 국민검증단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해서 끝날 때까지 이것은 다시 논의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앞서 소명 기회를 주고 많은 위원님들이 소명 기회를 줘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지적하신 부분 오늘 여러 번 또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해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오해가 있는 지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과 저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고 이 내용 중의 일부 내용을 제자가 학위 논문으로 발전시키고 또 그 일부는 별도의 논문으로 작성하면서 지도교수이자 책임자였던 제가 제1 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제자가 자기가 논문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는 그 논문을 또 발전시켜서 자기의 석사나 박사 논문으로 만들어 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검증단이 지적하시는 표절이나 가로채기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비록 완벽한 연구자는 아니었지만 저희 제자들과 저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학계 검증단 교수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 하신 거지요?

국민검증단이 주신 말씀에 동의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데 정말 전문가 그룹 또 같은 학자들이 지금 주신 말씀을 고개를 끄덕 끄덕하면서 이해된다 동의된다 이 정도 돼야지 이 문제가 사실 해소되는 거잖아요.

아마 여야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김민전 위원님은 학자 출신이시니까 우리보다 이해

도 더 높지만 사실 이게 학계에서 좀 동의를 해 주시면 정말 말끔히 해소될 텐데 그런 부분이 내일 청문회가 끝나면 또 어떻게 여론이 형성될지는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수많은 논문이 있지만 다른 것은 표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카피킬러 돌려서 10%가 나왔니 50%가 나왔니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좀 다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김준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이것이 지금 사회적인 공론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정확하게 지금 해명을 해야 된다, 이것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적인 공분을 살 수 있고 많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의 이런 의구심을 살 수 있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해소해 줘야 이진숙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더라도 떳떳하게 교육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만 저희 여야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후보께서 지금 소명을 하신 거거든요. 소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야 위원님들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사실 저희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학계의 판단이 또 따라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교육부 산하라도 연구재단 같은 곳에서 특별한 기구가 나중에 만들어져서 이런 사회적 논란이 있는 논문을 빠른 시간 내에 검증하고 매듭지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요.

하여튼 이진숙 후보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숨기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모든 것을 지금 다 밝히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판단이,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판단이 100% 맞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조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진선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진선미 위원** 예.

모처럼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여야가 다 요구하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위원장 김영호** 그래요?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너무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정확하게 지금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의 핵심은 지도교수가 제1 저자라는 사실로 그것과 관련된 박사학위든 석사학위든 그 학위를 받은 분들이 본인이 안 쓰고 지도교수 것을 베낀 것처럼 돼서 학위가 취소되거나 다른 기업 같은 데 가 가지고도 그 부분들이 무시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우려가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잘 들으셨지요?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게 되면 만약에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석박사의 논문을, 발전시켜서 석박사의 논문으로 완성시켰을 때 그것이 또 표절 시비에 휘말려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선미 위원 제가 교육부에서 받은 게 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오전에 제가 연구재단 지침을 3개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이유, 제1 저자가 문제가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제자 논문 가로채기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표절이 아닌 이유 또 논문 중복 게재가 아닌 이유를 다 연구재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지침을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저희가 논문을 작성했던 거고 그리고 해당 학회에서 모두 문제없다라고 판정을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연구윤리를 전공하신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고요.

그리고 제가 1 저자인 논문이 제자 논문으로 발행된 것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남대학교에서는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쓴 논문이 있어야만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대학이 많이 있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래서 지도교수가 논문을 써서 취소가 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고요. 이럴 때 제1 저자를 누구로 하느냐는 또 다른 규정으로 그거는 연구자들이 같이, 그거는 학위 논문에 대한 논문으로 연구자들이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를 수행했던 그 당시의 기여율을 생각해서 기여도를 생각해서 1 저자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설명을 정확히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대해서 2016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설명한 예를 보면 ‘이공계의 경우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위 논문이 나올 수 있다. 학위 논문 제출 이후 이와 유사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때 학위 논문의 저자인 대학원생이 저자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문에는 제자가 다 같이 공동저자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나름 단호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의사진행 속에서 답변인데요, 잠깐만요.

일단은 진선미 위원님께서 처음에 의사발언을 하셨는데 한번 짧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강경숙 위원님이 해 주셨고 김민전 위원님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서는 그래요.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정복 위원 아니요.

○고민정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3분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건데……

○위원장 김영호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예, 할 의미가 없고요. 자료제출만 받으시고 의사진행발언은 자기 질의 시간에 하시는 걸로.

○위원장 김영호 그럴까요?

○김민전 위원 금방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예외인데 너무 신청자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진선미 위원님 한 분 하셨으니까, 그런데 야당이 둘이에요.

○김민전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나가고 나면 또 헛갈려요.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가 되어야 안 헛갈리지.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정복 위원 그것 질의 시간에 하시라고.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분 하셨으니까 이제 야당 위원님에게 기회를 드리는데 야당은 두 분이잖아요. 두 분인데도 학자 출신들에게만 일단 드릴게요. 그러면 강경숙 위원님과 김민전 위원님께만 대표성을 우리가 인정해서, 동의해 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같은 학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서, 그러시면 강경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그다음에 김민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일단은 범학계 국민검증단에는 이공계 교수님들이 함께 합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첫 저자하고 교신저자에 관한 말이 지금 옥신각신하는데요. 그 기여도에 따라서 당연히 협의하에 할 수 있는데 교수가 1 저자로 한다고 먼저 의사를 밝혔을 때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교수님. 내가 제1 저자 해야 되지요, 저도 같이 썼으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그래서 자꾸만 아까 김준혁 위원님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1 저자라고 하는 것은 오소리티(authority)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권위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기여를 얼마큼 했는지를 다 퍼센티지로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교수가 학위 논문도 쓰고 그렇게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니까 제1 저자를 보통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 부분을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은 사사의 글로 쓰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학위 논문을 썼던 것을 논문으로 하거나 아니면 퍼블리시(publish)한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발전시킬 때 ‘어디어디에 실었음’이라는 사사의 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정복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신 거예요, 지금?

○강경숙 위원 예. 그것을 안 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말씀드리면……

○문정복 위원 질의로 해야지, 그것을.

○강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기억해 두세요, 후보님은.

그러면 이제……

○박성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질의하고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을호 위원 전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김민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술지로 논문을 전환할 때 학생의 이름을 안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 사실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이것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2004년 안 모 씨의 석사논문이 학회지로 전환될 때에 이 안 모 씨의 이름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이름이 완전히 빠진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학술재단에서 2016년에 나온 질의응답집을 보면……

○문정복 위원 위원장님, 이것 질의예요, 질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지금 김준혁 위원님이 시간을 쓰더라도 이것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3분 발언 하지 맙시다. 계속 그냥 의사진행발언만 해요.

○문정복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말아, 그냥.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김민전 위원 아마 진실이 두려우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문정복 위원 진실이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뭐가 진실이 두려워. 질의 시간에 하세요, 질의 시간에.

○김민전 위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검증단의 검증을 같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는 빠지시고 나머지 돌리든지.

○위원장 김영호 아닙니다. 이제 정리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걱정이 돼서 진선미 위원님이 아까 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우리 행정실을 통해서 배포가 됐는데 그 자료 배포될 동안……

언제 완성이 되나요, 자료 배포되려면?

○조정훈 위원 그냥 해요, 뭐 자료 배포는 오면 오는 거지.

○위원장 김영호 아니아니, 답변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아까 두 분……

○진선미 위원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도 같이 배포해 줘요. 그것 배포하면 저희가 제안한 자료도 같이 배포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자료 배포되기 전에 하여튼 질의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포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저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일단 질의해 주세요.

○김용태 위원 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의 질의인데요. 2018년 2월 피로감하고 3월 불

플래그글레이어에 대한 질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논문 쪼개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후보자님께서 출세를 위해서 실적을 쌓고 논문을 쪼갰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입니다.

논문 쪼개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의 연구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나 이를 몇 개의 논문에 나누어 발표하는 행위이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약물 처방을 하고서 그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10개의 데이터를 측정한 후 그중 5개는 내분비학회지 논문으로 나머지 5개는 순환기학회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가령 제가 이해하기로는 피로감은 한국색채학회, 불쾌글레이어는 조명·전기설비학회에 나누어 보낸 거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가고요.

‘논문 쪼개기는 대부분의 경우 애초에 하나의 연구로 출발하였으나 데이터가 다 모이고 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논문으로 쪼개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논문 쪼개기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 종종 발생한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따라서 연구 개시 전에 충분한 기획을 하여 IRB에 여러 개의 논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경우 IRB 승인서는 여러 개의 논문에 피조사자의 기본 정보가 중복 제시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이중 게재 시비 문제를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불쾌글레이어와 관련한 연구계획서 IRB 제출을 요청했고 받았습시다. 이 20페이지에 관한 연구계획서에 보면 어디에도 불쾌글레이어와 피로감을 따로 연구 하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의 실험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목조차도 불쾌글레이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계 연구입니다. 제목에도 피로감은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게 왜 그런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불쾌글레이어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큰 과제 속에 불쾌글레이어로 인한 피로감 실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쾌글레이어……

○김용태 위원 제가 다음 하나만 더 하고 마저 듣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3월에 제출한 불쾌글레이어와 관련한 조명·전기설비학회 연구윤리 규정입니다.

아까 색채학회 관련해서는 문정복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색채학회는 2월에 발표가 됐고 3월에 불쾌글레이어를 투고한 조명·전기설비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입니다.

4번, 첫 번째 파란색 글씨입니다.

‘유사한 연구 내용을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투고하는 것은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하면서 2장 부정행위에 제4조 6번에 원문의 재사용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제6조(원문의 재사용) ‘원문의 재사용이라 함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논문 중에 결론도 거의 유사합니다. 본문이 카피킬러 돌리면 유사도가 몇 %인지 아시지요?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명·전기설비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 내용은 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중에 같은 실험장치였기 때문에 그거는 제대로 된 전문가가 그 논문을 표절을 돌렸다면 그 부분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외하고 해석을 했을 겁니다.

○김용태 위원 그런 내용이 왜 연구계획서에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연구계획서에 그런 거를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IRB에 학술논문을 어떻게 작성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김용태 위원 글썄요. 저는 연구재단을 관리해야 할 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김용태 위원 여러 의혹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유사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김용태 위원 심지어 이 연구를 같이했던 정 모 씨 학위 논문에는 이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학생은 그거대로 편집을 한 거지요. 그러나 한 논문을 쓸 때는 정확하게 두 편의 논문에 가치가 있어서 평가 항목도 다르고 분석 내용도 다르고 결론도 다르기 때문에 한 거고 아까 결론이……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지표를 쓸 거면 연구계획서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처음부터……

○고민정 위원 이제 정리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연구계획서에는……

○문정복 위원 김용태 위원님, 다음번 질의시간에 해 주시지요.

○김용태 위원 잠시만요 처음부터 하나의 실험을 준비하고 나서 2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정복 위원 다음번 질의시간에. 다음 질의시간에. 다음 시간에.

○김용태 위원 하나의 실험을 계획하고 나서 그다음에 2개로 쪼개기 한 것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문정복 위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김용태 위원 그래서 연구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연구윤리에 맞는다고 생

각이 듭니다.

○문정복 위원 다음 시간에 해 주세요.

○조정훈 위원 계속하세요.

○김용태 위원 그런데 장관후보자가 이러한 것을 무시하면서 하는 것은 저는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정복 위원 다음 시간에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고민정 위원 그러면 그만합시다.

○문정복 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위원장 김영호 좀 정리해 주시지요. 시간이.....

○문정복 위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시간이 왜 필요해요?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시간 잘 지켜 주시고요.

○문정복 위원 질의시간이 왜 필요해요? 질의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김용태 위원 위원님들도 많이 초과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많이 초과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 언제요? 제가 언제 그랬는지 얘기해 보세요.

○고민정 위원 정도껏 하셔야지요.

(장내 소란)

○위원장 김영호 자, 정리 좀 해 주세요.

○문정복 위원 제가 언제 얘기했는지 그래 보세요.

○김용태 위원 초과 많이 하셨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만해요, 좀.

○위원장 김영호 자, 정리해 주시고요.

○문정복 위원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김용태 위원 증거요?

○문정복 위원 예.

○김용태 위원 이번뿐만이 아니라 많이 초과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갖고 오라고요.

○김용태 위원 갖고 오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예, 갖고 오세요.

○김용태 위원 의원실로 제출해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잠깐만요.

정리해 주세요. 잠시만요.

○김용태 위원 말이 많으면 사과하실 건가요?

○문정복 위원 많으면 내가 사과할게요.

○김용태 위원 하나라도 있으면 사과하실 건가요?

○문정복 위원 하나라도가 아니라 많이 있다며요.

-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이제 그만하세요.
 ○김용태 위원 그러니까 사과하실 건가요?
 ○문정복 위원 아니요. 많이 있다며.
 ○위원장 김영호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요.
 ○문정복 위원 아니, 어지간해야 말이지요.
 ○김용태 위원 어지간히 하십시오.
 ○문정복 위원 어지간히 해야 말이지요. 예?
 ○김용태 위원 어지간히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정회할까요?
 ○김용태 위원 어지간히 하시라고요!
 ○문정복 위원 어지간히 하라고요, 줌!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정회할까요?
 ○김용태 위원 어지간히 하세요!
 ○문정복 위원 어지간히 하시라고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정회합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21시36분 회의중지)

(22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까 분위기가 너무 달아올라서 분위기를 조금 식히기 위해서 정회를 했고요. 또 아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또 문제가 있던 대로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이해를 서로 구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많이 허락하면서 청문회가 너무 뜨거워졌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에 좀 더 충실히 임해 주시고.

진선미 위원님께서서 자료 하나를 배포해 주셨고요. 또 김민전 위원님이 아마 보도가 나온 언론사 자료를 함께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됐는데, 진선미 위원님이 배포한 자료는 현재 우리 후보자께서 계셨던 충남대학교 학칙에 대해서 교육부가 충남대학교 학칙을 근거로 아마 유권해석을 한 부분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 보시면 여러 가지 논문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언론보도는 그와 상반된 내용의 보도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는 좀 참고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지요?

- 고민정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후보자께서 교육정책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현장의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또 학습동기도 유발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의도로 시작한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좌초되면서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르칠 교사도 혹은 공간도 마땅치가 않고 과목들도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로 취득한 학점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현장의 혼란이 상당히 심한데, 원래대로 하자면 이게 수능시험을 개편하는 것과 같이 투트랙으로 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만 시행이 되고 수능시험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이 지금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현장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겠는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지금 정해진 그런 고교학점제의 틀을 당분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나 현장의 문제점들은 해결하고 개선하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또 최소성취 보장제 같은 데서 최소한 5시간씩 선생님들이 보충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무조건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엄청 주는 그런 행위여서 그런 것들,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신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패스·페일(pass·fail)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것부터, 현장을 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고교학점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고민정 위원 그래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은 것 같아서.

학생들이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결정이 안 돼서 일단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기에는 굉장히, 학교 선생님들이 다른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 진로하고 학업에 대한 설계 지도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3분이 너무 짧네요.

○위원장 김영호 시간이 너무 짧지요?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후보자 자녀의 학비에 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저는 '06년도 당시 학비가 4만 4000불에 기초해서 두 자녀의 3년간의 학비가 3억 600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현재는 7만 5000불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의 가격으로 볼 때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동안 2명은 한 6억 200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랬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런데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

보시지요.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제출한 자료가 자녀 고등학교 학비와 가디언비 송금액만 33만 달러입니다. 환율을 당시의 1100원으로 계산하면 3억 6000입니다.

뭐가 제가 정리한 거랑 다른 거였지요? 제가 얘기했던 것의 절반이라면서요. 후보자 거짓말하셨습니다.

2025년……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한 명당……

○서지영 위원 설명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낸 자료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본인이 낸 자료가 당시 환율 1100원으로 계산했을 때 3억 6000이예요.

그다음에 자녀 대학 학비 및 생활비 송금액은 36만 달러, 후보자 자녀의 해외 유학 관련 송금 총액은 69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환율 한 1100원으로 계산하면 7억 5000, 2025년 1300원 환율로 계산한다면 8억 8000인데 이것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환전 금액입니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총 12억 5500만 원입니다.

2014년 기준 강남 아파트 24평이 10억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교육의 세습이 부의 세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걱정하시면서 그것이 가장 염려되는 현재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진단하신 분입니다. 교육의 세습으로 부의 세습이 이어지는, 본인이 당사자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재수학원 비용만 해도 한 달에 한 300에서 500 정도 든다더라, 그 정도 하면 후보자가 학비로 들어간 것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십니까? 재수를 그래서 10년씩이나 시킵니까, 보통 가정에서? 재수 한번 시키기도 힘들어서 자기 성적보다 훨씬 더 하향해서 아이들 대학 보내는 집이 수두룩합니다.

후보자님, 수만회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잘 모릅니다.

○서지영 위원 320만 명이 가입해서, 보통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전부 다 가입해서 수능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제가 재수할 돈이 없어서요’ ‘부모님께 차마 얘기할 수 없어요’, 재수학원도 못 가고 혼자 독학 재수한다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혼자 독서실에서는 공부한다는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후보자처럼 1년에 1억 얼마씩 자녀들에게 조기유학 보내면서 송금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정, 대한민국에서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어떻게 공교육을 책임지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위원님, 하신 말씀 모두……

○서지영 위원 후보님은 물론 내돈내산 해서 잘 사셨습니다. 후보님은 좋은 엄마로만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리해 주시지요.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높은 학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인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서 공립학교를 나오고 국립대학에서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고.

제가 정말 어렵게 국가의 도움만 받으면서 공교육의 그 혜택을 받고 감사해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뜻은 진심이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 공교육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따가운 시선을 항상 의식하시면서 혹시라도 공직의 기회가 있다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또 그런 질책의 애정 어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저는 오늘 청문회가 어떤 소통의 장이자 검증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비호가 아니라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서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했고 또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하면서 또 국민들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유·초중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교사 또 학부모, 학생 이런 분들과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면서 그 간극을 메워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많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아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수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지금 특수아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여건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를 경험해 보거나 특수학교에서 가르쳐 본 경험은 또 없으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백승아 위원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소통을 통해서 또 목소리를 들으면서 메꿔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체 학생 수는 지금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서 특수교육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과밀 특수학급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별 과밀 특수학급 비율 격차도 심하고요.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도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적정 기준이

4명인데 그것을 훨씬 초과한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특수교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의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수교육에 대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상황을 보니까 특수학교 수라든가 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걸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 수를 전격적으로 늘리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기간제 교사라도 늘려서라도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거기에 그렇게 썼고요.

○**백승아 위원**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특수교사 정원 확충 문제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랑 이런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특수교사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알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후보자님, 대학교수님들은 사실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요. 거기 조교도 있고 또 거기에 교무처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리 기관들이? 그런데 선생님들은 아시다시피, 행정업무라는 거 아시지요? 수업 본연의 것 말고 행사 준비라든지 공문 작성, 회의 참석, 민원 대응 이런 수많은 업무들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정성국 위원** 이게 사실은 선생님들을 옥죄고, 그러니까 수업보다 행정 업무를 먼저 처리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많이 부딪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주호 부총리 계실 때 교육부하고 같이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시도교육청으로 보냈어요. 반응이 너무 좋은데 제가 뭐라고 좀 제안을 드렸나면, 박성민 실장님 뒤에 아시겠지만 교원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부가 격려하고 인정하고 포상하고 하면서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가 진짜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님께서 정말 애를 써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수업, 생활지도, 상담, 평가, 이 네 개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저는 수업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활지도나 상담이나 평가까지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외의 일들은 선생님들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의사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여건을 좀 돌아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 드리는 목표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을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기서 ‘자신 있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잘 살펴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학교에 한 번만 가 보세요. 교육부장관후보자님이 가서 가지고 선생님들

이 어떻게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선생님들에게 힘든 일이고 본질적인 수업이라든지 생활지도나 상담하는 데 있어서 이 행정 업무에 투여하는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들 퇴근하지 말고 일해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 워라밸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가 보셔서 현장의 유·초·중등 선생님들의 목소리, 업무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 들어 보실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만약 되신다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정성국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 교육부가 있으면 교원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는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뭐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전교조도 있고……

○정성국 위원 예, 전교조. 또 뭐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또 교총 있고……

○정성국 위원 하나 더 말씀하시면 좋은데. 안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교사모가 있다고 하네요. 뒤에서 좀 알려 주시네요.

○정성국 위원 박성민 실장님이 바로 뒤에서 도와주시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교원단체 중에 제일 큰 세 개는 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가 있는데 이 단체들은 교섭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이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시고 현장의 의견을 잘 경청하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공감합니다.

○정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후보자님, 요새 엄청 덥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정을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지난 8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입니다. 그런데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해서 교실 에어컨 가동을 중단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운영비 부족으로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인천이 특별히 가장 어렵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정을호 위원 뭐가 어렵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재정 상황이, 운영비 상황이, 그런 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정을호 위원 예, 그렇지요.

운영비 책정이 말 그대로 학급 수하고 학생 수에 비례해서 책정을 하고, 아마 학교에서 재량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PPT를 한번 보시면 학교 전기요금 지출 비중이 평균 4.1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감당해야 할 학교운영비 규모는 전년 대비 유지하거나 2024년도에 일부 지역은 축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서울에서도 약 5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AIDT라든가 유보통합 등 줄속정책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폐지 등 지방재정에 부담을 많이 떠넘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꾀통더위에도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이런 비판을 검허히 한번 받아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정을호 위원 교육부가 집행할 수 있는 장관 특별재난교부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부분에, 이런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학교운영비를 증액 지원하는 등 학교 전기요금 지원에 적극 나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학교운영비가 부족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예비비 활용을 통해서 운영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재난교부금은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조금 적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제가 제안한 부분하고 함께해서, 저희가 교육부와 같이 이야기할 테니까요 의원실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여름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선제적 예산집행을 통해서 학생과 교사들 건강을 교육부가 먼저 술선수범해서 챙겨 줄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후보자님,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생 자살에 관한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를 보시면 2024년에만 221명의 학생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는 93명이기 때문에 2015에서 2024까지 가는데 자살률이 2.3배가 늘었다고 하고요.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시면 1.53에서 4.31로 늘었기 때문에 2.8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하는 교육이라는 이 분야는 이제 생존의 문제까지 와 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가 애가 학교를 가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하면 ‘우리 죽지만 말자’ 그렇게 인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듣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너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입시 스트레스도 있고 교우관계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알다시피 부산에 있는 3명의 고2 무용하던 친구가 동반자살했고 아까 고민정 위원님도 보여 주셨는데 학원에서 ‘이제 우리에게 봄날은 없다’ 그런 플래카드 한 학원에 다니던 애가 투신해서 또 죽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가 뉴질랜드 그다음에 일본, 우리라고 해요,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육운동도 하고 교육 무슨 정책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애들이 이렇게 죽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때 정말 숨이 이렇게 막까지 딱 차는데, 저는 아까 후보자님 말씀 들으면서 교육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교육부 수장의 예정자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시면서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마음 아프고요. 학생들의 마음, 정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다독여서 행복한 그런 학교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 생명 중시에 관한 교육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요.

○강경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학생들이 자살한 이유와 환경은 굉장히 다각, 굉장히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렇지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전후 상황까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초·중·고의 전문 상담인력 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서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거든요. 어떤 애는 학업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 어떤 애는 왕따를 당하고 친구관계가 안 되고, 팬데믹 때문에 또 사회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학생 자살 공화국 그리고 교육 재해 공화국 이런 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면밀하게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후보자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문정복 위원**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고 그다음에 교육세 일부가 들어가서 예산이 형성되는 과정도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문정복 위원** 그런데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교육부장관후보자께서 고등교육의 수장 출신이다 보니 초·중·고등학교에 쓸 예산을 일단 고등교육으로 조금 많이 배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좀 넉넉한 시절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세수가 갑자기 확 늘면서 일부를 교육안정화기금 그다음 시설안정화기금으로 넣어 댔는데 지금 계속 경기가 하락되면서 세수가 펑크나면서 그 예산들을 따박따박 다 갖다 썼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 9700억 원을 사실 정부가 쥐야 되는데 그것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쓰게 하다 보니 이제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이 더 줄어들게 된 거지요.

그러나 좀 다행인 게 이번 하반기의 47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좀 다행한 일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앞으로 장관이 되셨을 때 이 아이들이 써야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털어다가 고등교육에 많이 출연할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1인당 공교육비 특히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심각해서, OECD 평균의 66%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가져오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교부금은 유·초·중등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위한 헌법적 안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소 침해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다른, 예를 들어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라든가 또 민간 매칭펀드라든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찾아내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예, 혹여라도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 국회와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질의드렸을 때 여러 질문을 좀 계속 드렸는데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안 주셨는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조정훈 위원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사교육비가 문제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인정합니다.

○조정훈 위원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

○조정훈 위원 아니, 그것 보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이 시간쯤 됐으면 좀 자기 얘기도 할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사교육비 증가는 입시구조라든지 또 불안심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데 특히 이재명 정부에는 공교육 강화, 국가 책임 강화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이신 것 같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 얘기는 결국은 사교육……

○조정훈 위원 저 동의합니다. 이해했구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조정훈 위원 구체적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듣는다고 학부모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내가 학원비 좀 덜 써도 되겠구나라고 확신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것 다른 것 하나, 자사고하고 특목고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조정훈 위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조정훈 위원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무래도 그쪽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러니까 교육의……

○조정훈 위원 자사고·특목고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반대한다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요, 그런 뜻이라기보다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조정훈 위원 이것도 다 보고 하셔야 되는군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두 딸 큰돈 들여서 자녀 유학 들인 것 둘째 딸은 불법이지만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는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도 국민정서상 교육부장관 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린 것 아직도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만에 하나 임명이 되시면 앞으로 그러한 분들이 해외 유학 안 가더라도 국내에서 최고의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가 빨리 돼야 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이들 보낸 그 학교가 뭐지요, 마데이라? 굉장히 좋은 사립학교잖아요. 그런데 자사고·특목고 없애 가면서 유학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냥 간혀 있으라는 소리예요. 본인께서 아이들의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해외까지 중학교부터 보낸 사람으로서 자사고·특목고에 대해서는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차라리 그분들 돈 많은 학생들만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비 지원을 해 주세요, 교육격차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런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없애는 일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이것은 사회 전반에, 자사고·특목고 이런 것들을 폐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한다는 게 맨날 교육부 얘기로 해석하면 안 하겠다, 이런 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님, 대한민국 교육개혁이 필요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사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데 사실 대한민국 교육을 개혁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의사가 돼야지, 아이들이 의사가 되면 가장 안정된 직업 또 사회적 지위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으니까 사실 의대 수험생들이 지금 초등학생부터 시작, 더 나아가서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시장이 개혁이 돼야 하는데 제가 많은 외국 나라는 못 가봤지만 스웨덴 가 보고 우리 교육위원님 몇 분이랑 호주 시드니를 가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선진국 또 진보의 상징인 스웨덴 같은 나라나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는 대학을 안 나오더라도 청년들이 아이 낳고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사회예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지향점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으면 차별부터 받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교육을 개혁하려면 이 교육의 문을 두드릴 게 아니라 정말 이 저변의 여러 가지 대한민국 사회구조를 다 살펴보면서 교육개혁을 해야 되니까 교육부장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육개혁을 하기는 어렵고,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말 교육에 대한 모든 싱크탱크가 돼서 백년지대계를 국교위가 잘 설계해서 추진해 나가서 특히 사용자 중심의 교육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제가 뭐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교육부장관이 되신다면 국교위에 대한 그런 또 여러 가지 설계

를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제 보충질의 다 끝나고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여야 위원 간사님들끼리 합의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되면 자동 산회가 되기 때문에 가장 시간을 함축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야당 위원님들은 전원 다 질의를 하시고 여당 위원님은 두 분만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여덟 분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시간 준수해 주시고 이 질의가 끝나면 자동 산회가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위원장 김영호 의사진행으로 자꾸 시간 끌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김대식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어요. 뒤의 분들 뭐 하시냐, 도와드려라.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이니까 모르시잖아요, 장관 후보자님이.

그런데 장관후보자님, 지금 이 모든 내용을 전 국민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생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지금 급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위원장 김영호 그것 의사진행발언 아닙니다.

○고민정 위원 자료제출만 하자고 했잖아요.

○김대식 위원 아니에요, 자료제출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저를 보고 하세요.

○김대식 위원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답변을 하지 마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는 동문서답 해라.

○위원장 김영호 누가 그런 걸 지침을……

○김대식 위원 이것 되겠어요?

(포스트잇을 들어 보이며)

지금 장관님 위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까? 포스트잇 붙어 있습니까, 이것?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

○김대식 위원 붙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깥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이것은 좀 주의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런 걸 왜 붙이셨어요?

○김대식 위원 거기 있습니까, 그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김영호 아마 그것을 만약에 누가 붙였다면 공직자분들이 정말 장관을 위해서 붙인다는데 그건 사실 장관을 위해서 그런 것 붙이면 안 돼요. 저는 그런데 눈으로 확인 안 했는데……

○조정훈 위원 국회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 아닙니까, 이걸? 동문서답하라고……

○김대식 위원 동문서답하라 이러면 안 돼요.

○조정훈 위원 그렇게 보좌를 하세요?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그것은 잘못된, 아마 옆에 보좌하시는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은 여당 위원님들도 한마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 권위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호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님, 만약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끝나고 저 한번 줘 보세요. 끝나고 제가 다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중 가장 좋은 의사진행발언이었다는 말씀……

김대식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김대식 위원 제가 처음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 질문을 안 하려다가 하는데, 충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대식 위원 거기에 2000년 6월의 논문집에 ‘오피스 실내의 조명광원별 색채평가 특성분석’이라는 논문을 제출하신 적 있습니까? 쓰신 적 있습니까, 1 저자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몇 년에요?

○김대식 위원 2000년 6월인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2000년 6월에 산업기술연구소에요?

○김대식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대식 위원 출처 표기 없이 제자 진 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똑같은 논문을, 이 증표하고 똑같은 것을 썼다는 이런 제보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논문이네요. 꽤 오래전이고 그래서……

○김대식 위원 이것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총 8편의 논문이 제자 학위 논문과 같다 똑같다 이런 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다른 대학은 그런 게 없는데 저도 지금 파악을 했는데 충남대학교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 저자 이런 부분이, 교신저자로 하고 공동저자로 들어갈 수가, 다른 대학은 다 있어요. 있는데 충남대학교는 결국 후보자와 제

자하고 같이 논문을 쓰게 되면 1 저자가 주로 어디가 들어가냐 하면 제자가 들어가거든요, 논문 연구한 사람이. 그런데 여기는 지도교수가 먼저 1 저자로 들어가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게 충남대학교만 유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내가 진선미 위원님 그것을 전체를 보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제 논문 중에 제가 1 저자로 되어 있는 건 29%입니다. 나머지는 다 제자들이 주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아까 8편 그것도 주저자가 지금 후보자로 돼……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논문인지 잘 몰라서요.

○김대식 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후보자님, 장관이 되시면 소신껏 좀 하십시오, 소신껏. 소신껏 하시고, 총장 하실 때처럼 소신껏 좀 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김대식 위원님께서 장관 되시는 것을 조건으로 많이 또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되신다면, 가정형.

○김문수 위원 후보자님, 지금 고교 무상교육 또 만 5세 무상교육 이것 대통령 공약인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문수 위원 그리고 또 학교 비정규직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지만 좀 더 정확히는 무기계약직들이에요, 대부분.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문수 위원 급식 관련해서만 6만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방학 중에 급여를 못 받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김문수 위원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를 들어 본 적이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저도 놀랐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김문수 위원 대학은 급식 관련된 분들이 용역으로 별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으로 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대학도 꽤 오래전에 대부분의 용역직들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방학 중이라고 급여를 안 받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대학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렇지요. 무기계약직으로 됐다면 그럴 일은 없지요.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요.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일을 안 하는 조건으로 또 돼 있다 보니까 더 이상하지요. 그러면 월급을 못 받을 때 그러면 댄 데 가서 알바라도 해서 벌어들여 이렇게 하면 그나마 나운데 그건 또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방학 중 급여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하려고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럴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렇게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또는 교육부 전체 교육 예산이 지금 타 부처에서는 너무 많다고 남아돌아간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지금 지방재정교부금법도 아까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3년 동안 세수결손이 좀 왔고, 모든 게 여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외부의 시선이지 교육 예산의 현실은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어떻게든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해결이 되는 거여서 많은 노력도 하고 같이 국회의 도움도 받으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아까 방학 중 급여 못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해결해 드린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좀 상세히 보고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민전 위원** 후보님, 후보님은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대전에서 나오시고요 또 충남대를 나와서 동경공업대를 거쳐서 다시 충남대에서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역인재로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반갑게 봤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올해 초에 교육현장에서 정말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하늘이.

○**김민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고 김하늘 양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김하늘 양의 경우에는 선생님에 의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요. 2023년에는 교사가 2019년부터 4년간이나 민원을 받다가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두발언에서도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겠다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잔인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그래서 학교가 안전한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들, 그러니까 소극적인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CCTV 설치에 대한 것 또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해 주셨습니다만 돌봄교실 근처뿐만이 아니라 출입구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데 CCTV를 설치하자 그런 방법부터……

○**김민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일단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김민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사실 이 돌봄교실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돌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특히 일하는 엄마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이런 면에서도 돌봄교실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돌봄교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너무 어렵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치게 노는 것 위주이지 공부를 안 가르쳐서 불만이다라고 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한편에 있어서는 수요가 많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파악하면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걸로 80% 이상의 굉장히 기대가 높은 걸로 파악을 했는데 그와 같이 놀이 위주로 되고 있다라는 현실은 또 오늘 위원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과 말들이 나오는지 제가 장관이 된다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준혁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약간의 당부 같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가지 내용 안에 바로 소외된 학생들, 소외된 선생님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40여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아버님은 굉장히 행복한 선생님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존경받는 선생님이셨지요. 그런데 요즘 선생님들이 존경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입시 위주의 정책과 또 입시 위주의 사회 여기에 또 부유층과 중산층·서민층의 교육격차, 지원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고 그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가 커지게 되고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앞서 고민정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후보자님께서 마음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저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마음 치유 또 학생들에 대한 마음 치유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부유층 학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서민층 학부모님들의 좌절, 슬픔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아가서는 앞으로 정상적인 사

회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뒤에 있는 교육부 관료들하고 다양한 선진적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좀 따뜻하게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들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 사람의 사람을 얻는 것보다 한 사람의 힘 없는 사람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려 주는 게 우리 교육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특별히 더 질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잘 새겨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후보자님, 오늘 장시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요 저는 후보자님이 교육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라고 죄송하지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 유학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여건에 따라서 또 능력에 따라서 유학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격차 해소를, 공교육을 확립해야 할 수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도농복합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교육을 절감하고 공교육을 세우자는 취지인데요 거기 가서서 학부모들께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 학부모님들도요 우리 아이들 유학 보내고 싶다, 우리 아이들 사교육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공교육을 추진해야 되고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추진해야 될 교육부장관으로서 저는 영이 안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등교육을 관리 감독해야 할 수장으로서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아까부터 2018년도 불쾌클레어하고 피로감 연구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거 연구 쪼개기, 학술논문 쪼개기로 보여집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연구윤리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 안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논문 쪼개기에 대해 개념을 어떻게 두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논문 쪼개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논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논문 쪼개기라는 거 사례를 한번 들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봤을 때는 논문 쪼개기라는 말을 그렇게, 그런 거는 객관적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연구자가……

○김용태 위원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논문 쪼개기로 보여지고요. 지금 후보자님의 그런 말씀들이 연구윤리에 대한 기준이 너무 안일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유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존경하는 위원님……

○김용태 위원 죄송합니다만 저는 후보자님께서 국토부장관이라든지 여가부장관이라든

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장관으로서 저는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아이의……

○김용태 위원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답변은 나중에 시간 드릴게요.

○김용태 위원 정책질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찬성하면 어느 지역에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까 전남 지역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의료 수요가, 혜택이 없는 곳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의대생을 증원해야 되는 걸 텐데 여기에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수준에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에 의대생 증원이 돼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바인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물론 그런 취지는……

○김용태 위원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공의대를 하려면 증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런 거는 교육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정해야 될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가 아까 못하게 했는데 혹시 답변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제가 아이들 유학 문제는 정말 송구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제 평생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부끄러운 것하지 않았습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자와 지나온 세월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상세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점임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답변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후보자님,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께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단 대학총장도 하였고 하시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많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 선거 직전에 맡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셨지만 거점국립대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 가지고 절대 터치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교부금 비율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비율이라 하면……

○서지영 위원 교부금 비율 모릅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한 100 대 20 정도 됩니다.

○서지영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아니, 아까 그……

○서지영 위원 무슨 용어인지 모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국세의 몇 %인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20% 조금 넘는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 20.79%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교육 재정 비용하고 그다음에 초중등교육 재정 비용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쪽 자료 봤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해서 말하기가……

○서지영 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전체 우리나라 예산이 105조 정도 되는 데 있어서 한 80조 정도였다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서지영 위원 아니, 유·초등교육 비율하고 고등교육 재정 비율하고 몇 대 몇인지 모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자료는 봤는데 지금 현재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아니,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대략적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8 대 1 정도 됩니다. 8 대 2 정도 됩니다. 뒤에서 알려 줘서 말씀드립니다.

○서지영 위원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시군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고등교육 재정이 유·초등교육 재정에 비교했을 때 거의 한 8 대 2 정도 구조지요. 그래서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 현재 아시다시피, 본인도 총장 하셨지만 고등교육에 여러 가지 전반 되는 투자의 비용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대학교육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총장 재직 시절에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맞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이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서울대 10개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3조 정도 더 추가되어야 될 텐데 5년 치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한 15조 됩니다. 그 재원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위원님들 도움도 받고요. 관계부처 모두와 그리고 또 유사·중복된 많은 관련 재원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이라든가 또 대학 수익사업의 다각화 또 조세제도를 좀 완화함에 의한 기부금 제도 이런 것들을 모든 지혜를 모아서 다양한 재원을 만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한 10초만 저한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러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아까 제가 자녀 교육비 얘기하면서 후보자님이 우리 서민들과 굉장히 유리돼 있고 공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본인의 인생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변호를 하셨습니다.

후보자 개인의 삶은 문제없습니다. 자녀 조기유학 보낼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번 돈으로 보냈으니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교육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교육에 해당하는 12억 원이나 드는 비용을 들여서 자식을 해외

유학을 보내고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또 거기에 있지요? 아까 포박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 인재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총장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은 훌륭하신 인생을 살아 와서 큰 문제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공교육의 대표가, 수장이 될 자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위원장 김영호 답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저희 아이들은 반드시 돌아와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잘,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후보자님, 아까 기억하시는 교원단체 3개 이야기하셨잖아요, 최대 교원단체 3개. 기억하시지요, 최대 교원단체?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기억하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정성국 위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대 교원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3개 교원단체들이 모두 이진숙 후보자님이 부적격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참 가슴 아쁩니다.

아무런 근거나 논리 그리고 이런 판단 없이 교원단체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진보 성향, 보수 성향에 따라서 갈립니다. 이 교원단체들이, 교원노조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아주 엄중한 상황인 것을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해명을 다 직접 들었는데, 후보자님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문 관련 연구윤리도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검증단에서 다시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에 대한 부분들 국민 눈높이나 국민 감정선에 맞지 않다는 부분 지적했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유·초중등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질의 중에 후보자님의 그런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아주 빈약하다는 데 대한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문 문제나 자녀 유학 이런 부분들은 후보자님 개인의 영역일 수가 있어요. 논문을 쓰고 할 때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일 수 있고 자녀 유학도 그 자체로 끝나지만, 후보자님이 미치게 되는 영향은 대한민국 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결여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앞길을 여는 데 있어서 그 수장이 전문성 없이 교육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가지게 되는 우려는 우리 모든 국민들,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가 다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사유들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빈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본

인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펼쳐 나갈 그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분이 학교 현장의 모습을 학부모로서도 경험하지 못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부모로서조차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런 분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나가고 결정한다?

저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진숙 후보자님께서 교육부장관후보자로써 부적격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말씀 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저는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생애 주기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단계도 허투루 취급되면 안 되지요.

저는 고등교육현장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열심히 들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오늘의 추가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남았지요.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훈 간사님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정훈 위원 후보님,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 뵈 분한테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피했을 대화와 표현도 썼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앉아 있는 야당 간사라는 자리 때문에 그런 대화도 있었다는 점, 개인적인 사감은 전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루 종일 교육부장관의 자리는 누가 맡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사전에도 없고 법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시간이 넘는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을 지켜봤던 수많은 국민들께서 이진숙 후보가 교육부장관이 돼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더 올라갔을까 아니면 부적격하다는 쪽으로 더 여론이 올라갔을까라는 질문 앞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논문과 불법 조기유학, 개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오신 것 인정합니다. 참 잘 챙기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25개 위원회 하시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희소성 잘 활용하셨습니다. 아이들 조기유학 보내면서 아이들 교육 잘 시키셨습니다. 하버드 나왔으면 좋은 학교 나온 거고 카네기멜런 좋은 학교 맞지요. 미국 최고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 잘 보내셨는데 그만큼 국민들에게 굉장한 허탈감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압도할 만큼의 전문성과 감동이 있었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정상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 하나 없었고요. 사교육 절감하시겠다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표현, 제안 하나 없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재명 정부가 이진숙 후보를 교육부장관으로 그렇게 임명하고자 하는지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육부장관후보를 낙마시키는 마음이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의 교육위 간사로서 후보는 부적격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감히 한말씀 드리면 지금 멈추시는 게 맞습니다. 오죽하면 뒤에 있는 교육부 공

무원들도 후보를 불안해하면서 답변하지 마라, 동문서답해라 이런 쪽지를 줄 만큼 무례한 짓을 하겠습니까.

후보님, 여기서 멈추시는 게 후보님과 후보님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님,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마무리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마무리 발언이 있으니까, 조정훈 간사님의 이 발언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 발언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진숙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

오늘 긴 시간에 걸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인 저에게 귀중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부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교육 전반에 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소망을 느꼈습니다. 또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커리어를 쌓아 가는 과정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만약 제가 교육부장관에 취임한다면 제 논문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 주신 여러 분 또 제 취임을 반대하신 여러 분들과도 직접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초중등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만약 교육부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유·초중등 분야의 여러 현안에 대해 더 열심히 살피고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임하는 내내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얻은 귀한 배움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에 봉사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뜻을 담아 주신 말씀들은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쓰신 위원님들과 청문회를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문수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님, 오늘 참 많은 국회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질의가 사실 한 분 한 분 국민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일부는 좀 불편한 질문도 있었고 또 격려 차원의 질의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너무 마음 불편한 질문도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깊게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국회에 좀 어려웠던 자료를 참 성실히 제출해 주신 것은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치부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상히 자기의 의혹에 대해서, 특히 논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한 부분은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셨고 여당 위원님들은 조금 납득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다만 내일부터 이 청문회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텐데 그 국민의 평가를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또 부정할 수 없는 게 후보님의 따님 유학 부분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사과를 하셨는데 만에 하나 후보님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따님 조기유학에 대한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닐 겁니다. 특히 공교육에 소홀하든지 현장에 소홀했을 때 따님의 조기유학에 대한 꼬리표는 아마 국민들의 커다란 분노로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에 취임하시는 일이 있더라도 따님의 조기유학에 대한 부분을 늘 생각하고 인식하시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따님의 조기유학이라는 약점을 항상 상기하면서 잘 하나하나 채워 나가시라는 위원장의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약간의 소동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야 위원님들 다른 청문회보다 질서 있고 또 서로의 존중이 빛나는 청문회였다고 위원장은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후보님 고생하셨고요.

교육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관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1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출석 공직후보자

이진숙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대변인 구연희

정책기획관 배동인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